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마음의 빛을 안으로 비추어
저 바탕을 깨달을 뿐.
부디 고프머리를 돌지 말라.
-백운스님-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5월 3일 수요일 (주간) 제 269 호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780 www.buddhapia.com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사찰불사의 모든 것
책임 상담해 드립니다.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청동대불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인터넷 사이트들을 다니다보면 여러 종류의 상담 페이지들이 뜬다. 직업병 관련 사항을 법규에서부터 병세까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건강쌤' 같은 건강관련 상담페이지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타종교의 경우 결혼상담 사이트도 개설되어 있다. 이런 상담사이트들은 대부분

인터넷시대 박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사찰 홈페이지엔 '상담코너' 꼭 필요

무료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상담실이 개설되어 있는 불교 사이트는 부다피아 외에 불교정보센터의 상담실과 달마넷 사이버 법당의 신행상담 코너 등이다.

달마넷의 경우는 신행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상담만 하고 있지만 불교정보센터는 자비의 전화 상담자들이 맡아 가정·부부·이성·종교·인생·사회·정신건강·신체건강·청소년 등의 생활상담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부다피아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건강·교리·교육·법률·세무·인생·종교·신행상담 등 생활전반에 관련되면서도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있다.

부처님은 교화를 하면서 대기설법을 펼쳤다. 불자들 개개인의 근기에 맞게 설법해 주는 것이다. 상담은 현대식 대기설법이 될 수 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일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을 풀어주면서 부처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해결하는 방법 자체를 불교적인 방식으로 제안할 수도 있다. 특히 인터넷은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상담을 원하는 이들이 좀더 진솔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된다.

불교 사이트 가운데서도 상담코너를 꼭 개설해야 할 곳은 사찰 홈페이지들이다. 홈페이지가 단순히 사찰 소개와 법회안내를 위해 개설되어 있다면 이는 죽은 홈페이지일 뿐이다. 상담페이지를 상설화해 운영하면서 네티즌 불자들 뿐만 아니라 비불자에게도 얼마든지 열린 상담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스님들도 절에 오는 신도들만을 대상으로 상담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이버 사찰에서도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신행상담이 이뤄져야 한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직지사앞 음식점 건축불허" 김천지원 판결

'수행환경권' 법적 인정

직지사 수행환경 분쟁이 직지사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부(부장판사 이기택)은 4월 24일 곽모씨가 직지사를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등 가처분에 대해 곽씨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서 직지사 일주문앞 음식점 신축은 어렵게 되었다.

곽씨는 직지사 일주문에서 56m 떨어져 있는 3177평방미터의 토지에 음식점을 지으려 했으나 직지사측이 공사를 저지하자 지난 해 10월 김천지원에 공사방해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냈다.

이에 대해 김천지원 민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음식점)이 완공될 경우 전통사찰이자 소속 승려들의 수행도량임과 동시에 관광명소로서 유지되고 있던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이 상당부분 훼손될 것으로써, 사찰이 그동안 수행하고 있던 기능을 방해받게 된다"며 곽씨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95년 서울삼성동 봉은사 앞 고층빌딩 높이를 제한한 서울지법의 판결에 이어 나온 두 번째 판례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공공시설의 환경권에 우선할 수 없으며, 사찰의 자연환경권은 물론 수행환경권까지 보호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지난 해 2월 건축법 8조 4항(공공시설을 주변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폐지됨으로써 전통사찰의 수행환경권 침해 및 분쟁 사례가 10여건에 이르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이번 판결로 환경분쟁을 겪고 있는 사찰의 수행환경권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사찰환경 침해를 막기 위해 개정한 전통사찰보존법 6조 2항(전통사찰 보존구역 인근에 건축물의 신축 또는 변경 허가를 하는 것이 전통사찰 보존 및 수행환경 보호 취지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곽씨는 김천지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구고법에 항소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종교별 대북창구 단일화"

김용재 교수, 종교지도자 금강산 순례 특강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의 남북종교교류와 관련, 종교별로 대북접촉창구를 단일화해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일교육원 김용재 교수는 1일 종교지도자 금강산순례 특별강연에서 "그동안 남북 종교교류가 결실을 거두지 못한 이유는 북한 종교단체의 선전기구화, 남측 종교인들의 일방적이고 경쟁적인 교류 시도 때문이었다"고 지적하고 △종교별 대북접촉창구 단일화 △불교 천도교 등 북한지역에 문화재나 관련 종교시설이 있는 경우, 이의 보존·보수 지원을 포교와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 "북한종교인의 인식을 점진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종교기구의 참여를 통한 방법이 효과적"이라며 세계종교회의나 제3국 중개 만남 등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종교지도자 금강산순례(1~4일)에는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7대 종교지도자 150여명이 참가했으며, 특별강연과 함께 남북평화통일기원 공동기도회, 통일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 주제의 토론회 등으로 진행됐다.

정성운 기자

"사찰환경법 제정"

조계종, 친환경 불사 유도

조계종 총무원은 도량으로서의 청정성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불사를 유도하기 위해 '사찰환경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부는 법안 작성에 들어갔으며, 법안에는 사찰 주지를 수행환경 관리인으로 위촉하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총무원에서는 사찰환경 보존을 위한 교육과 행정지원을 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또 친환경적인 불사와 오염물질 방출의 최소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와의 교류를 활성화해 환경분쟁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총무원은 법안을 마련하는대로 중앙종회에 법 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등 밝히는 가족불심 온 누리에 퍼질 자비의 등에는 회망이 함께 걸린다. 봉은사를 수놓은 등에도 그런 중생의 마음과 부처님의 모습이 함께 걸려있다. 햇살이 화사한 봄날 불자 가족이 봉은사에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등을 달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통일 위해 큰 걸음을"

조불련, 진각종에 메시지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박태화위원장은 4월 24일 진각종에 불기254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특별메시지를 보내왔다. 다음은 그 요지.

"부처님 탄생하신 뜻깊은 날을 맞으며 나는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북녘 불자들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북녘불자들은 지금 이 시각 진각종단을 비롯한 남녘의 형제법우들과 더불어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하나로 뭉쳐 범통교적인 통일대정진을 다그칠 일념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종단과 단체, 지역과 연령, 성별의 울타리를 뛰어내고 앞선 자는 자만하지 말고, 뒤진 자는 부지런히 뛰어 모두 함께 통일의 대장정에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불교는 진정 겨레의 마음속에 자리잡는 불교로 될 수 있습니다.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어 역사에 길이 남을 통일대업을 이어갑시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종교지도자들 8월 유엔평화대회서

'세계 평화선언' 발표

내년 대회 서울서 개최

세계의 종교지도자들이 유엔에 모여 세계평화선언을 발표한다. 세계평화선언은 8월 28일 유엔에서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열리는 종교 및 영성 지도자 세계평화대회에서 발표하며, 이 대회에서는 유엔사무총장을 지원하는 '종교 및 영성 지도자 국제자문기구'도 구성한다.

이와 관련해 세계평화대회 바와 제인 사무총장은 1~4일 서울을 방문,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을 비롯한 종교·정치 지도자, 기업가를 초청해 서울자문회의를 연다. 바와 제인 사무총장은 이 기간중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정대스님과 별도로 만나 정대스님의 자문위원 위촉, 내년도 세계평화대회 서울 개최를 논의한다.

바와 제인 사무총장은 서울자문회의 초청장을 통해 "세계평화대회는 역사상 최초로 전세계의 저명한 종교 및 영성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평화 정착과 평화 유지를 위한 유엔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의 세계평화대회에 이어 내년에는 이 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서울대회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과 종교 및 영성 지도자들의 역할과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세계평화대회는 분쟁을 예방하고 종식시키자는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열리는 것이며, 스리랑카의 마하고사난다 스님, 인도의 불교운동가 아리야라트네, 넬슨 만델라, 지미 카터 등이 국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혜향스님의 학등 최우수상 '영예'

봉축위 燈 경연대회



봉축위원회(위원장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는 4월 24일 불교회관1층에서 등(燈)경연대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부문 최우수상에 혜향스님(한마음선원 청년회 지도법사)이 출품한 학등(鶴燈·사진)을 선정하는 등 수상작을 결정했다.

심사위원회(위원장 원택)는 전통성(작품의 소재 및 재료의 선택)과 창의성, 실용성(장업부문) 등 3가지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해 개인부문 최우수상 수상자에 혜향스님, 우수상은 북주머니등을 출품한 유은숙씨, 특선에는 항아리등(김행자) 가마등(박영랑)을 선정했다. 학등은 학이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모습으로, 자전거를 이용해 이동하도록 했다.

또 단체부분 최우수상에 한마음선원이 출품한 연꽃일등, 우수상은 개화산 미타사, 특선에는 청룡암과 능인선원이 선정됐다.

정성운 기자



아셈 NGO포럼 봉은사서 연다

10월 18~20일…30여국 120여단체 참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사찰인 봉은사가 아셈(ASEM,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과 함께 열리는 아셈 NGO포럼 개최 장소로 선정됐다.

봉은사(주지 원혜)는 1일 종무회의를 열고 아셈NGO포럼 사무국(집행위원장 유재현)의 제안을 받아들여 봉은사를 포럼 장소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봉은사가 민간단체 포럼 개최 장소로 선정됨에 따라 봉은사는 물론 한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전통사찰 문화가 전세계 뉴스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봉은사는 이와 함께 아셈 회의를 전후해 2주일 동안 불교문화행사를 개최하기로 해 외국인들의 한국불교문화체험의 장소로 주목받게 됐다.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은 "우리나라의 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며 "NGO포럼 사무국과 실무협의를 거쳐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아셈NGO포럼 사무국은 애초 포럼 장소를 한양대로 정하려 했으나, 우리 문화 알리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불교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봉은사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봉은사에서 수락함에 따라 이뤄졌다. 아셈 회의장과 인접해 있는 봉은사는 도심에 있으면서도 전통사찰의 품격을 유지하고 있고 미륵전 법왕루 등 10여동의 당우와 야외공간이 넓어 포럼 및 문화행사 장소로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아셈NGO포럼은 아셈회의 기간중인 10월 18~20일 열리며, 12개 분과(종교, 인권, 평화, 환경, 여성, 빈곤과 개발 등)로 나눠 50개 주제의 포럼과 다양한 문화행사로 진행된다. 포럼에는 우리나라의 50여 단체를 비롯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30여개국의 120여개 민간단체 대표 500여명이 참가한다.

한편 아셈NGO포럼 종교분과(대표 김선실 천주교 대안경제연대 회장)는 4월 19일 열린 4차 회의에서 '영성과 세계화'를 대주제, '일과 수행과 사회적 실천의 통합' '종교분쟁과 국가권력' '종교와 여성'을 소주제로 정해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발표자 및 토론자는 아직 미정이다. 또 세계적인 종교지도자를 초청, 기조발제 또는 특별강연을 하기로 했다. 베트남의 틱낙한 스님, 태국의 불교운동가 슬락 시바락사 등이 초청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종교분과는 포럼 개최와 함께 행사기간중 불교 등 6개 종교 연합합창제, 불교 영산재(미정), 유교 석존대제, 종교분쟁 및 전쟁 희생자 종교별 추모의식 등의 문화행사를 펼친다. 종교분과에는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 재가연대 정토회 등 불교단체와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이슬람 등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담방편으로 포교하기 위한 교육및 지원, 이론정립에 본격 나서게 될 불교상담개발원이 4월22일 창립했다.

불교 상담교육원 창립

"상담포교 전문가 육성"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상담 활동과 이론 기법을 연구 개발 지원하고 상담인력 양성 역할을 담당할 조계종 포교원 불교상담개발원이 4월 22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창립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이날 창립과 함께 10주년을 맞은 불교상담기관 '자비의 전화'를 부속기관으로 흡수하여 불교상담교육 및 실천의 전문성을 갖췄다.

상담개발원은 앞으로 상담, 상담교육, 연구개발, 현장교육·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교상담대학 운영 △사이버상담 실시 △열린상담실 운영 △상담원교육 △사찰 및 각 단체 상담프로그램 지원 △불교상담이론 정립 △상담 자료집 발간등의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초대원장 이근후(이화의대)교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담이라는 방편에 실어 이 세상에 널리 펼치겠다"고 밝혔다.<관련 인터뷰 4면>

상담개발원은 이날 상운(포교원 포교부장) 지광(능인선원 주지) 지정(불광사 주지) 진관(진관사 주지) 인행(보문사 주지) 정덕(자비전화 회장) 일법·진오(자비전화 부회장)스님, 윤호균(가톨릭대 심리상담대학원장) 김기병(포교사단단장) 고화영(능인복지상담실 팀장) 고태영(봉은사 새신자전법회 회장) 국순려, 송주희(자비전화)씨 등 19명의 이사를 선임했다.

또 이동식(한국정신치료학회) 명예회장등 자문위원 18명과 방기연(맑은샘심리상담연구소)소장등 14명의 연구위원을 위촉했다.

한편 기념법회에는 포교원장 정련(상담개발원 총재), 원해(봉은사 주지)스님, 이영희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회장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3만6천건 '상담'

'자비의 전화' 10년

전화상담 봉사기관으로 출범한지 4월 22일로 10년을 맞은 자비의 전화(회장 정덕스님)는 그 동안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교계 내에 상담교육과 직접상담을 펼쳐 독보적인 위치를 점해왔다.

자비의 전화는 90년 창립한 뒤 98년에는 24시간 상담체제를 구축하며 10년간 총 3만6천189건을 상담했다.

자비의 전화가 갖는 또 하나의 성과는 불교 상담학의 터전을 마련했다는 것. 그 동안 서구의 심리학 이론에 기반한 상담이 주종을 이루던 상황에서 불교의 교리나 수행법에 기초하여 한국인의 정서와 가치관에 맞는 상담이론을 일정정도 체계화했다는 평가다.

상담훈련 교육자도 매년 50여명씩 배출하여 교육수료생들이 인천 자비의 전화, 대구 자비의 전화, 광주 자비의 전화, 조계사, 봉은사, 능인선원, 불광사, 구룡사 등 9곳에 상담소를 열고 있는 것도 큰 성과다.

90년 200여 상담원과 600여 후원자들이 불교상담에 대한 강한 의지로 모여, 한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좌초위기를 겪는 등 숱한 우여곡절 끝에 이룩한 자비의 전화 10년 성과는 불교상담개발원 창립으로 고스란히 이어져 불교상담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편 10년간 자비의 전화 상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부분은 부부문제(6,968건)로 나타났다. 이어 이성(5,998건) 가정(4,525건) 종교(4,025건) 인생(3,457건) 청소년(3,330건)문제 순으로 상담이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42.5%)보다 여성(54.2%), 직업별로는 주부(10,302명, 28.5%)와 학생(4,116명, 11.4%)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김원우 기자

외국인 가족참가 연등 페스티벌

종각서 5월7일 2시

국내거주 외국인들이 가족단위로 참가하는 제 1회 연등페스티벌이 5월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각일대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를 주관하는 국제포교사회(회장 양장운)는 4월 19일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등 20여개국 한국주재 외국대사관에 공문을 보내고, 2000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여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연등만들기 축제에 각국 대표 한가족씩을 참가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연등페스티벌에 참가하는 20개국 외국인가족들은 이날 전통연등을 만들며 가족간 친목과 국가간 화합 그리고 한국불교를 이해하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등제작이 우수한 외국인 가족에게는 경품도 제공한다.

또 외국인 가족들은 직접 만든 연등을 들고 종각에서 탑골공원까지 제등행렬도 실시하여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할 계획이다.

양장운회장은 "이번 행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한국불교를 알리고, 연등에 깃든 불교의 자비정신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일본간 달라이라마

"서울 방문하고 싶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최근 한국정부의 방한비자 발급거부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방문하고 싶다며 강력한 방한의사를 표명했다.

달라이라마는 4월15일 일본방문(13~19일)중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법전스님(오스트리아, 헝가리에서 포교)과 강재욱 서울대총학생회 부회장, 석민철 서울대총불교학생회 회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한국 방문을 위해 노력해 준 한국의 불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한국의 불교계와 기독교계를 좀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법전스님 일행의 예방을 특별 주선한 일본주재 티베트망명정부 대표인 카르마 유툭 스님은 "올해 일정이 비록 꽉 차 있지만 한국정부가 비자를 발급할 준비만 된다면 그 분의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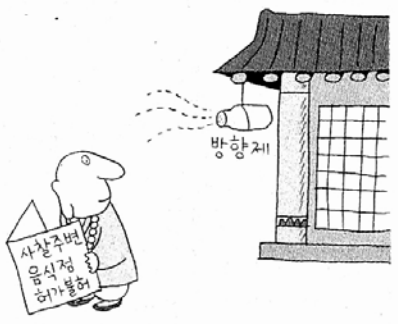
김재경 기자



진각종 홈페이지 새단장

진각종의 홈페이지(http://www.jingak.or.kr)가 멀티미디어로 새롭게 단장, 1일 개통됐다. 비디오와 오디오 자료가 강화되어 만들어진 홈페이지는 밀교교리와 종단에 대한 이해, 교육·포교 프로그램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점과 밀교교리대법회, 교성곡 회당 공연 등 종단의 행사들을 멀티미디어로 볼 수 있게 한점이 돋보인다. 또한 종단 각 기관과 산하 단체, 전국 심인당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를 구축해 나가도록 했고, 종단과 각 신문 방송사, 잡지사 등의 홈페이지와도 링크되어 있다. 이경숙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이젠 필요없겠군

초파일 앞두고 등나누기 '열기'

능인선원 장엄등 4점 지방사찰에 기증

봉축위도 군부대·교도소등에 등보내기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등(燈)나누기'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능인선원. 능인선원에서 자체 제작해 제등행진 때 불자들과 시민들로부터 갈탄을 지아냈던 대형 장엄등 4점을 지방의 사찰과 불교단체에 나누어주었다.

능인선원은 봉축위원회에 장엄등 기증 의사를 밝혔으며, 봉축위원회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홍보물을 통해 알렸다. 여러 사찰과 단체에서 주문(?)이 쇄도했으며, 4월말 홍천 수타사(법고등 장엄물), 아산 윤정사(탑등 장엄물), 홍성 용봉사(종등 장엄물), 창원사암연합회(용등 장엄물)에 전달했다.

봉축위원회 박상희 간사는 "능인선원의 장엄등 기증으로 지방에서도 다채로운 장엄물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등문화 보급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봉축위원회에서도 교정시설과 군부대에 '등 나누기'를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난 해 서울지하철 70개 역사에 장엄하였던 초롱등 가운데 1200여개를 성동구치소, 영등포구치소, 서울구치소, 수원교도소, 의정부교도소에 보냈다. 종로 거리에 설치했던 가로연등은 연경도 해병호국사 연평부대법우회에 보내 장엄토록 했다. 봉축위원회는 또 국군수도병원과 국립경찰병원 국립의료원 보훈병원 등에서 투병중인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물품지원도 했다.

봉축위원회는 한번 설치하고 버리지 말고 올해 썼던 등을 교정시설 군부대 등에 보내면 유용하게 쓰인다며 많은 사찰이 등나누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운 기자

진각종대표단 방북 연기

5월 23~30일로 계획돼 있던 진각종 대표단의 방북이 6월 20~27일로 연기됐다. 이유는 6월 12~14일이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각종의 방북대표는 성초 통리원장, 일정 교육원장, 혜정 종학연구실장, 혜명 문화사회부장, 무외 포교부장, 지현 복지재단 사무국장 등 6명이다. 이경숙 기자

'바른신행 방향' 세미나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4일 오후 4시 포교원 지하강의실에서 '한국사회 현실과 바른 신행의 방향'을 주제로 봉축 신행혁신세미나를 개최한다.

발제자는 윤원철교수(서울대 종교학과)와 이종철연구원(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며, 토론에는 전재성(한국빠알리어협회), 정영근(한국산업대 철학과), 노부호(서강대 경영학과)교수가 참가한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포교논문 공모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포교에 대한 종단내외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포교활성화를 위해 제 2회 포교논문 공모를 실시한다.

포교논문 공모분야는 △조계종의 계층(유아 청소년등)별 지역별 포교방안 △포교방법 및 실천사례 연구 △해외포교방안 △신도교육 및 조직화 방안 △사찰의례·의식 △사찰 포교 활성화연구 및 대안제시 등이며 10월 31일 마감한다. 문의 02)720~7064. 김원우 기자

혜초여행개발(주) HYECHO ADVENTURE TOURS.
대표☎ 733-3900 6263-3900
담당☎(직) 6263-3921-22,28 fax 733-3780
www.hyecho.co.kr E-Mail:hyecho@hyecho.co.kr

諸法無我
걸망메고 대륙의 중앙으로....

중국 보타/낙가/구화산 순례 - 황산,보타,낙가,구화산.... 6日
미얀마/태국 순례 - 양곤,파간,만달레이,방콕.... 6日
스리랑카 성지순례 - 콜롬보,캔디,담불라,시기리야.... 8日
시킴/부탄 순례 - 다질링, 강톡, 파로, 팀푸, 푸나카.... 14日
파키스탄 간다라순례 - 탁실라,스왓,페샤와르,라호르.... 8日
대만 성지순례 - 타이페이,고웅,화련.... 5日
일본 성지순례 - 교토,나라,오사카..... 4日
앙코르와트 순례 - 사이공,시엠립,프놈펜.... 6日
보로보드르 순례 - 발리,족자카르타,자카르타 5日

스포츠조선과 함께 대마도탐방 ₩440,000
· 일 정 : 부산 - 대마도 - 부산(2박 3일)
· 포함사항 : 선편,전 일정 숙박,관광, 역사학자 및 현지안내인 동행,보험
· 출 발 일 : 5월 12일(금) - 20명 선착순
역사학자와 함께 현해탄과 대마도를 탐방합니다.

JEEP 타고 티벳평원을 횡단 ₩1,990,000
· 일 정 : 카트만두-라사-장쩨-시가체-시가-장무-카트만두(11박 12일)
· 포함사항 : 항공료,숙박(조식포함),Zeep(4인탑승),중국비자,티벳여행허가서 사원입장료,영어가이드,보험
· 출 발 일 : 매주 목요일(4명 이상 - 최소규모 출발합니다)
※영국,독일,프랑스,한국 연합상품으로 Zeep 이용조건.

Tibet
금단의 大地 티벳 걸망여행 ₩990,000
평균고도 4,000를 넘나드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티벳고원...
스스로 불교 땅임을 자처하는 티벳인들의 삶.....그리고 히말리아!
時호을 넘나드는 티벳으로의 순례를 시작 하십시오.
· 일 정 : 서울 - 네팔,카트만두 - 히말라야를 넘어 티벳 평원으로 (자유일정)...
· 포함사항 : 국제선항공료(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年 항공권) 중국 및 티벳여행허가서,카트만두 1박
· 출 발 일 : 매주 화,목,토 개별출발

실크로드 (Silkroad)
長安에서... 쿤자랍까지 ₩1,690,000
불교전승지인 실크로드에서
동,서양을 남나들던 구법스님들을 생각하며.....
· 일 정 : 【21박 22일】서안-난주-가욕관-돈황-유원-투루판-카슈가르-탁스쿠르간-쿤자랍고개(버스)-우루무치(열차)-서안
· 포함사항 : 항공료, 비자, 숙소(조식포함), 안내인, 도시간의 이동, 보험
· 출 발 일 : 5/29, 6/12, 26 7/24, 7/31, 8/7 (10명이상 출발)

혜초여행개발(주) HYECHO ADVENTURE TOURS.
전통의 성지순례전문 혜초에서 선보이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990,000
부처님의 4대성지인 탄생지, 성도지, 초전법륜지, 열반지 순례및 8대성지 순례.
※ 순례후 카트만두에서 개별적으로 귀국 가능합니다.
(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年 항공권)
· 일 정 : 델리-바라나시(녹야원)-부다가야(성도지)-나란다 불교대학-라즈기르(영축산,왕사성,죽림정사)-파트나-바이샬리(대림정사,아쇼카석주)-쿠시나가르(열반사,다비터)-사헤트 마헤트(사윗성, 기원정사)-룸비니-카트만두-방콕-서울(10일간)
· 포함사항 : 1년 항공권,숙소(조식포함),한국안내원,전용차량
· 출 발 일 : 5/28, 6/11, 7/2, 16 목,일(15명이상 출발)

도반과 함께 – 네팔 히말라야 순례를...
설산 순례 (트레킹) ₩1,290,000
도반과 동행시 도반의 경비는 ₩1,190,000 입니다.
부처님의 수행지인 히말라야를 순례하는 일정으로 안나푸르나 히말라야로 떠납니다.
※ 순례후 네팔과 방콕 그리고 인도의 성지를 개별적으로 순례하시고 델리 또는 카트만두에서 개별적으로 귀국 가능 합니다.(1年 항공권)
· 일 정 : 카트만두-히말라야 순례-포카라-카트만두-방콕(8박9일)
· 포함사항 : 항공료,숙소(조식포함),국내선,현지안내원(산길안내)
· 출 발 일 : 5/23,30, 6/6,13 매주 화,목,토 (2명이상 출발)

※ 10년 전통의 혜초 여행사는 불자와 함께하는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여행사입니다. 후원 : 현대불교신문, 스포츠조선

목어

한국의 영세중립

남북통일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산가족의 상봉을 비롯하여 상생과 공존의 경제협력이 기대되는데 우선 상호신뢰가 구축되어야 한다. 서로 무기를 맞대면서 믿음이 있을 수는 없기에 군비축소가 요청되고 실질적인 평화의 꿈이 부풀 것이다. 휴전선을 중심으로 비무장지대가 확장되고 그 일대가 세계적인 평화의 공원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20세기 동안 우리는 혹독한 좌절을 겪으면서도 여러 차례의 호기를 맞이한 바 있었다. 8·15해방, 4·19혁명, 80년 서울의 봄… 등. 그러나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들 봄은 모두 차가운 꽃샘추위에 시들고 말았다. 이 역사에서 우리는 충분한 준비 없이 무작정 봄을 기다려서는 안되며, 적극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것을 위해 한반도 중립안을 제안한다.

조선왕조 말기 이래 러·일전쟁을 앞두고 고종황제에 의한 조선중립안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영세 중립안이 간헐적으로 제안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주변 강대국의 이해가 엇갈리고 한편으로는 한국인의 국제감각 부족 등의 이유로 한낱 발상에 그치고 말았다. 이제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의 외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도 타협점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되었다. 무엇보다도 남북한 7천만의 인구와 경제력, 지적 수준도 높아졌다. 충분히 한반도의 영세중립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다. 이어서 통일된 중립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경제권(Asia Union)을 구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는 민족이 하나임을 자각해야 한다. 요즘 일부 재일교포들 사이에 '내 고향은 한국이다'를 말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인은 첫 대면에서 으레 고향을 묻곤 하지만 좁은 한국, 그것도 남한 내에서 출신 도를 따지고, 마을까지 가리는 일은 어리석다는 것이다. 이 운동이 전 세계의 한민족 사이에 확산되기를 바라며, 한반도에서 범인류적 차원의 평화운동이 발산되어지기를 기원한다.

김용운(한양대 명예교수·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현대불교 www.buddhapia.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승납 10년 이상 3천명 대상 9개항 설문

사면 '可' '否' 판단자료로

조계종 종헌개정 설문조사 어떻게 하나

6월 중순경 공청회 열듯

사면과 관련, 종헌 개정에 대한 조계종 종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 개정 및 종법 제·개정 특별위원회(종헌특위, 위원장 정휴)는 4월 28일 설문 문항을 확정하고 설문지 배포에 들어갔다. 설문 문항은 종헌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확정했다. 설문조사는 우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된다.

설문 문항은 응답자의 법납과 소임 등 인적 사항을 묻는 질문을 빼면 9개 문항(2개 문항은 답변에 대해 이유를 묻는 보충 질문이다)으로 구성됐다.

△사면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찬반 이유 △바람직한 사면 절차 △사면시 멸빈자의 포함 여부와 이에 대한 찬반 이유 △멸빈자를 사면·복권할 경우 종헌 개정 찬반 △징계 시기에 따른 사면 대상자의 범위 △멸빈자의 사면시 공직 취임 제한 범위 등을 묻고 있다.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4점 척도를 채택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면과 종헌 개정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가부간의 판단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조사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4점 척도는 5점 척도와 달리 판단을 유보하는 중간 답변을 의도적으로 배제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다. 사면 필요성의 찬반과 멸빈자의 사면 대상 포함 찬반을 묻는 보충질문의 답변은 그 이유를 약술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승납 10년 이상의 스님들이다. 원로의원, 종회의원, 본사 주지 및 7직, 말사·포교당 주지 및 소임자, 각급 교육기관 임원, 초·재심 호계위원, 역대 총무원장·종회의장, 소청심사위 중앙선관위 등 각종 위원회 위원, 비구니회 임원과 중앙종무기관 부·국장스님, 선원·율원 소임자, 각종 법인·단체 임원, 사찰 내 한주(거주승)을 망라한다. 약 3천명 정도에 설문지를 보낸다는 계획이다. 설문지는 개개인에게 보내지 않고 사찰과 단체에 보낸다.

이달 초까지 설문지를 발송해 20일 이전에 회수할 예정이다. 하안거 결제일(18일)을 넘기면 설문지 회수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6월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6월 15일경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면과 종헌 개정에 대해서 공청회를 연다는 일정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종헌 개정·사면 실시 여론이 모아지면 6월말이나 7월초 종회가 열릴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종헌 개정 및 사면 실시 여건이 많다고 해서 바로 종헌을 개정하고 사면을 실시할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설문회수률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의 영향력의 좌우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우편조사의 경우 설문회수률은 20~30%이다.

조계종에서 종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은 있으나, 특정 사안을 두고 종도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헌특위와 중앙종회 사무처는 설문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설문 문항 작성 과정에서 조사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이후 분석과 보고서 작성에서도 도움을 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달라이라마 방한' 교계 갈등 조짐

정대스님 "왜 불러야 하나" 대책위 "방한운동 계속"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달라이 라마 방한과 관련,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달라이 라마 방한추진을 위한 범불교대책위'는 즉각 총무원을 방문, 유감의 뜻을 전함으로써 자칫 달라이 라마 방한 문제를 놓고 범불교대책위-정부, 중국불교협회-종단협의회와의 갈등에 이어 범불교대책위-조계종총무원과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정대스님은 4월 21일 연합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달라이 라마의 방한 초청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종단에 대한 초청의사 타진이나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부 단체에서 불쑥 들고나오니 모양이 어렵게 됐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점에서 달라이 라마를 왜 꼭 불러야 하는가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등에서 그를 생불(生佛)로 떠받드니까 부화뇌동해서 높이 평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국익 차원의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고 답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4월 19일 이재정 당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하고 있다.

정대스님은 이에 앞서 19일 총무원을 방문한 민주당 이재정 정책위원장(당시)을 만난 자리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다. 정대스님은 "달라이 라마 방한(추진 움직임)을 놔두면 눈덩이처럼 커진다. 학생운동의 이슈가 없다. 종단적으로 (방한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지만, 신행단체에서는 운동이 활발하다. 우리에게도 (신행단체의) 압력이 있을 것이다. 달라이 라마의 방한은 백해무익이다. 한국불교에 무슨 공로가 있는가. 한국의 인권탄압 때 한마디라도 했나." 이에 대해 이 당시 정책위 의장은 대구하지 않았다.

정대스님의 달라이 라마 방한 반대발언에 대해 '달라이 라마 방한추진을 위한 범불교대책위'는 24일 총무부장 원택스님에게 유감의 뜻을 전했으며, 원택스님은 "정대스님의 발언은 총무원의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범불교대책위 윤남진 기획실장은 25일 "정대스님의 발언에 개의치 않고 달라이 라마 방한 성사 운동을 계속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존재의미는 지금 여기에 놓는 것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⑭만해문학과 선



노귀남
국문학·경희대 강사

"선이면서 곧 선이 아니요, 선이 아니면서 곧 선이 되는 것이 이른바 선이다. 달빛이냐, 갈꽃이냐, 흰 모래 위의 갈매기냐." 이처럼 일상 언어가 문학적 가공을 거치고, 또 한 겹 안개를 씌우듯 선의 의미로 전환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만해는 상찰선사(常察禪師)의 선화(禪話)를 주해한 〈십현담주해〉를 비롯해, 선에 관한 많은 글을 남겼다. 시집에 '선사의 설법'이 들어있기도 하니, 선의 광맥을 캐내 볼 만하겠다.

시집 〈님의 침묵〉을 한 주제에 의한 연작시로 보거나, 서사시와 같은 극적 요소를 읽어내면, 훨씬 뜻 깊고 재미나다. 만해 시의 진수는 기승전결(起承轉結) 구성에서 '전'에 해당하는 반전이 '나'의 발견과 자아실현에 닿이있다는 데서 찾아진다. 시집 전체는 꿈의 세계이면서, 그 속에 다시 현실과 꿈의 경계를 만들어 두었다. 꿈으로 들어가는 문 '군말'과, 나오는 문 '독자에게'는 시인의 육성을 담아 장치해 놓고, 그 안에 88편은 시적 인물의 목소리로 현실로 향한 날개짓처럼 화두를 던진다. 어린 양인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자유를 얻으련만, 이렇게 진짜로 날기를 꿈꾸기라도 하듯이.

'군말'은 "님만 님이 아니라"고 하여, 굳어진 일상의 틀을 깨고, 존재(세계)를 다르게 보게 한다. 물론 '님'만이 아니라, 나, 사랑, 리별, 죽음 등 모든 대상에서 일상 의미를 뒤집는다. 또,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라고 하여, 실체를 뒤집는 사고의 대전환이 있다. 이것은 형식에서 기승전결법의 '전'에 의한 '반전 구성'과 일치한다. 그리고 '어린 양'은 시적 인물 '나', 즉 길을 잃고 헤매는 존재를 상징한다. 이 주인공이 흔들리는 삶의 위기를 이겨나가는 과정이 시집 전체 내용과 결부된다.

표제시 '님의 침묵' 구성은 시집 전체와 닮은꼴이다. ①갑자기 님과 이별해 위기에 처한 흔들림 속에서 문득 홀로 던져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나. ②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려고 몸부림치는 나. ③마침내 국면을 전환시켜 스스로 창조한 세계를 확보한 나. ④새 세계를 추수하여 노래하는 나. 이렇게 '기승전결'의 네 단계를 거치면서, '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만해는 이런 시적 상황의 설정을 통해, 님과의 이별로 상징되어 있는 현실의 고통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주체인 '나'란 존재의 생명력을 화두로 하여, 주체(나)와 대상 세계(님)의 존재 의미를 캐묻다.

반전을 반복하는 연작으로 짜놓고 있음에 유의하면, 존재(나, 님) 의미가 변하고 있고, 거듭 새롭게 태어남을 알 것이다. 즉, 존재는 현재성과 역동성으로 표현된다. 이것이 '나'의 행위에 나타나는데, 반전을 거듭하며 역동적으로 발전하여 자아를 완성하듯한 권의 시집으로 완성된다. 88편의 시는 한 편마다 완성품이지만, 이들이 단계별로 전환의 과정을 거쳐 한 편의 대작 〈님의 침묵〉을 구성한다. 말하자면 부분과 전체가 형식과 내용에서 절묘하게 대등한 값으로 일치하여 있다.

만해는 '군말'에서 어린 양과 시속의 주인공 '나'를 겹치게 하고, 또다시 그 '나'를 '독자에게'에서 독자와 겹쳐보게 한다. 주체(어린 양)가 처음에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마침내 역사와 미래를 통찰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그 중간에 88편의 시에 의탁해 '나'를 말한다. 이때, 기승전결법은 '님은 너의 그림자', '이별은 끝이 아니라 침묵을 쵭싸고 도는 사랑의 노래'라는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낸다. 동시에 생각과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바꾸는 실천적 인생여정을 '나'를 통해 보여주고, 독자는 읽기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고, 스스로 역사의 길로 나아가게 했다. 만해시의 선적 의미는 그 체험이 실천과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 데 있다.

존재의 의미를 지금여기에 놓는 것, 당장에 살아 움직임으로서 성성적적(惺惺寂寂)함이 바로 선이다. 만해의 지적대로 처소를 고요히 함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히 함이 선이요, 활발발하되 흔들림이 없는 힘이 선이다. 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가 마음으로 살아있음이 선과 통한다. 만해는 시적 장치로서, ①꿈과 현실을 배치하여 '깸, 깨달음'을 환기하고, ②반전 구성의 반복으로 실상(實相)을 추구하고, ③'군말'과 '독자에게'를 통해 의미 생산을 현재화했다. 고답한 선을 버리고, 어린 양 작은 새도 주인공이 되는 선을 쓴다. 이 점이 그의 문학이 시민과 민중의 문학으로 평가받는 기틀이 되었다.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釋氏香方 五分香·生氣香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석가탄신일을 기념하여 특별 선물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은 佛法僧 三寶에 올리는 최고의 공양으로 최고의 경지인 해탈을 뜻합니다.

특히 오분향은 『大般若經 卷四十九』에 나타나 있듯이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을 말하며, 계향(戒香)은 계를 잘 지켜 나가는 향기, 정향(定香)은 선정으로써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 적정에 드는 향기, 혜향(慧香)은 명상력을 통한 지혜의 향기, 해탈향(解脫香)은 지혜의 통찰력인 慧를 통해 얻어지는 절대자유의 향기,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해탈을 통한 구별력과 사리판단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華嚴經」 普賢行願品에 향의 열가지 효능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시켜 준다.
2. 몸을 깨끗하게 해 준다
3. 몸의 따뜻하고 시원함을 조절해 준다.
4.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
5. 얼굴빛을 돋보이게 해 준다.
6. 정신을 상쾌하게 해 준다.
7. 눈과 귀를 신선하게 해 준다.
8. 건강에 도움을 준다.
9. 사랑스러움을 북돋워 준다.
10. 품위를 높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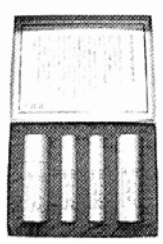
『華嚴經』 선재행선등 제4권 30에 선재동자는 五分香을 찾아나서는데 龍藏이란 향이 있으니 중생이 그 향기를 맡으면, 번뇌가 침노하지 못하고 이레 동안 기쁜 마음이 가득하고 몸과 뜻이 쾌락하며 편안한 생각이 나며, 모든 병이 소멸되고 여러 가지 번뇌와 근심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깨끗하여진다. 그리고 계향·정향·혜향·해탈향을 얻어 해탈해지며 향을 얻어 삼막 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분향은 거룩한 향으로서 항상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육근청정하고 복덕이 구족하는 인연을 지어줍니다.

석씨향방은 순수한 한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게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당뇨·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관불의식, 관욕의식 (목욕 재개향) 있습니다.

♣오분향과 생기향을 만든 동기

향을 사루어 부처님께 공양올려 염불 수행 20년이라 그간에 이름모를 각가지 향을 접하였는데, 향을 피울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눈이 맵고 기침이 나고 목이 따갑고 기관지 등에 이상이 생겨 매우 괴로워서 향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외국 향을 많이 사용함으로 엄청난 외화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제자 소납은 우리 몸에 해롭지 않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향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여러 경전을 통하여 향 만드는 법을 알아서 연구하기 10여년 일생 소원이었던 부처님 최고 공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공 화학물질이 전혀 들지 않고 순수한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향을 사랑하는 향기로운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고 향을 가까이 하십시오. 확 달라질 새천년의 향!
여기 우리 문화와 전통을 살리며 향을 전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인정해준 석씨향방의 오분향과 생기향을 사용해 보십시오. 옛 선인들께서 왜 향을 가까이 했는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 불자님들, 삼보님께 그리고 존경하는 분께 향을 선물하세요.
가장 큰 공덕이 되실 것입니다.
위 상품 판매수익금중 일부는 삼화불교대학 교육기금으로 쓰여집니다.
※ 향곶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공급자: 석씨향방
판매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불교대학 內 혜인선원 사업부
원장 석가산 스님
전화번호: (02)3446-8148, (02)3446-5889
계좌번호 :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함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일주문

산불 이재민에 500만원 전달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은 4월24일 SBS를 방문 강원도 산불 이재민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경기도 청계사 주지에



종상 불국사 부주지는 최근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의 말사인 청계사 주지에 겸임됐다.

아산사암련 회장에 취임



만성 아산 수암사 주지는 1일 온양제일호텔 특별법당에서 제4대 아산사암연합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만성스님은 "임기내 아산불교회관 건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아산지역 불교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유마정사 건립 위한 불미전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은 6일~11일까지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11층 롯데화랑에서 '유마정사 건립을 위한 불교미술 전시회'를 연다.

사무실 개원 점안식

강선태 부산불교신도회장은 4월24일 부산불교회관 5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사무실 개원 및 봉불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동국문학상 시상식

문효치 동국문학인회장은 4월27일 문예진흥원 강당에서 제14회 동국문학상 시상식 및 동국시집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동국문학상은 시인 문정희 씨가 받았다.

백악예원서 '뢰차동인전'



조향숙 화가는 3일까지 서울 관훈동 백악예원 화랑에서 열리는 제22회 '뢰차 동인전'에 참가, 달마상 등 최근작들을 선보인다. (02)734-4205

과천시민 대상 고전강독



박동춘 과천서당 훈장(전통차 전수자)은 오는 7월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 시청각 교육실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전강독을 한다.

자선회화전 '풍경소리'



박명순 명성여고 미술교사는 3일부터 9일까지 경인미술관 제3전시실에서 부처님 오신날 기념 자선회화전 '풍경소리'를 개최한다. 이 전시회의 수익금은 강원산불 피해사찰을 비롯 불우이웃 성금으로 전달된다.



꽃 장엄한 탑

Focus

세계 꽃의 향연인 '2000 고양 세계 꽃박람회'가 4월26일 일산신도시 호수공원에서 개막식을 갖고 12일간의 꽃 잔치에 들어갔다. 이날 일산 호수공원은 형형색색의 꽃과 각종 볼거리들로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꽃으로 만든 석가탑, 광화문, 거북선 등이 눈길을 끌었다.

사진=고영배 기자

"E-메일·채팅 등 사이버 상담"

불교상담개발원 초대원장 이근후 박사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이버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4월22일 불교상담개발원 창립법회에서 초대원장으로 추대된 이근후 교수(이화여대 의대 신경정신과)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인터넷 상담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게시판 상담, 이-메일 상담, 채팅 상담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세계 심리학계와 의료계의 정신치료에 마음으로 치료하는 불교의 상담교리가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며 "한국불교의 상담개발원 창립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 이론을 정립하여 새로운 불교포교의 초석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원장은 상담요원 훈련교육과정을 국제 수준에 맞춰 실시하여 교육수준을 높이고, 재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근후 원장은 한국석불문화연구회 회장, 한국정신과학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최근 청소년 성(性) 상담



홈페이지인 '아-섹스'를 개통했으며, 의료상담 홈페이지 '금강샘'을 운영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억울한 수용생활 6년 찬드라

경불련·네팔모임서 환영회



◇네팔인 동료로부터 축하 케이크를 받아먹는 찬드라씨(왼쪽).

"한국에서 겪은 악몽을 쉽게 잊지 못할 겁니다."

경불련과 네팔불자모임 주최로 찬드라 쿠마리 구릉(40)씨의 퇴원 환영회가 열린 4월23일 서울 미아6동 '자비의 집'. 찬드라 씨는 입을 꼭 다문 채 다소 격양된 표정이었다. 찬드라씨는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과정에서 행려병자로 몰려 무려 6년을 정신병원에 수용됐다 최근 퇴원한 네팔인.

이날 모인 네팔 불자들도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겪어야 했던 인권유린에 대한 분노보다 다시 만난 사실을 기뻐했다. 가칭 '찬드라를 돕는 모임'을 꾸려 6년간 행방을 추적해온 람 하리 구릉(재한네팔공동체 회장) 씨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힘들지만 그렇다고 (한국사람을) 미워해 본 적은 없다"며 '모두가 고마운 사람들'이란 말로 찬드라 씨를 찾는데 도움을 준 한국인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찬드라 씨의 퇴원 환영과 귀국비용 모금을 겸한 이날 행사에는 네팔공동체와 네팔불자모임 소속 네팔인 50여명, 네팔에서 온 찬드라 씨의 아버지 람 프라사드 구릉, 여동생 인드라 구릉, 사촌오빠 떼스만 구릉 씨 등이 참석했다.

찬드라 씨는 현재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서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며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02)3147-2600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연꽃피워 어둠 밝혔으면…"

'꽃꽃이' 전시회 갖는 신재선 보살



"꽃으로 부처님 말씀 전할 수 있다면 그보다 수승한 가피는 없습니다."

5~6일 양일간 부산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에서 꽃꽃이 전시회 '연꽃등'을 여는 신재선 씨는 이번 전시회에 〈금강경〉의 내용을 꽃꽃이로 표현한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국 사찰마다 꽃을 공양하며 포교하겠다"고 발원한 신 씨는 세상에 꽃 아닌 것이 없다는 생각에 그의 작품 소재는 무한대이다.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연꽃등'. 99년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받은 법명이다. 법명에 대해 신씨는 "연못에 연꽃을 피워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기쁨을 주라는 뜻으로 새기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가 그 시작이다"고 전시회 여는 뜻을 털어놨다.

신 씨는 꽃꽃이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본래 원만구족한 아름다움을 갖춘 존재라는 것을 깨닫길 항상 발원한다. 이는 그만의 갖고 있는 꽃꽃이 철학이기도 하다.

"눈으로 보는 꽃만을 보는 것이 아니다. 꽃 속에 담긴 진리를 직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 씨는 "경전을 부지런히 읽고 되새겨 불법의 정수를 꽃으로 형상화하고 싶다"고 밝힌다.

부산=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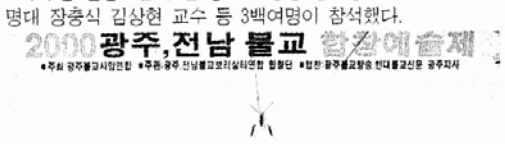
서돈각 박사 '상사법학…' 헌정식

대한불교진흥원 서돈각 이사장 팔순 송수기념 논총 〈상사법학(商事法學)에의 초대〉 헌정식이 4월27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는 칠보사 조실 석주 스님, 조계종 종회의장 법등 스님,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 스님, 노태우 전대통령, 박철언 자민련불자회 회장 등 2백 여명이 참석했다. 논총에는 법학관련 논문 34편이 실려 있다.



천태종 관문사 성보전시관 개관식

천태종 서울 관문사 성보전시관이 4월 27일 개관식을 거행했다. 관문사 3층 40여평 규모의 성보전시관에는 삼국시대부터 최근까지의 불교관련 유물 8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27일 열린 개관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스님, 교무부장 춘광스님과 전 동국대 총장 황수영 박사, 동국대 문명대 장충식 김상현 교수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전남 불교합창예술제

부처님오신날 맞이 불교음악의 향연 '2000 광주·전남 불교합창예술제'가 4월23일 광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예술제에는 증심사합창단, 백양사합창단 등 지역 합창단이 참가했다. 특히 광주전남 보리살타연합창단이 팔상성도를 표현한 창작곡 '붓다'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도심사 삼존불 점안

경북 봉화 도심사(주지 보해)는 4월22일 前 조계종 종정 서암 스님을 증명법사로 삼존불 점안식을 개최했다. 서암 스님은 "불자들이 참된 생활을 하고 남을 도울 때 남북통일도 다가온다"면서 불자들의 정진을 당부했다.



보림사 대적광전 낙성

전남 장흥 보림사(주지 현광)는 4월23일 국보 제117호 철조비로자나불좌상 개금식 및 삼존불 4대 협시보살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대적광전(54평) 준공식 및 선방(54평) 기공식도 겸했다.

불자 대장 2명 탄생 '화제'

이종옥·김판규 장군 소장 진급자도 3명



최근 실시된 군 장성 정기인사에서 대장 2명, 소장 3명이 불자로 밝혀졌다.

한미연합사부 부사령관으로 발령받은 이종옥 대장〈사진〉은 작전 및 정보·전략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형적인 야전형, 국방정보본부장 재직시 군방정보지휘 체계를 성공적으로 통합, 군사정보 체계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군 불교총신도회 회장이기도 하다.

1군 사령관으로 승진 발령된 김관규 대장은 항공작전사령부 초대사령관 재임시 전 조종사 야간 작전수행 자격 100% 목표를 달성했다. 항공사상 최초로 헬기, 조종사 중 '탑 헬리건'을 선발, 항공전력 운영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했다.

육군에서는 김정일 조달본부2처장, 박정조 육본 지상자전사령부장 등이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에 보임됐으며 김대현 합참 군수부장은 임기제 전문직에 기용됐다. 이밖에 김무웅 해군 참모차장은 합참 인사군수본부장에 보임됐다. 강지연 기자



티벳 解脫의 書

'이몸 이대로' 해탈에 이른다!

보는 것만으로도,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티벳 최고의 경전!

1200년 전 티벳에 불교를 전한 위대한 스승 파드마삼바바의 〈요약 전기〉, 그가 가르친 〈마음 알기 요가〉, 또 다른 스승 파담파 상게가 남긴 〈유언적 가르침〉으로 구성된 이 경전은, 당신에게 '이몸 이대로' 해탈하는 법을 전해준다.

이상한 일이다. ≪티벳 해탈의 서≫를 읽고 있으면 문득 주위가 밝아지는 느낌이다. 갑자기 해가 하나 떠 방 안을 환히 비추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빛은 외부에서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된 방광(放光)임이 분명하다. 칼 융은 이 책에서 '마음'을 '에너지의 변압기'라고 아주 적확한 표현을 하였다.

— 정친주(소설가)

이 책은, 새벽 빛에 눈을 뜨고 일어난 사람들, 그리하여 지혜를 열망하는 사람들, 구도 여행에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지식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

— 에반스 웬츠



◀신간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팩스 739-8791/인터넷 홈페이지 www.mindvision.org
주소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71번지 원서빌딩/책방 정신세계 광화문점(02)737-8115, 대구점(053)943-4824, 원주점(0371)742-7540, 대전점(042)489-9390, 부산점(051)294-8545, 안양점(0343)466-2208

파드마삼바바 지음/에반스 웬츠 편집/칼 융 해설/유기천 옮김
양장본/432면/15,000원/서점에 있습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티벳 死者의 書】

류시화 옮김
양장본/525면/15,000원/서점에 있습니다

죽음을 알아야 삶이 보인다!

죽음의 순간에 단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영원한 해탈에 이른다는 티벳 최고의 경전!

사후세계 — 영혼의 행로 49일을 밝혀주는 천년의 경전.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환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영원한 대자유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삶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불러일으키는 책!



칼 융이 가장 차원 높은 정신의 과학이라 격찬한 죽음으로 삶을 가르친 궁극의 책, 명상의 기본서!

경전 전문에 풍부한 주해를 달고, 칼 융의 심리학적 해설을 비롯한 상세한 해제를 수록하여 원전의 진의를 완벽히 드러낸 국내 최초의 완역본 — 류시화의 우리말 번역으로 읽는 정신세계사의 ≪티벳 해탈의 서≫.

"… 이 책은 언제까지나 내 손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이 책에서 새로운 생각과 발견을 위한 많은 영감을 얻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근본적인 통찰력을 얻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 칼 융

정신세계사

정부부처 불자회 연합회 만든다

농림부·법무부등 합동강연회 계기 추진

초파일 제등행렬 함께 참가…연내 발족

정부 부처 불자회들이 합동 강연회를 개최하고 오는 7일 연등축제 때 함께 제등행진에 나서는 등 불자연합회 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월24일 농림부 불자회가 마련한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 현각스님 초청 강연회 및 저자 사인회에는 농림부 불자회원 뿐만 아니라 법무부·공정거래위·보건복지부 불자회원 150여명이 동참했다.



◇농림부가 주최한 현각스님 초청강연회에는 공정거래위·법무부·보건복지부 소속 불자들도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이 강연회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 불자회, 특히 과천정부청사에 둥지를 틀고 있는 공정거래위, 법무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네 곳의 불자회는 앞으로 연합법회, 연합수련회 개최 등 공동으로 행사를 마련하는 등 올해 안에 연합회가 결성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3월 농림부 불자회 창립 때에도 공정거래위, 법무부 불자회 임원진 중 일부는 같이 참석해 회칙 제정 및 연합 활동 방안을 제안하는 등 불자회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 불자회는 상호교류를 통해 개개 불자회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어려운 일들은 서로 도와가며 회원 확장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연합회를 결성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서로간의 친목. 비슷한 직업인 만큼 공감대를 형성해 친목을 다진 후에 정기적인 법회 및 성지순례 등을 통해 장단기 사업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한다. 당장 눈 앞에 닥친 7일 부처님 오신날 제등행렬 때에는 회원들 각자가 소속 사찰에서 행사에 참석했던 예년과 달리 정부 부처 불자회 이름 아래 합동으로 참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 부처 불자회들은 수련회 등 연합 행사를 통해 올해 안에 연합회 결성을 위한 제반 준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불자회가 창립되어 있는 곳은 감사원, 국세청, 청와대, 국회, 국회사무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이다. 이 가운데 감사원과 국세청, 청와대와 국회 등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부처 불자회들은 종종 연합법회를 봉행하는 등 우의를 다지고 있다.

한편 조계종 포교원은 직장 직능 불자회의 연합회 결성과 관련해 "유사분야 불자회들이 연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10월 전국 직장 직능 연합조직체 결성대회를 준비중"이라며 "정부 부처 불자회 외에도 구청 불자회들이 모여 공무원 불자연합회 결성을 준비하고 있는등 직장 직능단체의 연합회 결성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서울경찰청 나라위한 법회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실(실장 지홍)은 3일 오전 7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1층 구내식당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어는 경승단 총재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정대스님이 한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윤웅섭 청장, 총무원장 정대스님, 포교원장 정련스님, 경승실장 지홍스님에게 감사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02) 739-6500

국립의료원 봉축법회

국립의료원 불자회(회장 황영희)는 3일 오후6시 국립의료원 4층 강당에서 부처님 오신날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의 법문은 효림스님이 맡는다. (02)2260-7144

국불회 백련사서 봉축법회

국토연구원 국불회(회장 진정수)는 2일 안양 백련사에서 초파일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봉행한 이번 법회는 봉축메시지 대독, 독경 등으로 법회를 마치고 점심공양과 함께 좌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0343) 380-0122

서울대병원 컵등 공양

서울대병원 불자회(회장 조보연)는 9일 오후2시 부처님오신날 맞이 연등 나눠주기 행사를 개최한다. 불자회에서는 간호사실에 연등 80개를 전달하고 입원환자 1500여명에게 컵등과 떡공양을 할 계획이다.

불과회 천안교도소 위문

대한불교제과인회(회장 정판수)는 1일 오후1시30분 대한불자가수회와 천안사암연합회 후원으로 천안소년교도소를 방문했다.

이날 제과인회는 소년교도소 재소자와 함께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 후 마련한 빵 공양의 시간과 함께 대한불자가수회 소속 가수 12명이 꾸미는 위문공연도 마련했다. (0417) 574-6983

금융단불자회 연합봉축

전국금융단불자회는 4월22일 수협 잠실점에서 모여 제23회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상업은행 불자회등 10여개 불자회가 모인 이날 연합법회는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를 겸해 치뤄졌다.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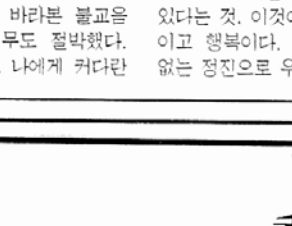
박 성 규
〈L.M.B. Singers 단장〉

"佛音으로 여는 극락세상"

인간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불자로서, 음악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하는 것일까? 무엇을 위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

20년 전, 갑작스런 아버지의 출가는 내 나이 14세 때의 일이다. 불자의 집안에서 자라면서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몸은 속세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항시 진리에 대한 갈구가 있으셨던 아버지. 평생을 돈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오신 인생에 대한 회의로 40세에 늦은 출가를 결심 구도자의 길을 가셨다.

아버지의 출가 이후 다가온 가난과 어머니의 고통 때문에 사춘기 시절 내내 나는 자격지심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두세 번의 죽을 뻔한 사고는 나를 점점 더 황량한 사막으로 모는 듯 했다. 아무 것도 가질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나의 마음을 터놓을 수 없었던 그 시절, 금방이라도 폭발할 사람같이 불안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선배의 권유로 합창단 오디션을 통과한 후 입단하게 되었다. 노래를 부르면 이상하게도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 너무도 시원스럽게 풀어지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나의 생이 다할 때까지 음악과 함께 살겠노라고.



1987년 경제적인 이유로 갑작스럽게 지원하게된 의경생활은 가장 데모가 극심했던 시기와 딱 맞아 떨어져 나를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 형제·자매·친구일지도 모를 사람에게 최루탄을 쏘아대고 돌을 던지고, 다리에 큰 보도 블록을 맞아 꼼짝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내 모습과 전신화상으로 신음하고 있는 동료들. 그 아비규환 속에서 나는 그저 방황하고 있었다. 휴가를 받아 집에 있으면 아버지에게 '왜'라는 말을 수없이 되풀이하며 논쟁을 했다. 그럴 때면 아버지는 항상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 말들에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내 자신을 보고 갑짝 놀랄 때가 많았다. 그와 같은 방황의 세월을 보내고 졸업 후의 진로를 알아보던 중, 우연히 불교방송국 합창단 모집 광고를 보고 자연스럽게 입단했다. 그 당시 합창단 생활을 통해 바라본 불교음악의 현주소는 너무도 절박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에게 커다란 힘이 되어주었던 것은 모 사찰의 합창단을 지휘하면서 접하게 된 스님들과 법사, 그리고 교수님들의 법문이었다. 이것은 나에게 불교를 바로 볼 수 있는 지표가 되었고, 또한 모 포교원 주지스님의 큰 배려는 나에게 희망과 큰 기쁨을 주었다. 그후 많은 분들의 보살핌과 격려로, 그리고 아버님과 어머님의 사랑으로 어려우나마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5년의 유학생활을 거쳐 1년 전에 귀국해 불교방송 합창단 단원이었던 두 명과 손잡고 찬불가 보급을 목적으로 지금의 L.M.B. Singers(Love Music of Buddhism Singers의 약자. '불교음악을 사랑하고 노래하는 사람들')를 창단했다. 아직은 준비단계에 있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1년 여 동안 열심히 뛰어온 결과, 현재의 나의 도반들을 만나게 되었다. 각각의 단원들은 모두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L.M.B. Singers를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 단장인 나는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너무 많지만, '믿음'을 갖고 따라주는 단원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할지 모르겠다. L.M.B. Singers를 체계적이며 성공적인 단체로 이끌기 위해 밤잠 설치며 노력해보지만, 나의 짧은 연륜과 미숙함으로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그 때마다 부처님께 머리 조아려 절하며 빌어본다. 아무리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물러나지 않고 전진하겠노라고. 한방울의 물이 큰 바위를 뚫듯이, 끊임없이 정진하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부처님의 말씀을 노래를 통하여 전달하는 큰 일익을 담당하게 될 수 있으리라. 부처님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고 부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이고 행복이다. 노력할것이다. 끝없는 정진으로 우리도 부처님같이.

사이버 불동 야단법석 '열기'

천불동 조계사서 전국모임…수계식도

하불동 지역별로 산사찾아 법회·봉사

사이버 불교동호회 회원들이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전국모임 법회를 열고, 수계법회를 갖는등 직접 만남의 장을 만들었다.

천리안 불교동호회는 4월22~23일 양일간 조계사에서 전국모임을 가졌다. 사이버 세상에서만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법담을 나누던 천불동 법우들은 첫만남인데도 전혀 어색함이 없다. 이미 통신으로 친목을 다졌기 때문이다.

이번 천리안 전국모임은 지난 회와 달리 김성철 교수, 도법스님 등의 강연을 연달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마련됐다. 22일에는 '공의 논리와 실천'을 주제로 김성철 교수의 강연을 듣고 23일에는 도법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설법전에서 정진을 한 천불동 회원들은 새벽4시에 일어나 새벽예불을 봉행하고 1시간 동안 좌선으로 마음을 가다듬었다. 아침공양 후에는 3시간여 동안 연등을 만들었다. 점심공양으로 조계사에서의 일정을 마친 천불동 회원들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불교조각실을 견학하며 다양한 불상을 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이텔 불교동호회는 각 지역모임 활성화에 나섰다. 전라지역 모임인 '백제'는 4월23일 전남 대흥사에서 제3회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대흥사에서 '백제' 법회를 후원해 주기로 해 앞으로도 법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4월29~30일에는 전남 함평 관음사에서 1박2일로 백제 등만들기 노력봉사를 가졌다. 경상지역 모임인 '갓바위'는 4월30일 대구 수성구 삼보사 극락전에서 '신행생활의 긍금한 점'을 주제로 야단법석을 벌였다. 주지 자현스님 법문도 들었다. 오후에는 신행상담 및 산행으로 야단법석을 마무리했다. 충청지역모임에서는 2일 오후 7시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오계의 가르침을 재 무장하고자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한국불교연구원 '대전구도회' 금강계단에서 치루어질 이날 수계법회는 법주사 사리각에 주석하는 혜정스님을 계사로 진행됐다.



경찰청 법요식 "살신성인 자세로 근무"

경찰청 경승실(실장 지우)은 부처님 오신날 기념봉축 법요식을 4월27일 경찰청 법당에서 봉행했다.

자우스님(금강사 주지)은 "우리에게 있는 부처님을 발견하고, 믿고, 수행하면 부처님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경찰은 국민의 아픔을 대신하는 살신성인의 보살행을 해왔다"고 말했다.

클릭! 새 홈 페이지

■대원사 자비신행회(http://www.daewonsa.or.kr)-3월22일 개설. 전남 천봉산 대원사 소개, 자비신행회 소개, 결식아동에게 자비의 도시락 보내기, 호스피스 교육 및 봉사 등 소개.

■참선마을(http://www.chamsun.pe.kr)-3월25일 개설. 참선법, 수식과 호흡 등 소개, 수행인의 자세 불교의 세계관 체험마당

■팔달사 청년회(http://members.tripod.co.kr/palcheong)-수원 팔달사 청년회의 홈페이지. 청년회, 연혁, 조직, 임원 및 소모임, 나눔의 집 봉사활동 법회일정 등을 싣고 있다.

■청보리학림(學林)(http://cafe.daum.net/cyberhaklim)-4월6일 개설. 신행단체인 청보리회에서 운영하는 구도 전법의 광장.

■연화마을(http://cafe.daum.net/lotus)-4월7일 개설. 불자들끼리 궁금한 사항이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친목을 도모하고자 만든 카페홈페이지.

■해심불교동아리(http://cyber.namhae.ac.kr/~seaheart)-4월7일 개설. 남해전문대 불교학생회. 96년 창립. 여시아문, 동호회 소식 등 다양한 컨텐츠

■부산삼광사학생회(http://cafe.daum.net/lts)-4월13일 개설. 부산 삼광사 학생회 회원 임태성군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천태 법우들의 모임장소로 개설됐다.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전자파 수맥파 차단의 기(氣)인증! "달마도 순금카드"

달마도의 대가 오인법사 원본 작품을 99.9% 순금카드위에 직접 새겨 놓았습니다.

달마도 순금카드(지갑소지용)



앞면:오인법사 달마도
뒷면:①반야심경②사업번영부③안전운전부④시험합격부

달마도 순금판 표구액자



"부처님 오신날 봉축"
천만불자 보시용품



대한불교불동관음선원에서 인증한 기(氣)인증서

달마도 신비의 기(氣) 달마도는 TV방영에서 증명된 바 와 같이 신비스런 기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고 나쁜 파장과 병마를 소멸시켜 건강을 지켜주고 부와 명예를 불러주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달마도 순금카드 일반 지갑소지용으로 얇게 편 순금카드 앞면에는 오인법사의 달마도를, 뒷면에는 반야심경, 사업번영부, 안전운전부, 시험합격대길부(4종류 중 선택가능)를 새겨서 비닐압착코팅함으로써 찢어지거나 구겨짐 없이 영원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대형(5×7.5cm) 20,000원, 소형(3×5cm) 15,000원이며 대·소셋트 구매시 특별할인하여 30,000원

달마도 순금판 액자 국내 최초 순금판 최대 크기로 오인법사의 천신 또는 상반신 달마도를 고급 표구액자로 제작하였습니다. 표구액자(27×32cm), 달마도 순금판 크기(11×16cm)일반 판매가격 150,000원. 한정판매

달마도 순금판 열쇠고리 달마도 순금카드 (3×4cm)를 아크릴판 열쇠고리에 삽입하여 제작하였으며 1개 10,000원, 3개 셋트 25,000원

구입문의상담 주문방법은 전화접수 후 전국내 빠른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사찰 및 불자회 보시용품 각 영업회사 판촉사은품으로 최적상품 이며 다량구매시 가격할인 및 원하는 그림, 사진, 글씨, 로고도 주문제작 가능합니다. 셋트 및 액자 구매시 사은품 증정!

제조판매원: 골드타운 고객성원에 힘입어 한국순금카드사가 (주)골드타운으로 법인화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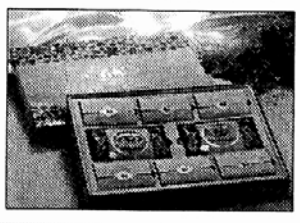
(02)926-7377, 7315 (24시간 공휴 접수함)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oldsale.co.kr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대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괴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와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엽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사 설

직지사의 수행환경

전통사찰은 그동안 국민을 대신하여 전국적으로 중요한 사찰 주변의 자연림을 보호해 온 환경지킴이 역할을 해왔으며, 또한 민족의 문화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문화의 보고이다. 사찰의 수행환경 보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지니고 있는 불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그것이 파괴되면 결국 많은 국민의 신앙 생활이 침해를 받게 된다. 이는 결국 국가적인 큰 손실이며, 우리나라의 보다 나은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찰 주변의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의 보호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법적인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최근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명목 아래 이루어진 건축법의 개정이 사찰의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의 파괴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불교계와 국민들의 우려는 바로 정부가 이러한 큰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있다는 데서 나온 것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루어진 직지사 수행환경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사찰의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을 아울러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찰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단순히 특정 종교의 행위라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 것은 그간의 무수한 사찰환경 관계의 재판에서 볼 수 없었던 진일보한 시각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현재에도 이미 10여건의 사찰환경과 관계된 분쟁에 대하여 사찰환경의 보호라는 쪽으로 흐름을 트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분쟁의 요소를 사전에 막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중한 판례이다.

이러한 판결은 사찰 자연환경 보호를 법적인 차원에서 인정받은 것이며, 또한 불교의 종교적 행위를 국가의 이익과 연결시켜 이해한 것이기에 불교계로서는 큰 원군을 얻은 셈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공적으로 인정받은 일이기에 불교계가 더욱 더 큰 각성으로 이러한 일들을 공적인 행위로 인정받을 만한 내실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사찰주변의 자연보호를 범국민적 환경운동과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 나감으로써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모든 국민이 나서도록 할 수 있어야만 한다. 남의 사유재산권까지 제한하면서 얻어진 수행의 권리가 모든 불자들과 모든 국민들의 정신적 자양으로 회향될 수 있도록 교단의 수행 풍토를 진작시켜야 한다. 이번의 판례의 정당성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갈채를 보낼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낳도록 하는 일이 불교계가 떠안은 영광스런 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교상담개발원의 과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불교상담개발원이 4월22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새로운 첫발을 내디뎠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유기체나 자아가 갈등상황에서 적응이 잘 안되어 증상화된 내용을 상담자와 더불어 원래의 안정상태로 풀어가는 것이다. 인간사 모두가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은 지혜롭게 풀릴 수도 아니면 파괴적으로 이어져 갈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닌다.

상담이란 단어는 대중적으로 이해되고 있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다. 그만큼 현대사회가 갈등과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 많다는 뜻도 된다. 건강하다는 상태는 신체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사회적 안녕 상태에 있어야 한다. 정신의 안녕은 바로 종교적인 마음이며, 이는 불심과 같은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상담이란 기법이 서양문화에서 생긴 틀이긴 하지만 그 근본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진여의 깨달음과 같을진대 불교 그 자체가 큰 테두리의 상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전화상담을 통해 불자들의 갈등을 풀어주던 자비의 전화와 사찰의 상담실 그리고 산발적인 상담교육 등이 새로운 모습으로 결집되어 불교상담개발원이 탄생한 것으로 안다. 축하에 겸하여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너무 좁은 테두리에서의 상담에 국한하지 말고 보다 넓게 이어져서 만중생을 제도하는 지름길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두번째로는, 체계화에 노력해주기 바란다. 불교 자체가 깨달음에 지나치게 가치를 두면서 체계화에 소홀한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를 체계화하고 세계적인 흐름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개인이나 가족에게는 고를 극복하는 길잡이가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이 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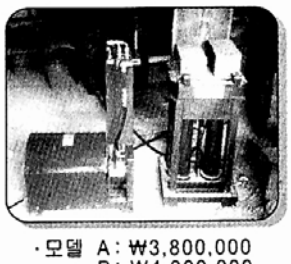
이렇게 하자면 불교적인 상담이 어떤 틀 속에서 정리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정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화두, 깨닫기 대상이며 수단

'변상섭씨의 화두란 무엇인가'를 읽고



황 경 환
한국불교연구원 연구위원

현대불교신문에 '선과 21세기'란 제목으로 연재되고 있는 최근의 내용중에서 (2000년 4월5일) 변상섭 위원이 쓰신 '화두에 대하여 화두는 해설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읽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정작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아야 한다는 그 사람도 달은 보지 않고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서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분은 화두에 대해 이것은 이런 의미이고, 저것은 저런 의미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또 한분은 화두에 대한 해설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마치 돈오(頓悟)와 점수(漸修)에 관해 오랫동안 서로 자기네들의 주장이 옳다고 논쟁하던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중국풍의 불교에 지나치게 의식화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마치 갈대구멍으로 하늘을 보는 사람들의 해묵은 논쟁 거리였으니 화두 논쟁이 어찌 두 분만의 논쟁거리이겠습니까?

아무튼 이번 기회에 말이 나왔으니 화두에 대한 진실한 의미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의 위대한 스승 고오타마 싯달타 그가 생노병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깨어날 수 있는) 길을 알아내고 오직 이 길을 걷는 것만이 깨어남에 있어 오직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신 고귀한 8겹의 길. 여기에 대하여 우선 자세히 살펴본 후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야 이해가 쉽겠다고 생각합니다.

화두 해석 놓고 논쟁 화두 의미와 무관

만약 어떤 사람들이든 고오타마 가르침의 핵심인 고귀한 8겹의 길(8정도)인 '아리야 아탄 기이까 막까'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화두에 대한 조사님들의 근본 뜻도, 돈오와 점수에 대한 이해도 모두 풀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고귀한 8겹의 길 가운데 첫번째가 '바르게 본다'인데(正見) 바르게 본다는 것은, 바르게 안다는 것과 동의어로써 무엇을 바르게 아는가하면 그것은 깨어나는데 필요한 고오타마의 가르침을 정확하고 바르게 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그루의 나무를 설명할 때 나무라는 이 한 토막의 소리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에 대해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무라는 이 낱말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한 그루의 나무는 뿌리가 나무다, 가지가 나무다, 잎이 나무다라는 시비의 대상이 될 것이지만 바르게 이해한다면 무엇이 나무라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선종 5가의 하나인 임제 종파가 만들어낸 이 화두 참구법은 깨달음에 이르려는 방편이며 관문으로써 여기에는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들이 있는데(△정확한 이론과 익혀야 할 몸가짐에 대한 정비 △개발해야 하는 5가지의 기능 △그리고 이것을 실천해야 하는 일)이러한 순차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름길로 바로 나아가려는 획기적인 선수행(명상수행)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설사 이 길이 지름길로 가는 획기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가르침을 정확히 알고 지름길로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낭패를 보기 쉽다는 것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옛 선사들도 선지식의 지도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알고 있는 선지식의 지도 없이 나아가다가는 본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울거나 또는 몇 발자국 나아가다 더는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으로 일평생을 아니 수없는 생을 거듭하여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불행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많은 선지식들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불행은 병을 다스리려고 약을 쓰다 그 약으로 인해 더 심각한 병을 얻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화두란 사티(깨닫기·삼마사티)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래서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마나'가 감각하는 (뇌감각 기관) 여러 대상들을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 우선 정지시키는 하나의 특별한 방법으로써 사티의 대상 하나만을 설정해 놓고 (화두가 여기에 해당됨) 거기에서 잘 개발된 삼마사티 (바르게 깨닫기, 正念. 단 여기에서 삼마 즉 바르게라는 것은 사티의 대상이 아닌 것을 사티해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포함됨)와 삼마사마디(바르게 집중:正定)그리고 만약 사티가 꺼지면 다시 일으키는 노력의 삼마바야마(바르게 노력한다:正精進)라는 3박자의 조화를 합쳐 사마디(禪定三昧)라고 합니다. 이것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꺼지지 않는 깨닫기를 통해 극적으로는 언어 활동(문의하고 사유하는 생각:口業)과 신체 활동(들숨날숨을 포함한 신체활동:身業)이 중지된, 즉 지각되지 않는 '제 4자나'에서 나의 몸의 기능은 정신활동만 남아있는 (마나의 정신활동:意業)상태에서 깨어남의 길로 나아갈 고단계(아눗다라 샴먁삼보디, · 구경열반)와 무색계로 들어가는 하단계(무색계의 5.6.7.8단계의 경지가 있는데 즉, 무한공간, 무한의식, 아무것도 없음, 비상비비상처)가 있는데 고오타마는 삼계와 (欲界, 色界, 無色界)삼계를 넘어 정신활동마저 꺼져버린 9단계 세계까지 체험하고 다시 제4자나로 돌아와 여기에서 고단계로 나아가(비시공간의 세계:구다가 니가야 중 우다나 참고) 자기의 수없는 전생과 생사를 거듭하는 원인인 카르마의 법칙과 생사의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오타마가 시비공간의 세계에서 알아낸 3가지 깨달음의 과학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화두란 마나 감각기관의 감각하는 작동을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화두라는 한곳에 집중시켜 놓은 사티의 대상이며 깨닫기에 대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때문에 화두에 의미를 이러니 저러니 해석을 하고, 또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이론을 잡다하게 설명하는 양단의 논쟁은 화두의 의미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며 또 임제 종파에 대한 그리고 조사선의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했던 옛 선사들에 대한 예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귀한 8겹의 길을 우선 정확하고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 고귀한 8겹의 길 가운데 맨 끝부분의 3개 즉 삼마바야마(正精進) 삼마사티(正念) 삼마사마디(正定)를 묶어서 그냥 사마디(戒, 定, 慧 삼학의 正에 해당)라고 하는데 삼마사티는 고오타마 명상의 요체이고, 삼마사마디는 그 형태이고, 삼마바야마는 그것의 지탱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3가지 전체를 고오타마 명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술한 바와 같이 간화선을 하는 수행자는 수행에 앞서 고오타마의 고귀한 8겹의 길을 정확하고 바르게 안 후 돌아서 가든지 지름길로 가든지 결정한다면 허물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빨리 가려고 알지도 못하는 지름길을 가다가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위대한 스승, 그리고 깨어남에 있어 인류 최고의 권위자 고오타마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고오타마 말씀과 가르침이 아닌 것을 고오타마의 말씀인냥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밤 마야야 슈루탐'하면 모두가 고오타마의 말씀인냥 검증없이 그냥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오타마는 누누히 당부하셨습니다.

'수타마야, 치타마야, 바바나마야', 내 말을 우선 들어라 그리고 내 말을 믿지 말고 동의하지도 말라. 그리고 내 말이 사실인지 실험하고 그것이 증명되면 그것만 확신하라고 말입니다.

고오타마 그는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귀한 8겹의 길, 즉 아리야 아탄 기이까 막까(중국어 번역:8정도. 여기에서 중국어 번역이라고 계속 괄호를 하는 것은 본질적인 의미와는 너무 애매모호하고 그릇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한문경전에 익숙해진 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것임을 참고하기 바란다)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분이 깨어난 이후 남기신 평생 동안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며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불교의 사전을 펼쳐보면 고귀한 8겹의 길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그 사전적 의미는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어렵고 애매모호하고 복잡합니다.

설명이 복잡하고 애매모호하다는 것은 결국 잘 모른다는 말이며 그것의 증거입니다.

고오타마의 가르침 '8겹의 길' 바로 이해

설명은 설명 대상보다 쉬워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더 어려우면 설명을 위한 설명이 겹겹이 쌓여 본래 의미는 다른 곳에 있고 설명만이 남아 있게 됩니다. 고귀한 8겹의 길 중 첫번째 등장하는 바르게, 즉 삼마라는 초월언어가 내포하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위대한 스승 고오타마 가르침의 핵심인 고귀한 8겹의 길을 그릇되게 알고도 내가 깨어날수 있을까. 물론 고오타마도 혼자 깨어나신 분이고 다른 분들도 혼자 깨어나신 분이 있으니 우리도 깨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오타마께서도 그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셨다고 빨리 경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깨어나는 과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겠습니다.

고오타마의 8겹의 길은 다시 3개로 묶어서 관냐, 실라, 사마디 (중국어 번역:계, 혜, 정:삼학)라고 했는데 이 8겹의 길을 실천하기 위해 고오타마는 5가지의 기능을 개발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섯 가지 기능이란 아시다시피 1.관냐(정확한 이론) 2.실라(정확한 이론에 대한 확신) 3.사마디(집중력) 4.비리야(활력) 그리고 이 4가지의 중심이 되는 5.사티(깨닫기)입니다.

"불자는 고오타마의 법 실천자 미혹세계 벗어나는길 찾아야"

단, 여기서 사티는 내 몸의 기능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가 아닌 즉, 시공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시공간의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시공간의 사티를 통해서 시공간의 제법실상을 통찰해 나가는 것인데 여기에서 제법실상이란 내 의식속에 의식된 세계를 말하고 있으니(세계는 내 의식안에 있다) 즉 내 의식속에 비쳐진 감각된 것을 말하고 있음입니다.

이때 우선 사티의 대상은 아나파나사티, 즉 들숨 날숨 깨닫기부터 집중해 나가는 단계. 이것은 루빠 사티라 하여 신체감각에 대한 깨닫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나파나사티 숫다 빨리 경전 해설서 및 한국불교연구원 발간, 반야심경 해설서, 어떻게 하면 깨어날 것인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고오타마 명상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비빠사나 명상이 마치 고오타마 명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고요타마 명상안에는 사마타적인 요소도 있고 비빠사나적인 요소도 있으니 비빠사나 명상이 고오타마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표현입니다.

고오타마는 열반에 들기 직전까지도 이 아나파나사티를 하고 있었다는 빨리어 경전 기록을 보면 들숨 날숨 깨닫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인도의 라즈니쉬는 고오타마의 아나파나사티 명상이야말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찬탄한 바 있다.)

다음으로는 마나가 감각하는 (뇌감각기관)대상에 대한 깨닫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베다나사티(느낌에 대한 깨닫기) 같은 것입니다.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느낌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구상을 하며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도 마나 감각기관이 하는 활동인데 이것들에 대한 집중도 매우 어려운 사티의 대상입니다.(여기에서 어렵다는 것은 신체 활동에 대한 집중과 사티보다 마나가 감각하는 것을 사티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나 감각기관이 감각하는 것을 집중하고 사티하는 것은 루빠사티 즉 신체 활동의 깨닫기가 매우 익숙해진 다음에 해야하는 단계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화두는 마나가 감각하는 집중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깨닫기가 없는 화두는 몽매요 그냥 몰입입니다. 그리고 깨닫기의 대상이 아닌 것에 집중하는 사티는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마사티 즉 바르게 깨닫기를 하라는 것이죠. 때문에 올바른 집중과 올바른 깨닫기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며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고귀한 8겹의 길이 모두 겹으로 서로 관계하고 있으니 한 기능이 무너지면 다른 기능도 무너진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화두 참구법과 관련해 정, 혜 결사에 대한 조사님들의 수행법을 보면 여기에도 말은 달리 했지만 의미는 같다고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정 가운데 화두가 없으면 무기요, 정 가운데 화두가 역력하면 해라하여 정과 혜를 쌍으로 닦으면 해가 서산에 지기 전에 참학의 도리를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다시 다른 말로 이렇게 풀어봅시다.

'집중하는 대상에 사티가 없으면 몰입이요, 무기이지만 집중하는 대상에 사티가 역력하면 지혜를 완성해 나가는 통찰이요, 깨어있음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집중과 사티가 함께 잘 되면 해가 서산에 지기전에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 실상을 확실히 알것 입니다. 그래서 사티와 집중의 개발이 우선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전부이자 그 밖에 더 아무것도 없는 깨달음의 길, 아리야 아탄 기이카 막까-고귀한 8겹의 길을 정확하고 바르게 아는 것이 절대로 중요합니다.

간화선을 하든 묵조선을 하든 여래선을 하든 사마타, 비빠산, 탄트라 무수한 명상법 그 어느 것을 택하든지 그것은 각자의 자유요, 선택입니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히 밝혀 두고 싶습니다.

'불자란 오직 고오타마의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만약 누구라도 스스로 불자라고 한다면 우선 고오타마 가르침 핵심인 고귀한 8겹의 길을 정확히 배우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그 방법에 의해 깨어나는 길을 찾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또 이 길이 깨어나는데 유일하다라고 하신 고오타마의 말씀을 본인은 실험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에게도 더 많은 실험을 통해 증명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에게도 더 많은 실험을 통해 증명하고 확인해야 할 일 남아 있습니다만, 불자들의 스승에 대한 예우요 또 자세가 아닌가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건대 고귀한 여덟겹의 길, 거기에 생사를 거듭하는 미혹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귀한 여덟겹의 길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 실천하면 반드시 깨어날 것이라고 스승 고오타마는 단언하셨습니다. 2500여년 전의 사자후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80년대초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았던 임권택 감독의 불교영화 '만다라'.



◇문도회와 유족의 반대로 제작이 중단된 영화 '성철'의 촬영 장면.

두손 논 영상포교…"불교영화 없다"

'달마가 동쪽으로…' 이후 수준작 맥 끊겨
불교왜곡·폄하 이유 영화제작에 제동

문화의 시대, 가장 대중적인 방법으로 불교를 대중에게 전하는 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상포교다. 영상포교가 이렇듯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영상문화가 현대인들의 모든 사고와 양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사상을 영상매체를 통해 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대의 변화를 읽어야 한다. 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렇다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불교영화의 연원을 살펴보면, 62년 '원효대사'와 '이차돈'을 필두로 20여편의 불교영화가 제작돼 왔지만 70년대까지는 대부분 교훈적이고,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돼 일반 대중의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그후 80년대 들어서는 임권택 감독의 '만다라'가 대중적인 인기와 작품성을 인정받으면서 불교영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90년대 초반에는 배용균 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 국제영화제 대상을 수상하며 불교영화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는 듯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불교영화가 제작되지 못한 채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95년 이일목 감독의 '카루나'가 제작됐지만, 불교사상에 대한 이해부족과 작품의 완성도 부족을 불자들의 불심으로 메우려 하다가 참패를 당했다. 이후 지난 98년 박철수 감독이 성철스님의 생애를 영화화하기 위한 영화 '성철'의 제작에 착수했으나 문도회와 유족의 심한 반대로 중도 하차해 안타까움을 남겼다. 특히 영화 성철의 제작중단은 창작의 한계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90년대 중반이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리틀부다' '쿤둔' 등 외국의 불교영화가 국내에 소개됐다는 것이다. 오는 6월에는 월드컵을 소재로 한 티베트 장편 극영화 '컵(CUP)'이 국내에 개봉될 예정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로운 형식으로 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차세대 형 영상포교다. 그러나 교계 일부에서는 여전히 영상매체를 상업적이고 천박한 문화로 치부하려는 편견이 존재한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승들의 세계를 자칫 잘못 표현하여 오해를 일으킬 수 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불교영화 제작자체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경향도 짙다. 또 포교적인 면만을 강조하다보니 문화적 산업적 산물인 영화의 특수성을 무시한채 간섭하고 방해해서 제작의 길을 아예 차단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단 한번의 시도로 완성도 높은 불교영화가 제작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한다.

김태형씨(영화평론가)는 "영화는 상업적인 측면이 강한 매체다. 그러나 불교영화는 돈버는 일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여겨졌고, 자연히 제작자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졌다"면서 "기존의 소재주의적 접근 방식을 지양하고, 영화의 전반적인 구성에 불교의 세계관과 가치를 녹여낼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영화로 관객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막강한 영상매체의 힘을 무시한 채 영상포교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불교는 일반 대중의 관심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갈 것이다. 따라서 영상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영화인들이 의욕적으로 불교영화를 만들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월드컵 축구 경기를 둘러싸고 티베트 불교사원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다룬 '컵(cup)'.

미리보는 불교영화 'CUP'

티벳 승려의 천진한 삶
코믹영화…곳곳에 감동

영화 '컵(CUP)'은 히말라야 기슭의 티베트 불교사원에서, 월드컵 경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바탕 소동을 다루고 있다. 담을 넘어서라도 월드컵 경기를 보겠다는 어린 스님들과 물컵도 종이컵도 아닌 '컵'을 차지하려 두 나라가 싸우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노스님간의 갈등과 화해를 코믹한 상황 설정으로 풀어나간다. 이 영화의 수입 배급사는 코미디 영화로 분류하고 있지만 티베트승려들의 천진하고 소박한 삶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녹여낸 불교영화로도 볼 수 있다. 마구 웃다보면 티베트 불교사원의 웅장처럼 선량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게 만드는 그런 영화인 것이다.

이 영화는 티베트 불교의 중요한 환생 라마 중 한사람인 키엔츠 노부가 메가폰을 잡아 티베트 스님들이 배우로 출연하고, 티베트어로 만들어진 최초의 티베트 영화다. 특히 실제로 월드컵에 열광한 티베트 스님들의 이야기를 근거로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그러나 단순히 즐겁고 재미있는 영화만은 아니다.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티베트의 상황을 영화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세대간의 갈등을 축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화해로 이끌어낸다. 우여곡절끝에 텔레비전을 빌려 놓았지만 막상 경기가 한창일 때 오기엔은 자리를 나와, 텔레비전을 빌릴 때 모자란 돈 대신 저당잡힌 니마 어머니의 시계를 되찾기 위해 돈이 될만한 것을 찾아 자신의 방을 샅샅이 뒤진다. 이를 본 게코스님이 돈을 대신 주겠다고 약속을 하며 오기엔에게 "셈이 흐리긴 해도 넌 훌륭한 스님이 될거다"라고 말하는 장면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영화의 끝무렵에서 펼쳐지는, '적들에 대한 증오심을 극복하라'는 노스님의 법문도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다.

6월 10일 전국에서 동시 개봉된다.

이은자 기자

5월의 문화인물

진·감·선·사

음악극 등 행사 다채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5월의 문화인물 진감선사의 달을 맞아 관련 공연과 행사들이 잇따라 열린다.

진감국사(眞鑒國師:774~850)는, 범패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한 불교음악의 선구자이자 중국으로부터 차나무를 들여와 보급한 차문화의 비조로도 꼽힌다. 또한 신라 하대 선종(禪宗)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문화관광부는 조계종과 함께 1~2일 서울 장충동 국립중앙극장 대극장에서 음악극 '진감'을 공연하고, 3일에는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학술세미나를, 14일에는 쌍계사에서 영산다례법회를 연다.(02)739-1830

국립국악원에서도 부처님오신날과 진감선사의 달을 맞아 '불교예술의 미 천년회상, 천년상생'을 준비중이다. 9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열리는 이 공연은 국립극악원과 영산재보존회, 승무 이매방씨, 경기명창 이춘희씨 등이 범패와 작법, 승무, 영산회상 등을 선보인다. 특히 국립국악원 광장 한가운데 법주사 팔상전 모형탑을 설치해, 공연 후 출연자와 관람객이 함께 탑돌이를 하며 화합의 한마당을 펼칠 예정이다. (02)580-3300

'춤추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윤자 춤-화두

3일 부산문화회관 공연



◇화두춤을 추고있는 이윤자교수

춤이 곧 화두가 되고 수행이 되는 '이윤자 춤-화두' 공연이 승속을 넘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3일 부산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춤추는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통해 존재의 실체를 찾아 나선다.

이번 공연에서 선보일 춤 '회향'은 "일체 현상계의 모든 생멸법은 꿈이며 환영이며 물거품이며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총 4막 95분의 대서사시로 결쳐낸다. 특히 시심마, 무, 무아, 미모원재안상(눈썹은 눈 위에 있다) 등을 4개의 화두로 삼아 각 막마다 풀어낼 예정인데, 90년 춤-화두 연구회를 발족한 이교수가 참선을 춤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의 일부를 무대에 올린 것이다.

이교수는 춤·화두 연구회 활동 외에도 마음을 담아내는 작업들을 계속하며 '히말라야 설음' '제행무상' '마하무드라' '산과 물을 기리는 노래' 등의 작품활동을 수행으로 삼고 있다. 현재까지 22가지의 화두 작품을 발표한 이윤자 교수는"여러 스님들을 찾아 자문을 구하며 화두를 춤으로 형상화 했다"면서 "이번 공연을 통해 자신의 근원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불교인터넷 TV "연등축제 생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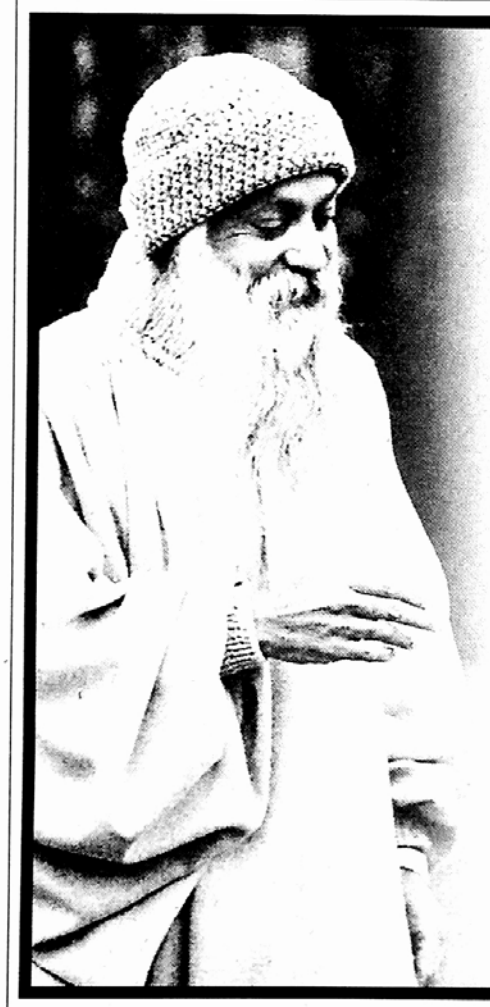
오는 부처님오신날에는 안방에서 컴퓨터를 통해 연등축제를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된다.

불교인터넷TV(이하 BIT, 대표 임동민)는 7일 열리는 '연등축제'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6시간등안 교계 최초로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키로 했다.

BIT는 이번 중계방송을 위해 스튜디오와 현장을 연결하는 이원 생방송에 필요한 인력확보와 프로그램 기획에 착수했다. 또 인터넷상에서의 원활한 중계를 위해 '드림라인'과 '신비로' 등 대형인터넷 업체들의 서버를 확보해 깨끗한 화질과 음질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생중계 방송은 한국어와 영어로 방송될 예정이며, 방송을 원하는 교계사이트에 무료로 동영상을 제공해 보다 많은 불자네티즌들이 시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BIT임동민대표는 "국내 인터넷 사용인구가 1300만을 넘어선 시점에서 불교계도 네티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연등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생중계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현장스튜디오를 만들어 방송할 것"이라며 의욕을 보였다. 김주일 기자



우주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명상 여행

신간
The Royal Song of Saraha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I
오쇼 라즈니쉬 강의 이경옥 옮김 전2권 각권 값 10,000원

명상은 삶속에 존재한다. 그대가 누구이건 그냥 존재하라. 삶이 그대를 통하여 흐르게 하라!
왕을 위한 사라하의 노래, 이 40편의 노래들이 그대 가슴에 40송이 꽃으로 피어나길 희망한다. 그대를 꽃 피울 가장 위대한 가치는 자연스러움이다. 이것이 진리의 깨달음이며, 탄트라의 메시지다!

신간
India My Love
내 사랑 인디아
오쇼 라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값 8,000원

빛나는 우화들은 크나큰 기쁨을 안겨 준다. 이 책을 천천히 읽어라. 사랑으로!
인도는 우리의 내밀한 공간이다.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물, 오쇼 라즈니쉬가 보내온 초대장, 우리는 인도로 들어가 인도와 하나가 되고, 숨어 있는 꽃과 같은 스승을 만난다!

Tantra Vision
탄트라 秘典 I·II·III·IV
오쇼 라즈니쉬 강의 이연화 옮김 전4권 각권 값 10,000원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112가지 수행법!
이 책의 원전은 〈비그야나 바이라바 탄트라〉로, 옛 선사들의 지혜, 성인들의 삶을 통해 얻어진 명상 방편들로 이루어져 있다. 오천 년전 시바가 그의 연인 데비에게 전수한 것들이다.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01. 탄트라 秘典 I
02. 탄트라 秘典 II
03. 탄트라 秘典 III
04. 탄트라 秘典 IV
05. 법구경 I
06. 법구경 II
07. 금강경
08. 반야심경
09. 탄트라 더없는 해탈을
10. 십우도
11. 신심명
12. 하얀 연꽃(마하사 장편)
13.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
14.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
15. 禪, 빈 거울에 담긴 노래 | 마조
16. 마음을 버려라 | 임제
17. 오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 | 조주
18. 텅 빈 가슴을 넘어서 | 남전
19. 법의 연꽃 | 이규
20. 禪의 최고봉 | 백장과 대주
21. 내 사랑 인디아
22. 소중한 비밀 | 까비르 강론
23.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24. 서양의 붓다 |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 책의 책은 출간 준비중입니다.
★ 책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mail_taeilpub@chollian.net
tel_927-2831~4 fax_924-3236
태일출판사

경전 속 음악-불교악기 정리

박범훈 교수 '한국불교음악사 연구'

"세종대왕 찬불가 작곡 법고 치면서 직접 불러"

박범훈 교수(52·중앙대 한국음악과). 국립국악관현악단과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초대단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음악사에 빛나는 예술적 성취를 이룩한 음악가. 그가 5년 동안 컴퓨터 자판을 2번씩 바꿔가면서 한국불교음악사를 연구해 '불교음악 박사 1호'가 됐다면 모두 놀랄 것이다. 그 결과물이 경전 속 음악관련 내용을 집성한 〈한국불교음악사연구〉(장경각)이다.

박 교수는 경전에 최대한 밀착해 불교음악의 전래와 수용, 그리고 전래 과정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불교음악의 미래를 고찰한다.

우선 〈삼국사기〉 악지를 비롯 중국문헌인 진양의 〈악서〉, 〈사리영응기〉, 〈악학궤범〉과 1920년 이왕직아악부에서 연주된 악기와 현재 전통음악에 연주되고 있는 악기를 비교하면서 불전에 기록된 악기의 우리나라 전래과정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전통악기가 불전에 의해 우리 나라에 최초로 알려지게 됐다는 주장은 눈여겨볼 만하다. 적(笛)·법라(法螺)·목어(木魚) 등 경전에 기록된 53종의 악기 가운데 현재 활용되고 있는 악기는 불과 11종. 1920년대까지는 53종의 악기가 대부분 사용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연주법 등이 전수되지 않아 사라진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 이책에서는 '음악(音樂)'이란 용어가 일제시대 일본에 의해 통용된 것이 아니라 불전에 기록되어 있는 용어라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 〈무량수경〉 등 42종의 경전에서 찾아낸 불교음악용어는 모두 110종. 그 가운데 〈법원주림〉이 가장 많은 41종류의 음악용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악, 범패, 어산, 패와 찬, 영가, 가영, 음악 등의 용어들이 경전을 통하여 일본보다 우리 나라에 먼저 전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편화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박 교수는 이에대해 서양음악이 들어오면서 일본에서 번역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척불숭유정책을 편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직접 찬불가를 작곡했다는 내용도 흥미롭다. 불상점안식 때 법라를 불고 법고를 치면서 새로운 찬불가를 불렀다는 〈사리영응기〉의 기록이 근거다.

이 책은 근·현대에 이루어진 창작 찬불가의 탄생과 개화과정도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스님→재가불자→방송 및 음악가 등으로 찬불가의 창작 주체가 전환되는 과정과 찬불가의 발전 방안을 제시한 제언은 새겨 들을 만하다.

특히 1920년대 찬불가를 작사 작곡한 용성 스님을 창작 찬불가를 효시로 보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939년 김기수가 지은 '황하만년지곡'이 국악창작곡의 효시라는 사실을 뒤엎기 때문이다.

불전에 기록된 불교음악, 불교음악의 전래, 우리 나라의 첫 불교음악의 한국적 전개, 창작 찬불가 등 모두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불교음악통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하고 치밀하다.

박범훈 교수는 "동양음악의 원류라고 하는 아악적인 음악관이 이미 불교에서 유래됐다는 사실을 경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며 "불교음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작곡·지휘·기악·성악·이론 등 다양한 분야의 불교음악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값 2만5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중경목록' '일체경음의' 한글대장경 두권 출간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한글대장경 〈중경목록 外〉와 〈일체경음의〉가 이 나란히 출간됐다.

〈중경목록 外〉에는 수나라 때 법경 스님을 비롯 20여 명의 스님들이 편찬한 중경목록(7권), 당나라 정태 스님의 중경목록(5권)과 명전 스님의 대주간정중경목록(15권), 고려시대 때 편찬한 대장목록(3권) 등 5종의 불전 목록이 실려있다.

이 가운데 중경목록은 초기 경전 번역사 이해의 중요한 문헌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대장목록은 서지학적으로 높이 평가되는 저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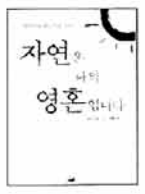
〈일체경음의〉는 일종의 대장경 사전으로 집신주삼보감통전(4권), 남해기귀내법전(4권), 대당서역구법고승전(2권)의 음의(音意)를 풀이하고 있다. 각권 값 1만5천원.

김중근 기자

새로나온 책



▲만일 부처가 데이트를 한다면(샬로테 캐슬 지음, 서민수 옮김, 도솔)= '만일 부처가 데이트를 한다면'이라는 가정 하에 진실한 사랑을 만들어 가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부처님 시각으로 데이트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자비와 애정, 친절을 베풀어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여라. 욕심을 부리지 말라…. 사랑을 위한 준비, 욕망을 일깨우자. 신성한 불꽃 속으로 등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값 7천9백원.



▲자연은 나의 영혼입니다(제임스 손튼 지역, 정영문 옮김, 모색)= 미국 환경전문변호사 제임스 손튼의 자연명상 에세이. 지구 환경의 운명이 우리들 각자의 행동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밝히며, 환경친화적인 자연명상법을 소개한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하면서, 일하면서, 걸으면서,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일과 속에서 어떻게 명상할 것인가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값 7천5백원.



▲또 다른 나라(메리 파이퍼 지음, 공경희 옮김, 모색)= 젊은이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인 노년의 인생, 부모와 자식간의 인간 관계와 건강, 가족이 겪는 갈등과 지혜, 사랑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가족 가치의 회복을 제시하는 에세이. 늙어 가는 부모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모와 자녀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이기도 하다. 값 1만원.



▲젖병을 든 아빠, 아이와 함께 크는 이야기(이강욱 지음, 물베개)= 마흔이 넘은 나이에 얻은 첫 아들을 혼자서 키워야 했던 영남대 이강욱 교수의 육아 에세이. 아내를 유학 보내고 젖먹이 아이를 도맡아 키웠던 남편. 밤마다 깨어나 울어대는 아이로 인해 14일 동안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도 화를 내지 않았던 아빠, 아이 업고 제자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교수님. 아름다운 아빠와 해맑은 아이의 행복하고 눈물겨운 사랑이야기가 잔잔하게 펼쳐진다. 값 8천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이상각 지음, 지혜의 나무)= 삶에 대한 성자들의 통찰이 빼곡이 담겨있는 책이다. 성자들 특유의 명쾌한 예화, 그리고 말의 가락에 빠져들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이란 이런 것이어야 하는구나'라는 각성과 함께, 성자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 가르치고자 했던 것, 뛰어 넘고자 했던 것들이 그대로 전해온다. 값 7천원.



"불교학술서 출판은 불성의 종자 심는 일"

창사 20주년 맞은 윤재승 민족사 사장

"불교연구의 결실을 담는 학술서 출판은 불성의 종자를 심는 일입니다."

9일로 창사 20주년을 맞는 민족사 윤재승 대표는 남은 세월도 오직 학술서 한 우물을 파겠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민족사에서 출간된 책은 약 400종 2백만 여권. 이 가운데 학술서는 60%를 차지한다. 윤 대표가 80년 5월 처음으로 펴낸 여익구 씨의 〈불교의 사회사상〉 이후 20년간 일궈낸 결실이다. 그가 출판에 뛰어든 배경은 의외로 간단하다. 청년시절 학술서를 좋아했던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학술서 출간에 대한 포부는 남다르다.

"학술서의 의미를 먹고 살아왔습니다. 불교의 애정이 담긴 불교학자들의 옥고, 그리고 학술서 속에 담긴 불법의 진수, 그리고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 돼는 전문분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새글 공모전' 필자 발굴

윤 대표가 20년 동안 꾸준히 학술서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불교학자 못지 않은 연구활동이다. 그는 불교학계의 연구동향을 살피기 위해 새로운 논문들을 빠짐없이 읽는다. 그렇지 않고서는 학술서를 낼 수 없다는 것이 변함없는 출판철학이다.

윤 대표는 출판뿐 아니라 필자발굴에도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다. '새 글 공모전'이 대표적 예. 아무리 좋은 기획이라도 글을 쓸 작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공모전을 한 이면에는 몇 차례 시도한 각종 기획물이 수포로 돌아갔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 창사 20주년을 맞아 '한국인물고승평전'과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 완역도 기획했다. 그러나 필자의 부족으로 또다시 무산돼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필자 발굴은 그에게 있어 또 다른 화두인 셈이다.

"불교출판인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뀔 때가 왔습니다. 그동안의 출판은 의미가 없습니다. 필자발굴, 출판방식 등을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교출판은 설자리를 잃게 됩니다."

불서독자층 확대 '골몰'

불교학술출판을 탄탄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개인적 바람이라는 윤 대표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불자 독자층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무리 좋은 책을 출간해도 읽는 사람이 없으면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돈을 벌기 위해 잘 팔리는 책을 앞 다퉈 내는 출판풍토에서 학술서만을 고집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윤재승 대표는 그 어려운 일을 오히려 즐겁게 하고 있다.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2	오두막 편지	법 정	이 레
3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전 재 성	선 재
4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 타	효 림
5	적멸의 즐거움	정 휴	우 리
6	지장신앙 지장기도법	김 현 준	효 림
7	풍경	원 성	이 레
8	깨달음의 열쇠-반야심경	김시열·황경환	한국불교연구원
9	김용옥 선생, 그건 아니올시다	변 상 섭	시 공 사
10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 림 원

도서 안내:(02)737-0695



티벳사자의 서 오디오북 '바르도'

'티벳 사자의 서'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오디오 북 '바르도(BARDO)'가 나왔다.

티벳 사자의 서는 티벳어로 '바르도 퇴돌(bardo thodol)이라 한다. 퇴돌이란 '듣는 것을 통하여 영원한 해탈에 이른다'는 뜻. 즉 사람이 죽어서 환생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미리 들려줌으로서 죽음의 순간 당황하지 않고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영원한 해탈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가르침이다.

CD 3장과 테이프 2개로 구성돼 있다. 값 CD 3장 5만원, 테이프 2개 2만8천원.

'티벳해탈의 서' 번역 출간

티벳의 비전 〈티벳 해탈의 서〉(정신세계사)가 번역 출간됐다. 이 경전을 지은 파드마삼바바는 인도의 티벳 최고 스승으로 일컬어지는 수행자. 그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대승 불교의 진수가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의 가르침은, 살아 있는 어떤 것도 개별화된 실체를 갖지 않으며, 오직 마음만이 실재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는 파드마삼바바의 수제자로 알려진 초갈이 쓴 '위대한 스승 파드삼바바의 삶과 가르침', '자기 해방이라 부르는 마음 알기와 실재 보기의 요가', '스승 파담과 상게의 유언적 가르침'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값 1만5천원.

김중근 기자



신간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기도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취가 달라집니다.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업장을 소멸하고 영가천도·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옵니다. 이책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보시기를!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Ⅰ.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Ⅱ.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흔히들 지장보살은 영가천도의 보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장신앙 속에는 영가천도뿐만이 아니라 행복과 깨달음, 성불의 비결까지 간직되어 있습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기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알기 쉬운 불교서적

관음신앙·관음기도법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4×6판 / 값 3,500원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육바라밀 수행법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반야바라밀!
4×6판 / 값 3,500원
육바라밀 수행법은 고해의 중생을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큰 배입니다. 이 여섯 가지 바라밀의 정신을 깨달아 실천하면 누구나 행복과 성불을 보장받게 됩니다.
《육바라밀 수행법》 이 한권의 책으로 행복하고 청정한 삶을 이루는 지름길을 만나십시오.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신국판 / 값 5,000원
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불문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신국판 / 값 7,000원
절에 오래 다닌 불자들조차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동선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의천스님 中 관음원 재건"

효탄스님, '관음원기 오홍 조맹부서' 공개

의천스님 행적 374자 송설체로 기록

대각국사 의천(1055~1101) 스님이 1090년 전란으로 폐허가 된 보타낙가산 관음원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효탄(동국대 연구교수 · 고려사 전공) 스님은 26일 국내 처음으로 '관음원기 오홍 조맹부서'를 공개하고,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보타낙가산 관음원에 얽힌 의천 스님의 영험기(靈驗記)를 소개했다.

의천 스님이 1090년 상인의 배를 타고 홀연히 송나라로 떠나, 14개월간 강소성과 절강성의 여러 사찰을 방문하며 불법을 탐구했다는 기록은 북한 영통사와 대구 삼봉사에 남아 있는 대각국사비,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묘지석 등의 금석문과 스님이 직접 편찬한 〈대각국사문집〉 등에 남아 있지만, 이 같은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음원기 오홍 조맹부서'는 중국에서의 의천 스님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또다른 사료로 주목받고 있다.

'관음원기…'는 1304년 중국 명주에 있는 보타낙가산 관음원을 방문한 원나라 명필 조맹부(1254~1322)가 관음원 재건에 결정적 계기를 만든 의천 스님의 행적을 374자의 송설체로 기록한 글이다.

여기에는 "보타낙가산이 있는 명주 지역에서 전란이 발발하면서 관음원의 '백의관음'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자, 대중 스님들이 백의관음을 숨기고 관음원을 떠났다. 이후 관음원을 다시 찾은 스님들이 관음상을 찾았으나 허사로 끝났다. 그런데 의천 스님이 관음원 내 통지전 우물을 지나며 '이상한 소리'를 듣고서 '백의관음'을 되찾고, 보타낙가산의 대표적 관음도량으로 발전시켰다. 고려조에서도 관음원에 새로운 전각을 시주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효탄 스님은 "불법을 탐구하기 위해 송나라를 찾았던 의천 스님이 오히려 전란으로 쓰러져 가는 중국의 불법을 일으켜 세웠다는 영험기이자, 관음원의 연기설화"라며 "이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 모두 정사에 나오는 인물이며, 특히 송나라 관리 양걸(楊傑)은 〈고려사〉 제90권 열전 제5권 '대각국사 후'에서도 언급되고 있어, 사료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관음원기…'는 또한 한 · 일 사학계에서 관음원을 놓고 '자국의 고대 무역 교두보'로 공방하고 있는 국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일본의 혜악 스님이 관음원을 창건했다는 〈보견사명지(寶慶四明志)〉의 기록을 토대로 자국의 영향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관음원의 주변 경관이 강원도 낙산사 홍련암을 많이 닮아있고, 신라초(新羅焦)라 불리는 바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신라 창건설'을 펴고 있다. 따라서 이 기록은 '관음원'에 얽힌 한 · 중 · 일 삼국의 고대교류사 연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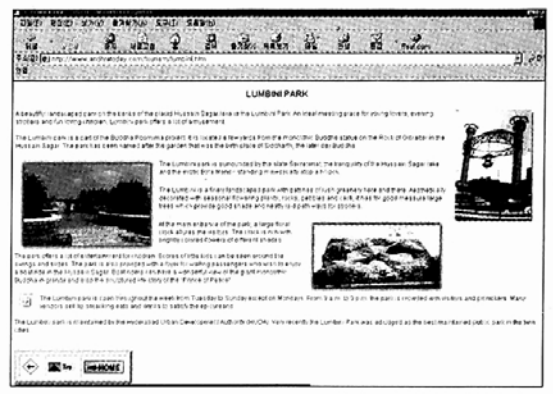
효탄 스님은 "원대의 송설체는 해독이 까다로워 서지학자들과 충분히 논의해 '관음원기…'의 정확한 내용을 밝히는 게 급선무"라며 "이를 토대로 〈고려사〉 등 다양한 역사서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효탄스님



◇중국 보타낙가산 관음원에 얽힌 의천스님의 행장이 기록된 '관음원기 오홍 조맹부서'. 대덕 8년(1304년)에 기록했다.



룸비니 현재 모습 · 유물 유적 '한눈에'

마야부인 살았던 집터 추정지 복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가상공간에서 아기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을 찾아보는 것도 아주 즐거운 일이 될 것 같다.

인터넷 검색사이트 야후(yahoo.com)나 인포식(infoseek.com)에서 검색어 'lumbini'를 입력하면 1백여 개의 홈페이지를 소개받을 수 있는데, 이중 네팔 정부에서 개설한 '룸비니 공원(Lumbini Park)'이 단연 백미다. 여기에는 '연못', '마야 사원', '평화의 대탑' 등 룸비니의 현재 모습과 '아쇼카 석주' '목욕지' '법당지' '탑지' 등 과거의 룸비니를 그려 볼 수 있는 유적 · 유물에 대한 정보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독일의 고고학자 휘러가 찾아낸 '아쇼카 석주'는 룸비니의 실존(實存)를 밝혔던 중요한 유물이다. 현장스님이 남긴 〈대당서역기〉의 기록을 좇아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 동산을 찾아나섰던 휘러는, 네팔어로 '룸민데이'라 불리는 이 지역의 언덕에서 문제의 '석주(石柱)'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후 이 곳에서는 일본 · 독일 · 스리랑카 · 태국 등의 고고학자들이 결성한 다국적 발굴단이 석주의 기록을 토대로 정밀 조사했는데, 법당지 한 곳, 승당지 네 곳, 탑지 여덟 곳, 목욕지 등이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고 역사의 성지로 되살아나게 되었다.

현재에는 일본인 학자들이 룸비니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특히 마야부인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집터를 찾아 옛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 일본의 릿쇼오(立正) 대학 고고학팀이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발굴에 힘입어 국제연합(U.N.)은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을 '세계평화센터(The Center for world Peace)'로 발전시킬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이 세워지기까지는 67년 당시 국제연합 사무총장이었던 미얀마 출신 우탄트의 노력이 컸다. 룸비니 동산을 직접 참배하기도 했던 그는, "인류의 성지인 이 곳을 평화의 전당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네팔의 왕실과 정부에 '룸비니 개발'을 제안, 네팔 정부로부터 동의를 얻는 데 성공했고 바로 그해 10월 네팔정부는 '세계평화의 성지-룸비니 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 국제연합에 제출, 12월에는 유엔조사단이 현지를 조사한 후 미국 뉴욕에서 〈룸비니 개발 국제위원회〉가 발족됐다. 이로부터 룸비니는 불자들만의 성지가 아니라 전세계 인류의 성지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룸비니 공원'에서는 네팔 역사 · 인도 불교 · 마야부인 등으로 관련 항목을 분류, 다양한 연구논문 · 사진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141,577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 이미지 지도를 펼쳐놓고, 불교 관련 유물과 유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http://www.andhratoday.com/tourism/lumbini.htm

"조계사 대웅전에 항일의지 담았다"

안후상씨 '조계사 조명 학술대회' 논문 발표

조계종 직할사찰인 조계사 창건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그리고 그 대웅전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일까? 서울 견지동 조계사의 사적과 그 의미를 조명한 이채로운 논문이 나와 화제다. 안후상(前 보조사상연구원 간사) 씨의 '불교총본산 조계사 창건사'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불교의 1번지이자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조계사지만, 지금까지 이 사찰의 사적을 추적하고 평가하는 본격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 안 씨는 "조계사는 불교계를 행정력으로 지배하고자 했던 일제의 의도에서 시작한 '총본산 건설운동'의 결과물이지만, 불교계는 창건 과정에서 오히려 '항일 의지'와 '대중 포교'의 깊은 뜻을 담았다"고 주장하고, 그 이유로 보천교 십일전(十一殿)을 대웅전으로 삼았고 또 '총본사의 이름을 태고사로 했다는 것을 꼽았다.

보천교는 일제 강점기에 물산장려운동을 이끌 만큼 항일 의지가 강했던 종교단체다. 특히 이 단체의 십일전은 서울 남산에 세워졌던 거대한 '조선 신사'에 맞서 전북 정읍 대흥리에 세웠던 전각으로, 일제의 만행을 민족 정신으로 이겨낸다는 뜻을 담고 있다. 십일전은 1937년 4월부터 1개월에 걸쳐 전북 정읍에서 태고사(현 조계사)로 옮겨졌고, 1938년 10월 25일 태고사 대웅전으로 거듭났다.

이에 대해 안 씨는 "규모나 미적으로 당대 최고였던 전각을 태고사 대웅전으로 삼은 것은 일본 불교와는 다른 민족적이고 전통적인 불교를 세우고, 또 대중 교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안 씨는 또 총본사의 이름을 태고사로 한 것에 대해 "총본사 사명을 태고사로 한 것은 보우국사가 주석했던 북한산 태고사의 사격을 잇고 또 일본 불교와는 다른 법통을 세우고자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 씨의 논문은 8일 오후 1시 조계사 불교회관 1층에서 '조계사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된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와 조계사가 준비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제시대 불교계 통일 운동과 조계사'(김광식), '조계사 대웅전의 예술사적 조명'(이강근), '조계사와 한국현대불교사'(박승희), '조계사의 발전 방향'(김영일) 등도 발표될 예정이다. (02)732-4923



◇ '황룡사 전시관' 조감도.

'황룡사 전시관' 설계 당선작 확정

신라 최대의 사찰이었던 황룡사 터에 들어설 '황룡사 전시관' 설계 공모 당선작이 확정됐다.

올해 1월부터 4월15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설계를 공모해온 경주시는 지난 21일 오후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고, (주)금성종합건축사무소(대표 · 김상식)의 설계를 당선작으로, 우리건축사무소(대표 · 김태조)의 설계를 우수작으로 각각 선정하고, 당선작에는 설계권을 부여하고, 우수작에는 상금 1천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

당선작은 분황사 등 인근에 신재한 문화재를 비롯,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공간구성이 우수하고 조경 및 발굴현장 유구에 대한 표현이 잘 돼 있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279억 2천 400만원의 건립비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황룡사 전시관은, 문화재청의 승인을 거쳐 오는 연말께부터 황룡사 터 일부인 경주시 구황동 292-1일대 7천 487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천 799평 규모로 세워지게 된다. 준공 예정은 2002년. 황룡사 전시관이 건립되면 황룡사 터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 4만 5천여 점이 전시된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학술단신

대구 팔공문화원 개원

대구시 동구 팔공산 일대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 팔공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줄 동구 팔공문화원(원장 김원석)이 22일 문을 열었다. 옛 공산1동 사무소 자리에 개원된 팔공문화원은 대구시 문화재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팔공산 일대의 문화유산을 집대성해 보존하고 문화운동과 문화정책개발을 위한 팔공문화포럼을 운영한다. 또 문화의 집, 문화학교 운영과 함께 팔공산을 찾는 시민들을 위해 대구청년문화제전을 비롯, 팔공 문화제, 팔공미래 환경제전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다.

'사찰 조경연구' 7집 발간

사찰조경연구소는 〈사찰조경연구〉 7집을 발간했다. '불국사의 건축과 조경'을 주제로 펴낸 이 논문집에는 '불국사 복원에 관한 고찰'(김봉건 · 국립문화재연구소), '관광사업의 틀에서 본 불국사의 건축적 보전'(한삼건 · 울산대), '불국사의 재조명을 위한 제언:경관해석의 관점에서'(정기호 · 성균관대), '불국사의 식물상과 관리계획에 관한 연구'(하재호 · 진주산업대) 등 논문 5편이 수록됐다. (0561)770-2501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환한 등을 달아주십시오.

길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무명에 젖어 한 점 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미혹의 어둠을 밝히는 세 개의 등불이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날,
소중한 사람에게 이 책들을 선물해 보십시오. 세 개의 등불이 소중한 이의 가슴에 환한 불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전재성/글 · 현관옥/사진 · 국판 208쪽 · 컬러 화보 · 값 7,500원
불경이 어렵고 무겁다면 페터 노이야르를 만나보십시오. 퀼른의 한복판에서 20여 년간 누더기 한 벌만 걸친 채 홀로 출가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 나무 밑의 성자. KBS 일요 스페셜 방영으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안겨준 그가 시린 맨발로 한국 땅을 밟으며 들려주는 경전 같은 이야기
이 책을 통해 거의 맹목적으로 소유와 편리의 논리를 추구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진정한 삶에 대해 새로운 성찰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도법 스님/ 실상사 주지



거지성자
전재성 글 · 신국판 312쪽 · 값 7,500원
페터 노이야르. "숲으로 가라, 새가 제 날개의 무게로만 날 듯이 소유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집 없이, 돈 없이, 여자 없이 사는 거리의 수행자. 동서양 고금을 넘나드는 황홀한 가르침. 마음속에 잠자던 佛性이 깨어난다.
선생은 새를 보면 새가 되고,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되고, 스님을 대하면 스님이 되었다. 긴 여운을 남겨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다.
류지엽/KBS 일요 스페셜 프로듀서



깨달음으로 가는 오직 한 길
김열권 지음 · 신국판 256쪽 · 값 8,000원
20여 년간 한국 최고의 선사들로부터 禪을 배우고 한국인 최초로 미얀마에서 출가하여 위빠싸나를 그리고 밀법 선사로부터 티벳 밀교 호흡을 전수 받은 저자가 심혈을 기울여 저술한 선수행 지침서. 그림과 문답을 통해 쉽고 자세하게 안내한다.
인류의 마지막 종교는 선이라는 말이 있다. 위빠싸나 수행은 인류의 진정한 의지처가 될 것이며, 이 책이 그 초석이 될것이다.
상묵 스님/무불선원장

선재 서울 구로구 오류동 34-3 전화: 0502-212-3450 전송: 0502-212-3451(0502를 꼭 눌러주세요)

불살생계, 생명존중 사상 담겨

혜능 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17〉

오계상경-11

낙태 · 안락사 시킨 죄 참회 불가

살생하면 열등한 형태로 환생

▲원문

다시 '태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임신한 여인에게 토하약(吐下藥)이나, 여러 곳에 넣는 약이나, 침으로 혈맥을 찌르거나, 눈물이 나게 하는 약을 주며 '이 인연으로 여자가 죽어 버려라' 하는 것이다. 만약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만약 바로 죽지 않고 이 인연으로 나중에 죽으면 또한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바로 죽지 않고 나중에도 이 인연으로 죽지 않으면 이는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어미를 죽이기 위해 일부러 태를 떨어뜨렸는데, 만약 어미가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태아만 죽으면 이는 참회할 수 있는 죄이다. 만약 함께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이다. 함께 죽지 아니하면 이는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다. 만약 어미가 죽으면 중급의 죄로서 참회할 수 있고, 함께 죽으면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태아를 떨어뜨려 죽이는 법'이다.

▲강의

살생 행위에는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살생하는 것, 둘째 교살(敎殺)하는 것, 셋째 총, 투석, 매질 등으로 살생하는 것, 넷째 함정을 파서 빠뜨려 죽이는 것, 다섯째 신통의 힘을 통한 살생, 여섯째 주술 등에 의한 살생 등이다. 이 가운데 어떠한 방법이 사용되든지 중생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살생이라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오계상경〉에서는 낙태와 안락사에 대해서도 모두 중죄로서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된다고 하였다.

살생을 하면 오랫동안 죄의식으로 고통 받고, 보다 열등한 형태로 다시 태어나는 업보를 받는다. 만약 살생을 한 사람이 인간으로 환생한다면 그는 약하고, 추하고, 소외 당하고, 용기 없고, 친구도 없이 항상 낙담과 슬픔 속에 잠기게 되고, 존경받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오래 살 수 없는 비참한 사람이 될 것이라 한다.

〈불설범계죄경중경〉에 의하면, "만약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없이 부처님의 말씀을 가벼이 하고, 계를 범하면 사천왕천(四天王天)의 햇수로 오백세 동안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인간 세상의 햇수로는 구백천 년이다." 하였다. 또 〈열반경〉에 이르기를 "만약 누군가가 '부처님께서 돌길라(惡作)를 범한 이는 사천왕천의 햇수로 오백세 동안 지옥에 떨어진다 하신 것은, 부처님이 방편으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한다면 그는 마군으로서 마군의 경율을 말하는 것이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살생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 역시, 하품의 죄로 참회할 수 있다 하였는데, 만약 다른 사람이 살생하려는 것을 보면 마땅히 힘닿는 대로 구해야 할 것이며, 만약 구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땅히 자비심을 내어 염불하고 진언을 외우면서 원한이 맺히는 것을 풀고, 악연을 끊도록 축원해야 한다.

살생에 있어 계를 범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첫째, 살해하려는 마음 없이 잘못해서 죽게 되었을 때와 미치고 혼란해서 마음이 과괴되었을 때이다. 처음 오계를 수계할 때 삼귀의를 마치면 곧 '무작계체'를 얻게 되고,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면 무작계체를 잃게 된다. 무작계체를 잃게 되면 다시 우바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참회할 수 없는 죄'라 하는 것이다.

불교 계율에서 불살생계는 가해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모두에게 자비를 베풂으로 마음 속에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이기고 살생계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된다. 계율에서 불살생계를 첫머리에 둔 까닭은 생명 존중 정신과 자비심을 기르기 위해서이다. 모든 중생이 본능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남의 생명을 끊는 것보다 더 큰 죄업은 없다. 내 목숨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목숨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불교 계율의 첫머리에 불살생계를 둔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살생이 '불성의 씨앗'이 싹트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자비심을 애초부터 거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불살생계에 담긴 참뜻은 '죽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가치를 깨달아 서로 돕고 서로 살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 서로의 생명 속에 숨겨져 있는 능력을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 노력 자체가 깨달음의 씨가 되어 무한한 행복과 자유라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해인총림 율원장〉

"사물 있는 그대로 보면 괴로움 벗어날 수 있어"

법회중계

법화사 일요법회

〈2000년 4월 30일〉



시몽스님
〈제주법화사 주지〉

좌절하고 성내기 보다 인내하고 정진하는게 진정한 불교인의 생활

불자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그 시초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을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살아 있는 존재의 시작은 불가사의한 것으로 시작과 끝이 없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비구여! 이 순환에는 볼 수 있는 끝이라고는 없다. 무명으로 덮여있고 갈애의 족쇄에 묶여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존재의 시초는 인지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윤회의 주요 원인이 되는 무명에 대해서도 시초가 되는 무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바국토를 일러 생사고해라고 합니다. 이승에서의 삶이 고통스럽고 허망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것이 불교인의 삶을 슬프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진정한 불교인은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고요하고 평온하며 그 어떤 변화나 재난에 처해서도 좌절하거나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불교인이라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결코 음울하거나 슬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과 함께 한 시대를 살다 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처님을 언제나 미소짓는 사람이라 일컬었습니다. 불교 회화속에 표현된 부처님도 평온하고 원만하고 자비로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결코 어떤 고통이나 고뇌나 고난의 흔적이 없습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게 마련이지만 불교인이라면 그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그에 대해 성내거나 못견뎌해서는 안됩니다. 불법에 의하면 삶의 근본적인 악 중에 하나가 분노와 증오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존재로써 고통이며, 고통과 관계된 것에 대한 악의(惡意)라고 합니다. 그것은 불행한 상태나 악행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못견디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통이 다가왔을 때 못견뎌하거나 성낸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더 증가시켜 이미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필요한 것은 고통이 어떻게 발했으며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고 인내, 지성, 결단, 용기로써 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초기의 경전 중에 〈장노게(長老偈)〉와 〈장로니게(長老尼偈)〉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경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행복과 평화를 얻은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등 사부대중의 즐거운 환성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한때 코살라국왕이 부처님께 사뢰기를 "이교들의 제자들은 모두 야위고 거칠고 창백하고 무력하고 절망에 빠진 듯이 보이는데 부처님의 제자들은 즐겁고 의기충천하며 쾌활하고 기쁨에 넘쳐 있으며 정신적 생활을 즐기며 만족해하며 근심이 없고 평온하며 사슴과 같이 밝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왕은 다시 "이 존경할 만한 분들의 건강한 기질은 여래(如來) 가르침의 위대하고 완전한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불교는 우울하고 슬프고 음울한 마음가짐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한 태도는 진리를 깨우치는데 장애가 될 뿐입니다. 이를 테면 기쁨이 열반의 실현을 위해 갈고 닦아야 할 본질적 자질인 칠각지(七覺支)의 하나라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진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 것입니다.

정리=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伊정부 90년 '불교' 공식 승인

세계의 불교학 〈17〉 이탈리아

사찰 · 불교단체서 교리 연구 주도

'불교연합' 지부결성 등 포교 활발

가톨릭의 본고장 이탈리아. 현재 이곳에서의 불교학은 경전을 해석하고 타종교와 비교하는 유럽의 다른 나라와는 달리 '교리' 연구에 한정되어 있고, 그 또한 대학이나 연구소보다 사찰과 불교단체에서 주도할 만큼 열악한 형편이다.

그러나 90년대 초 이탈리아 보수 계층을 대변하는 일간지 '코리에르 데라 세라(Corriere dela Sera)' 지가 '붓다와 함께 행복한 유럽'이라는 특집을 내놓을 만큼 불교에 관심을 두는 이탈리아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불교학의 태동기'라는 해석도 가능케 한다.

이탈리아 불교는 사실 90년에서야 정부로부터 '공식 종교'로 인정되었다. 당시 이탈리아 종교인 구조사에 따르면 약 3만여 명의 불자들이 있었다. 물론 이 수는 4년 뒤 약 10만여 명으로 급증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탈리아 최초의 불교단체인 불교연합(UBI)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이 단체는 93년 이탈리아 불교 출판업자이자 독일에서 인도학을 공부했던 스크레라(Skrela)가 투린시에서 철학 · 동양학 등을 전공하는 학자들과 결성했다. 스크레라는 "이탈리아 젊은이들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지비를 가르치고, 이를 토대로 건실한 사회적 도덕의 싹을 피우고자 했다"며 불교연합 창립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불교연합은 바티칸에서 멀리 않은 곳에 본부를 두고 5개 대도시에 지부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가톨릭과의 경쟁보다는 융합을 기반으로 불교를 알리고 있다.

사실 불교연합이 회원들에게 권장하고 있는 불교 포교론에서는 가톨릭의 본고장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포교의 난관'을 그대로 엿볼 수 있다. 이 포교론은 '사이비 종교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이탈리아 내 아시아인 불자들과 긴밀히 협력한다' '가톨릭과 동등한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이탈리아 내 대학과 연구소와의 관계를 강화한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탈리아에서 교학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곳이 포마이마 토스카나(Pomaia Toskana), 사라마기오레 에미리아(Salamaggiore Emilia), 세제 로마노 라이움(Sezze Romano Laium) 등 티베트 불교 사원이다. 이중 포마이마 토스카나(Pomaia Toskana)는 티베트 불교 수행처로써 이탈리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이다. 현재 게쉐 투브텐 니가왕(Geshe Thubten Ngawang) 스님을 중심으로 티베트 스님 3명, 이탈리아 비구 2명, 비구니 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불교학의 체계적 연구'라는 교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티베트 장경을 이탈리아어로 번역하고, 이를 계간으로 발행하는 〈티베트와 불교〉에 게재하고 있다.



◇불교연합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이탈리아 불자들.

이와 같이 이탈리아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데 대해 에미카나(로마대 · 사회학) 교수는 "불교가 인간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열려 있는 반면 가톨릭은 같은 문제에 심각한 위기감을 먼저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탈리아의 불교학은 아직까지 불교단체나 사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그 성과 역시 아직은 보잘 것 없지만, 교리 연구를 토대로 가톨릭 종주국인 이탈리아에서 불교에 대한 불신을 조금씩 불식시키며, 포교 분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93년 불교연합을 결성하며 "과학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어 가시적이고 계량적인 것에만 신념을 보이는 우리에게, 불교는 새로운 인식의 세계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던 스크레라의 말이 이탈리아에서 현실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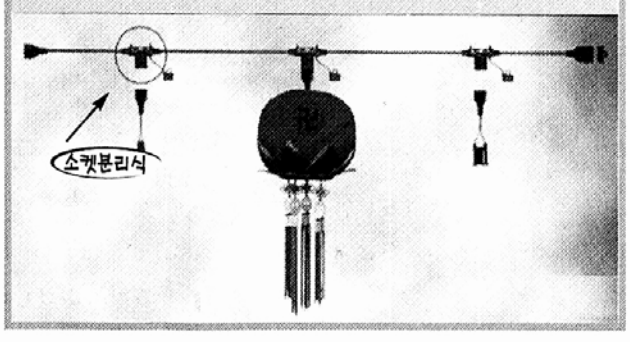
불자 기업에서 제작하는 불제전선(케이블)
봉축행사 사찰연등 법당기도등용 불제 T형 전선(케이블)

사용용도
사찰연등용 · 옥외행사용

규 격
· 등간격 : 30cm, 50cm, 1M, 2M, 3M, 5M 기타주문
· 모델 : DW-101, DW-100F (고리용)

안전성 작업성 내구성 확보
· KS전선사용
· 감전,화재사고를 예방
· 설치 · 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시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

불제 연등용 전선(케이블)



전 등 배 선
· 일일이 피복을 벗겨 테이프로 감고 설치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번거로우셨습니까?
· 이런 사소한 배선에서도 단선, 누전, 합선, 단락, 과열 등에 의해 감전사고나 화재사고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 전기는 소리도, 냄새도, 보이지도 않고, 예고도 없습니다.
· 단지 충분한 지식의 이해와 점검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입 문의 본사 영업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080-5826-236
A/S : (032)583-4023
FAX : (032)571-9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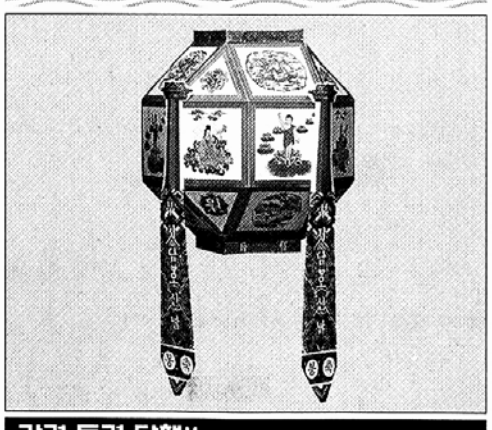
㈜ 대원기업

사찰용, 연등용 전구 3W~5W도 납품합니다.
(고추전구, 인지전구)

■ 인터넷: http//:www.bulj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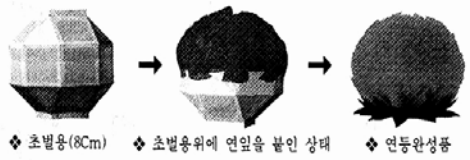
사찰 전기화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시다. 4 · 8 봉축 이전에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 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초벌용(8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 (02)467-1513 H: (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난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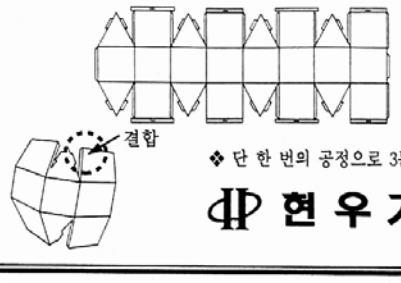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시방세계

장엄도량을 이루는 모든것 태영산업이 함께 하겠습니다.
TEL : 02)433-9544
FAX : 02)433-9543
H.P : 019)278-1119
♣ 사찰 이정표
전실교통부 지정 규격으로 제작
♣ 사찰 안내 게시판
•전우용 간판 •게시판 •목간판
♣ 회사안정 포맥스
사용희망 방지용 포맥스를 제작하여 본사 작업 사용은 무료로 드립니다.
(규격 8cm×10cm)





◇전라도 지방 사찰에서 즐겨 먹는 '깃김치'



◇쑥부쟁이 나물



◇상수리잎 쌈밥



◇메밀 수제비

조미료 · 오신채 피하고
야채 많이 쓰고 양념 적게

사찰음식

자연의 맛 '생생'…마음은 無念, 몸은 건강

'수행자에 있어 음식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양생(養生)을 목적으로 먹는다.' (일체유경)

먹을 것이 넘쳐서 탈인 오늘날, 사찰음식이야말로 식욕을 적절히 달래면서 최적의 몸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최상의 음식이다. 이에 비해 가정과 음식점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은 대부분 비만 등의 성인병을 부르기 쉬운 고칼로리 식품들이다. 부처님께서는 '비만을 만병의 근원'이라 설하셨다. 또 원효대사는 '모름지기 승려는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주린 배를 위로하라'는 말로 수행자들에게 소식(小食)을 권했다. 이렇듯 불가에서는 음식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중용의 도를 지켜왔다.

그러나 보릿고개가 있었던 70년대까지만 해도 음식을 충분하게 권하는 것을 오히려 미덕으로 여겨왔다. 그 이후 먹을거리가 풍부해진 오늘날에는 오히려 건강을 위해 음식을 절제하려는 갖가지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무열매나 뿌리, 해초류, 곡류만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되, 최소화된 간단한 조리 방법으로 주재료의 맛과 향을 살리도록 양념을 제한하는 사찰음식이 각광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불교에서 허용하는 승려의 음식인 사찰음식은 일반적으로 '오신채'((五辛菜):파, 마늘, 달래, 부추, 홍거)와 산 짐승을 제외하고 양념을 최대한 절제하여 만든 음식을 말한다. 불교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가장 간단하고 소박한 재료로 만든 사찰음식은 자연스런 맛 그 자체만으로 독특한 맛의 경지를 이루었다. 이런 사찰음식의 특징은 청정(淸淨), 유연(柔軟), 여법(如法)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청정함이다. 이는 인공조미료나 방부제를 넣지 않은 청정한 채소로 맛깔스런 맛을 내는 깨끗함을 말한다.

둘째, 담백한 부드러움이다. 짜고 맵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데, 자극성 많은 음식은 수행자들의 위장에 부담을 주기 쉽다.

셋째 양념을 하더라도 단 것, 짠 것, 식초, 장류 순으로 넣어야 하며, 영양은 골고루 포함돼 있고, 양념은 적게 쓰면서 채소의 독특한 맛을 살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스님들이 피부가 맑고 장수하는 것은 산사의 맑은 공기와 더불어 바로 이러한 사찰음식의 조리법 때문이다.

사찰음식에 들어가는 주재료인 채소와 산나물, 콩 등에는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중 도라지에는 당분과 섬유질, 칼슘 등이 많아 편도선, 인후통, 천식, 폐결핵 등에 효과적이다. 또 토란은 소화성이 우수해 변비치료와 치통에 효과적이며 비만 등 성인병 예방과 미용에도 좋다. 이외에도 녹말과 당분이 주성분인 연근은 피로회복, 정신안정, 자양강화, 심장병 등에 뛰어난 효능이 있으며, 머리를 맑게 해 준다. 특히 사찰음식의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콩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구성 아미노산의 종류도 육류에 비해 뒤지지 않아, 미용과 노화방지, 동맥경화, 고혈압 등에 좋다.

사찰음식은 종교적 음식이라 조리 방법이 까다로울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즐겨 먹었던 음식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찰음식 조리법에 따른 밥, 국, 김치, 나물무침, 튀김 등은 가정에서도 손쉽게 해 먹을 수 있는 것들이다.

종류 또한 다양하다. 밥의 경우만 해도 찰밥, 산나물비빔밥, 콩나물밥, 야채밥, 버섯덮밥, 오곡밥, 연잎밥 등 한둘이 아니고 재료 구하기도 쉬워 가정에서 입맛이 없을 때 큰 힘 들이지 않고 해 먹을 수 있다.

'국물도 없다'는 소리가 단지 우스갯 소리가 아닐 정도로 국은 우리 나라 음식에서는 빼놓을 수 없다. 사찰에서는 대개 다 끓은 탕 위에 들깨 가루를 끼얹어서 향기를 더하기도 한다. 국의 종류로는 미역국, 감자깨국, 두부전골국, 양송이국, 토란국, 맑은 호박국, 시래기국 등이 있다. 특히 사찰음식에서의 국은 짠맛을 절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과, 마늘 등을 쓰지 않는 사찰김치는 담백하고 독특한 미각을 자랑하는데 지방마다 특색이 있다. 경기와 충청 사찰에서는 잣을 주로 이용하는 백김치, 보쌈김치, 고수김치가 유명하다.

주요사찰의 재래전통음식

양산 통도사	세란, 두릅무침, 표고밥, 가죽김치, 가죽생채, 콩시루떡, 복두장떡
합천 해인사	상추불looking김치, 고수무침, 산등버섯찌개, 머위찌, 송기밥
순천 송광사	갓김치, 연근볶음김치, 죽순김치, 죽순장아찌
부산 범어사	올바구김치, 콘쟁반볶음, 배추볶음
수원 용주사	국화전, 두부스테이크, 토란튀김, 톳해물국수
여천 흥국사	산초잎된장국, 산초잎장떡, 재고물떡, 돌산 갓김치
구례 화엄사	장수리잎쌈밥, 죽순채볶음, 머위시루 튀김, 참죽부각
여주 신륵사	연잎밥, 우엉구이, 국화송편, 표고버섯전병부침
속초 신흥사	참나물김치, 톳해물
예산 대흥사	민들레잎김치
김천 직지사	수삼김치
보은 법주사	더위김치



◇가정에서도 손쉽게 해 먹을 수 있는 '두부유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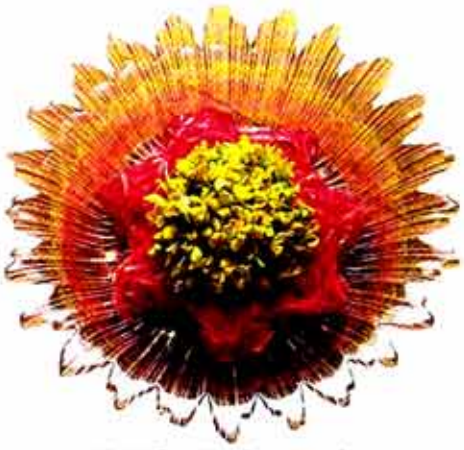
또 전라도에서는 들깨즙을 많이 이용한 고들빼기 김치, 갓김치, 죽순김치 등이, 경상도에서는 맑은 호박죽과 보리밥을 주로 이용한 콩잎 김치, 우엉김치, 깻잎김치 등을 많이 해 먹는다. 초봄에 나는 어린 풀은 어느 것이나 뜯어 먹어도 약이 된다고 한다. 이때 양념을 적게 써서 나물맛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시금치, 냉이, 취나물, 죽순채무침, 더덕무침, 도라지무침, 물미역겨자무침, 가지나물 등이 있다.

사찰요리에서 튀김은 육식에서 채우지 못한 기름기를 보충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 요리라 할 수 있다. 옛날부터 절간의 튀김은 유명한데 큰 행사 때에는 잡채와 함께 튀김을 상에 올려 잔치 분위기를 돋구었다. 버섯튀김, 감자튀김, 당근잎튀김, 호박튀김, 연근튀김, 다시마부각, 아카시꽃 부각 등이 대표적이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사진제공=월간〈봉은〉· 김연식



◇5월에 많이 해 먹는 '아카시꽃 부각'



◇피부 미용에 좋은 '골담초 무침'



◇사찰음식 전문가 김연식씨는 80년부터 인사동에 사찰음식점 '산촌'을 운영하며 사찰음식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기 · 자 · 수 · 첩

선재스님 · 김연식씨 등 사찰음식 대중화 앞장

사찰음식의 대중화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들이 많다.

우선 스님 가운데서 가장 활발하게 음식포교를 하고 있는 선재스님(보리사 주지)은 지난달 22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사찰요리축제'를 여는 등 사찰음식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스님은 96년부터 불교TV에서 '푸른맛 푸른요리'를 진행하며 꾸준한 인기를 끌어왔으며, 월간지 〈봉은〉에 '선재스님의 사찰전통 음식'이란 제목으로 96년부터 4년간 연재하기도 했다.

87년 〈산채요리〉와 97년 〈한국사찰음식〉 등을 펴내며 30여년간 사찰음식을 연구해온 승려출신의 김연식씨도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씨는 81년 중앙일보와 TBC에서 공동주최한 '전통음식 발굴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차지하기도 하는 등 사찰음식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한 개척자다. 1980년부터 인사동에서 사찰음식 전문점 '산촌'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최근 사찰음식전문사이트(www.templeveggies.com)도 개설했다.

이외에도 정기강좌를 열며 일반인들에게 사찰요리를 가르쳐 주는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 성인스님과 사찰음식연구소 이여영 소장 등이 음식포교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김연식씨는 "사찰음식은 성인병 예방을 위해 채식주의가 관심을 끌고 있는 현실에서 대중들에게 서서히 각광 받기 시작하고 있다"며 "오신채를 넣지 않고도 맛과 영양의 균형을 잃지 않아 건강에도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신개발
숙면, 쾌변 그리고 氣…
장안 화제 폭발! 실용신안 등록 출원(20-003948)
황토 물침대 겸용 돌침대 탄생!!
딱딱한 돌침대를 물침대로…
2Way Bed … 돌침대로! 물침대로!
돌침대 만들기 10년, 침대가 전자파 제거 기능을 갖고 있는 세계 유일한 특허
(등록 0157651호제품)
* 모든 돌에 600℃이상 고열을 가할 경우 몸에 유익한 원적외선 외에 X선 등 유해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0.4. 24 KBS TV 8시 뉴스 보도)
* 따라서 양질의 순수 원적외선은 적절한 온도(100℃이하)와 양질의 돌(게르마늄,맥반석 등)에서만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중인 물침대를 사원한 황토 물침대로 변형해 드립니다.
(타사 제품도 가능 · 추후 돌침대로다시 복구 가능)
※일반 매트리스 침대도 황토 물침대로 가능
(31만원부터 종류 다양, 각종 할부제도)
목단 902
국내 및 국제특허출원
901 싱글보료
돌침대의 氣로
세계인을 편안하게 건강하게…
리빙스톤 (옥스톤)
본사 · A/S : 02)424-9427 직영점: 0333)618-7773
돌침대와 황토물침대의 효능…
◆몸(체질)에 불을 안 넣으면 방바닥이 차고 …첫말 돌침대가 필요할때
◆여름에 새벽바닥 축축하고 눅눅한 냉기에 … 황토물침대로 시원하게
◆척추를 반듯하게 교정해 줍니다.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하고,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 줍니다.
◆돌매트에서 원적외선, 음이온이 분야제 배기는 느낌이 없습니다.
◆환상의 나라 황토물침대가 음이온 원적외선을 펑펑!!
◆초장파 시스템으로 몸속 깊숙이 묵힌곳을 풀어줍니다.
◆음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맥을 차단하였습니다.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한달 전기료는 12,000원 안팎(하일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 (2인용)

다시 푸는 경서

달마 혈맥론(血脈論) ⑬

愚人不信 見墮黑暗地獄中
우인불신 견타흑암지옥중
不覺不知 只緣業重故
불각부지 지연업중고
所以不信 譬如無目人
소이불신 비여무목인
不信道日有光明
불신도일유광명
縱向伊說 亦不信 只緣盲故
종향이설 역불신 지연맹고
憑何辨得日光 愚人亦復如是
빙하변득일광 우인역부여시
見今墮畜生雜類 誕在貧窮下賤
견금타축생잡류 탄재빈궁하천
求生不得 求死不得 雖受是苦
구생부득 구사부득 수수시고
直問着 亦言我今快樂
직문착 역언아금쾌락
不異天堂 故知一切衆生
불이천당 고지일체중생
生處爲樂 亦不覺不知
생처위락 역불각부지

어리석은 사람은 믿지 않는다. 흑암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데 이는 업장이 두껍기 때문이다. 만약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을 안다면 머리와 수염을 깎을 필요가 없고, 속인도 또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견성하지 못하면 머리와 수염을 깎았다 해도 역시 외도일 뿐이다."

어떤 이가 물었다.

"속인은 처자식이 있는 몸이라 음욕을 없애지 못하는데 어찌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까."

答曰 只言見性 不言狀慾
답왈 지언견성 불어음욕
但得見性 狀慾本來空寂
단득견성 음욕본래공적
不假斷除 亦不樂着 縱有除習
불가단제 역불락착 종유제습
不能爲害 何以故 性本淸淨故
불능위해 하이고 성본청정고
雖處在五蘊色身中 其性本來淸淨
수처재오온색신중 기성본래청정
染汚不得 法身本來無受
염오부득 법신본래무수
無飢無渴 無寒熱
무기무갈 무한열
無病 無恩愛 無眷屬
무병 무은애 무권속
無苦樂 無好惡 無長短
무고락 무호오 무장단
無強弱 本來無有一物可得

"견성 못하면 머리 깎았다 해도 역시 외도일 뿐이다"

맹인이 어떻게 햇빛을 분간할 수 있겠는가. 어리석은 사람도 이와 같아서 지금 축생의 무리에 떨어졌거나 빈궁하고 하천한 무리에 태어나서 살려해도 살 수 없고, 죽으려 해도 죽을 수도 없다.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도 직접 물어보면 "나는 지금 즐거운 것이 천당과 다름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모든 중생은 태어난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니 역시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다.

如斯惡人 只緣業重
여사악인 지연업중
若見自心是佛 不在剃除鬚髮
약견자심시불 부재체제수발
白衣亦是佛 若不見性
백의역시불 약불견성
剃除鬚髮 亦是外道
체제수발 역시외도
問曰 白衣有妻子
문왈 백의유처자
狀慾不除 憑何得成佛
음욕불제 빙하득성불

이런 악인은 업장이 두텁기 때문이다. 만약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을 안다면 머리와 수염을 깎을 필요가 없고, 속인도 또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견성하지 못하면 머리와 수염을 깎았다 해도 역시 외도일 뿐이다."

어떤 이가 물었다.

"속인은 처자식이 있는 몸이라 음욕을 없애지 못하는데 어찌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까."

無强弱 本來無有一物可得
무강약 본래무유일물가득
只緣有此色身 卽有飢渴寒
只緣有此色身 卽有飢渴寒
지연유차색신 즉유기갈한
熱 病等相 若不 卽一任作
熱 病等相 若不 卽一任作
열장병등상 약불잠 즉일임작

대답한다. "단지 견성만을 말했지, 음욕은 말하지 않았다. 음욕이란 본래 공적하니 견성만 하면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다. 또 쾌락에 집착하지 않으니 남은 습기가 있다 해도 방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품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이다. 비록 오온의 몸속에 있다 해도 그 성품이 본래 청정해서 물들지 않는다. 법신은 본래 느낌이 없어서 주림도 목마름도 없고, 추위도 더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은혜와 사랑도 없고, 권속도 없고, 고락도 없고, 좋고 나쁨도 없고, 장단도 없고, 강약도 없어서 본래부터 한 물건도 얻을 수가 없다. 단지 이 몸이 있기에 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질병 등의 모습이 있게 된 것이니 만약 속지 않으려면 즉시 한번 맡겨보아라.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법공스님

도안사 조실

비가 갠 수락산 자락의 오후는 티끌 하나 없이 청명한 자태를 뽐냈다. 도안사 오르는 길목을 수놓은 벚꽃, 정갈한 나뭇가지들, 그리고 세월을 지켜온 풋말들. 만물의 일상은 그렇게 제 모습을 지켜가며 하루를 채우고 있었다. '정치도 정치다웠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이에게 이런 산사의 일상은 더없는 후련함을 안겨준다.

"길이란 무엇인가?" 불쑥 던져진 질문. "곧고 바른 것을 길이라 하지…." 산사가 청명한 이유는 이것이었던가! 정치가 혼탁한 이유 또한 이런 철학이 없기 때문이었던가!

4 · 13 총선이 끝난 지금 정치현안과 남북문제 등의 난제들을 풀기 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 스님의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그리고 상생(相生)과 화합의 부처님 정신만 따른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야기 내내 답답한 정치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래도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교육에 대해서도 15년 강백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충고를 잊지 않았다.

'너'와 '나' 분별하니 싸움판



- 1918년 서울 生
- 35년 봉선사에서 사미계 수지
- 40년 서울 개운사 대원암서 한영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 49년 동국대 문리대 졸업
- 49년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 65년 가평 현능사 주지
- 64~1982년 법주사, 백양사, 불국사, 화엄사, 청암사 강원 강사
- 82~1994년 도선사 심달학원 강사
- 현재 도안사에 주석

—정치란 무엇입니까.

▲백성을 잘 살게 하는 바른 길이 곧 정치입니다. 백성이 잘 살려면 바르게 다스려야 합니다. 바르게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길로 안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누구보다도 바른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전에 "진실의 가르침을 덮개로 삼고 부끄러움을 고삐로 삼으며 바른 생각을 재갈로 하여 지혜를 훌륭한 말몰이로 삼고 바른 소견을 안내자로 삼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부처님 말씀에 따라 정치를 한다면 불국토가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사람이나 미물이나 생명이 있는 것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보듬고,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정치관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혼란스러운 것은 이런 부처님 사상과는 반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끝난 국회의원 선거는 몇 가지 숙제와 희망을 동시에 남겼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역감정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큰 화두로 남겨졌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지역감정이 심화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감정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은 정치인들에 의해 조장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야전인 수격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이용한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탐욕과 분노심을 조장하고 스스로가 그것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감정은 결코 고유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부딪힘 속에서 자꾸만 번져가는 오온의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지역감정은 우리처럼 좁은 땅덩어리에서는 암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서로를 죽이는 공멸의 길입니다. 실체도 없는 오온에 집착하면 번뇌와 망상만 깊어지는 법인데 우리 정치인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늘 힐뜯고 대립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조금도 굽히려 하지 않습니다.

지역감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자리이타(自利利他) 정신이 필요합니다. 자(自)와 타(他)의 상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기심은 정치를 바른 길로 이끌 수 없습니다. 자기와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소아적 발상에서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일반대중을 자기와 같이 여겼습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미물들에게도 자비를 펼쳤습니다. 나 외에 모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요, 지역감정을 없애는 요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투쟁과 반목, 질시가 난무한 상극의 정치만이 존재해 왔습니다. 문제는 늘 그런 행태가 비판받아왔고 그래서 개혁의 목소리도 계속됐지만 변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우리 정치인들은 이 나라에서 자기들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안중에 백성은 없는 셈이죠. 이것은 정치의 기반이 대중에 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가장 무서워해야할 정치인들이 백성을 우습게 아니 자기들끼리 싸움을 벌여도 부끄럽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상극(相剋)의 정치는 백성을 무시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이 상생(相生)의 원리를 강조하신 것은 모든 만물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입니다. 상생은 화엄 연기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독립적인 존재성을 가질 수 없고(無我) 서로 의존한다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현상은 무수한 인(因)과 연(緣)이 상호관계하여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든 무엇이든 결코 혼자서 이뤄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직 '저 사람이 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백성이 바로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싸움이 일어날리 없습니다. 제스승인 박한영 스님께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것도 바로 '화합'입니다. "싸우지 않고 중의 마음을 바르게 가지고 공부하라"는 가르침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공부란 다름아닌 '남 미워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상생의 지혜가 담긴 가르침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무엇이 세상을 유지하고 무엇이 세상을 이끌고 있으며 어떤 법이 있어 이 세상을 제어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세상을 유지해 가고 마음이 세상을 이끌고 있다. 그 마음이 한 법이 되어 세상을 능히 제어하느니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그 '마음'이란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국민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 '마음'과 정치인들의 '마음'이 상생의 조화를 이뤄야만 정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새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내 방에 걸려있는 저 글을 보세요. '人人人人' 사람 인(人)자가 모두 넷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올바른 도리를 깨우쳐주는 글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도리를 다해야 사람이다'라는 뜻이지요. 모름지기 정치인들은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사람 도리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젠 사람다운 도리를 지키며 정치를 해야 합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모범이 돼야 한다고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는?



자연산 茵陳蒿는 깊은 산속에서 수년~수십년간 자라면서 한겨울 눈덤이 속에서도 파란잎과 줄기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철쑥을 말합니다. 구생복지원 임행스님은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고양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잠인진쑥(茵陳蒿)을 3년동안 채취하고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 보사구에서 정식 허가(정선 제1-3허)를 받아서 현대식 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로서 자신있게 권해드리오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함께 성불하십시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종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구생복지원 강암행스님

각종 암과 불치병 예방이나 치료에 특효라는 자연산 상황버섯, 기간지천식 · 흉역기침에 특효라는 가래엿, 관절 · 골다공증 · 골절에 쓰이는 토종홍화씨 등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십시요.

순수익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간이 나쁜사람.
2. 항상 피로한 사람.
3. 위장이 나쁜사람.
4. 변비가 있는 사람.
5. 고혈압, 저혈압.
6. 정력 회춘에 좋습니다.
7. 생리통, 생리불순.
8. 냉대하, 신경통.
9. 당뇨, 황달.
10. 불멸증 입원환자.

※ 남은 여생을 산과 물좋은 곳에서 황토방 생활을 하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주 문 처 080-988-4774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 //www.yasenginjinssook.co.kr

덕망있는 스님을 모십니다

가락시대부터 비룡산이란 지명으로 지형이 좌청룡, 우백호의 형상을 이루는 천하의 명산, 명당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고적 사찰터로, 최초 공개합니다.
이 성스러운 터에 새천년에 불사를 이르키고자 하시는 덕망있는 스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飛龍山

비룡산 군터 특징

- 소재지는 김해시 생림지역
- 교통은 부산에서 30분, 김해시내에서 15분거리
- 평수는 전체 16,000평(임야), 사찰터 주변 3,000평 분할가능
- 사찰터까지 차 진입가능 / 기존 도로에서 도보로 5분 거리
- 사찰터 후면은 괴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있음.
- 수백년 수령의 소나무 등 사찰터 전체를 감싸고 있음
- 사찰터 앞면은 낙동강이 흘러 들어오는 형상임
- 비룡산 내에는 여러 개의 토굴이 있음

※새천년 불사를 통하여 큰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스님께서는 별도 연락을 요망합니다.

■문의 : ☎(051)463-5567~8

김해 비룡산 지주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 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02)3437-8282 ◑

'저 사람이 나다' 생각하면

다툼 생기지 않고 공존의 길

스스로 약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맑고 깨끗한 정치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한 정상회담이 6월에 열리게 됩니다. 민족화합과 종교간의 교류도 희망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자세로 남북대화에 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여야가 화합하고 영남과 호남이 화합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북한과 화합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다음에는 남북이 같은 동족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나'와 '너'를 가리면 대화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북한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처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감싸안고 가는 것이 같은 동포로서의 도리입니다. 불교는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대가없이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북한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 자비사상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비가 넘쳐나면 싸울 것이 없습니다. 사상도 무너뜨리고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신화동주(身和同住) 구화무쟁(口和無諍) 의지무위(意知無違) 견지동해(見知同解) 계지동준(戒知同遵) 이화동균(利和同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육화(六和)'는 불교의 화합정신이자 부처님의 사상을 나타낸 말인데 '몸으로는 화합해야 같이 살 수 있고, 입으로는 화합해야 싸움이 없다. 뜻으로는 화합해야 어긋남이 없고, 소견이 화합해야 이해가 같고, 행색이 화합해야 같이 따라갈 수가 있고 이익을 보면 화합해야 평등하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육화'의 정신으로 남북한이 머리를 맞댄다면 통일은 분명 앞당겨질 것입니다.

—정치도 불안하지만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도 걱정스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오랫동안 강원에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학교문제가 가장 걱정이 됩니다. '학교가 무너졌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학교교육은 오염돼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정치인들과 기성세대의 무책임 때문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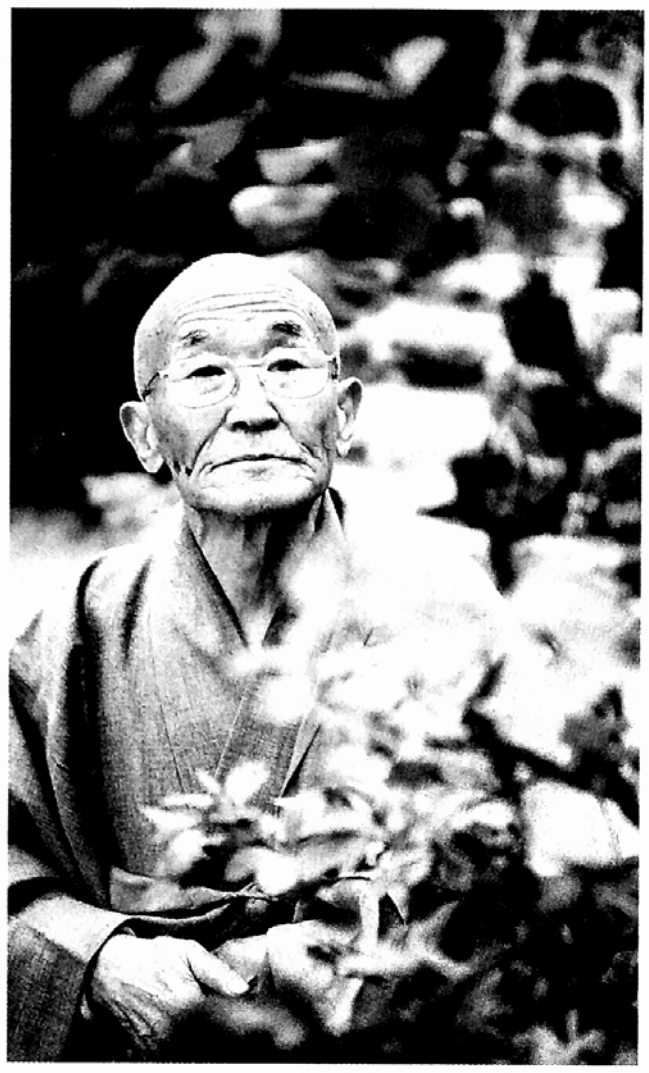
수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선지식을 찾아 나섭니다. 스승을 찾는 이유는 스승으로부터 교화받고 보살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곧 인도자가 되는 것이니 교화하여 피안의 길에 이르게 합니다. 이처럼 학교는 선지식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학교가 선지식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 학생들이 어디에 의지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은 어디입니까. 15년 넘게 승가교육에 몸담아 오신 경험에 비춰 말씀해 주시죠.

▲교육은 곧 '수신제가(修身齊家)'입니다. 자기 몸뚱이를 닦는 것이죠. 우리가 경전을 배우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선을 배우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음 속으로 아무리 광대한 자비심을 품내면 무엇합니까. 실천해야 그것이 비로소 자비 아니겠습니까.?

강원에서 학승들을 가르치며 항상 강조한 것은 '착한 심성'이었습니다. 착한 심성을 갖게 되면 '너'와 '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극락입니다. 착하게 사는데 미운 것이 어디 있고 고운 것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런 착한 심성에서만이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실천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집니다. 아이들에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깨달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부는 왜 하는지, 스승은 왜 공경해야 하는지,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의 기회를 주지 못한다면 참 교육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법공스님은 틈나는대로 대웅전 앞 뜰 정원의 꽃들과 대화를 한다. 세상 만물 '이심전심' 아닌 것이 없다고 스님은 말한다.

—스님께서 공부하시던 때와는 지금 교육이 너무나 다른 것이 많다고 느껴지실텐데요.

▲그래요. 북 중에서 가장 큰 북이 인연북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스승을 잘 만나는 것처럼 귀한 복이 없어요. 스승을 잘 만난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을 만난다는 것이니까요. 나는 운허스님께 경을 배우고 대강백이신 박한영스님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특히 서울 개운사 대원암에서 한영스님에게 받았던 가르침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당시 개운사 대원암은 가장 유명한 강원이었는데, 은사스님께서는 많은 지식을 얻도록 하기 보다는 올바른 지식을 얻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은사스님께서는 경전을 보는 것 자체가 계·정·혜 삼학을 닦는 일이라고 강조하시면서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듣는다고 생각하고 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옛날에는 공부하고 수행하는 일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스승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믿고 부처님을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문득 무엇인가 하나를 깨닫게 되면 배고프고 추웠던 고통들이 일순간 사라지니 '아, 이런 게 공부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스승께 한없이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진정한 스승도 없고 고통을 환희심을 바꾸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니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불교의 사회참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종교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합니다. 종교인들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기수행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역할도 종교인들의 몫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불교의 사회참여도 이런 방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대담=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 '육화' 정신이야말로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강조하는 법공스님.

고 침 267호 '큰 스님과의 대화' 효란스님은 오봉사 조실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지묵스님의 스님이야기

■지유스님

心心難可尋(심심심난가심) 마음마음 한 마음은 정말 찾기 어렵네.
覓時 徧法界(관시 변법계) 꽉 펼치면 호호탕탕하여 법계에 충만하고
擡也 不容針(착야 불용침) 좁게 접으면 현현밀밀하여 바늘 하나도 용납치 아니하네
我本求心 不求佛(아본구심 불구불) 내 본래 구하는 마음으로 부처를 구하지 말지니
了知三界 空無物(요지삼계 공무물) 삼계는 공하여 한 물건도 없다는 걸 알아야 하느니라.

달마의 〈혈맥론(血脈論)〉중 한 부분이다. 나는 그때 정말 어려운 시기였다. 강원 생활을 중도 하차하고 방황하던 때였으니까. 홀연 발길닿는 대로 인연따라 간 곳이 금정산 원효암(元曉庵)이었다. 여기서 겨울 한철을 지내면서 밤으로는 저녁 예불·후에 지유(知有) 스님으로부터 선문촬요(禪門撮要) 앞부분을 배웠는데 지금까지도 달마의 혈맥론이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원효암 주불 관세음보살상에 대한 영험스런 이야기가 지금도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취도 않고 성공적 수술

20여년 장좌불와 오후불식

일제시대 때의 일이다. 관세음보살상이 뛰어나서 당시 고위직에 있던 이가 일본으로 모셔가서 집안에 모셔두었는데 불이 나 버렸다. 다시 딴 집으로 옮겼으나 역시 불이 났다. 불보살님을 경우에 맞지 않게 모셔갔기 때문에 과보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은 다시 원래 위치로 모셔두게 되었다. 그리하여 원효암 주불 자리를 되찾은 것이다.

스님은 6.25 때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해인사 치문반 때에 6.25를 만났다고 했다. 등진 출가를 하고 동산(東山) 선사를 은사로 계를 받은 후에 강원에 입방한 것이다. 농구화를 신은 괴뢰군은 관음전에 책상을 놓고 임시 사무실을 차려서 스님네의 신분과 성분을 점검하였다. 줄을 세워서 하나하나 심문 비슷하게 신상을 조사할 때에 어떤 이들은 어름하게 대답해서 따귀를 얻어맞기도 했다. 스님 차례가 되었다.

"왜 출가를 했는가?"

"세상사가 무상하기 때문에 출가를 하였소."

스님이 대답하자, 별 말을 않고 대열에서 다음 차례로 넘어갔다. 스님은 그들에게 끌려 다니면서 고생고생을 하다가 문득 밤중에 꿈을 꾸고 죽자사자 어둠 속을 토끼뜀 뛰어 구사일생 탈출에 성공하였다. 그때 쌀을 잘 일어서 돌 없이 밥을 잘 짓는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피곤한 중에 잠을 자다가,

"어서 일어나서 도망쳐라!"

하는 공청(空聽) 소리에 무조건하고 깨어 일어나 뛰었다고 한다. 이 일은 수행자에게 내려진 불보살님의 큰 가피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지유스님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 어느날 운전이 미숙한 이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 크게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야 하게 되었다. 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 마취제를 주사하려고 하자 스님은 거절을 하면서,

"괜찮으니 그냥 수술을 하시오." 하고 침대 위에서 누워서 수술을 기다렸다.

옛날 인욕선인은 아상(我相)이 없는 까닭에 몸이 토막토막 잘리는 극한 상황에서도 끄떡없이 인욕하였다는 이야기가 〈금강경〉 법문으로 나온다. 우리 범부 중생은 자존심인 '나'라고 하는 상이 있는 까닭에 바늘만 살짝 닿아도 아픈 것이다. 선정삼매(禪定三昧)에 들어서 아상이 사라져 버리면 아프다고 호소할 내가 없고 호소를 받을 나도 없어진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성취하셨을 때의 삼매는 해인(海印)삼매였다. 염불삼매, 독경삼매, 주력삼매 등등도 많고 8만4천 삼매 무량묘의를 우리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와 이해타산이 앞서는 것이다. 쉬우면서도 어렵다.



그림 · 문병성

지유스님은 마취제를 맞지 않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더구나 실밥이 아물기 전에는 침대 위에서 거동도 삼가 해야 하는데 그대로 걸어다녔으니!

스님은 우리나라에서 선문촬요 일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주석을 어떻게 꼼꼼하게 달아서 강의하시는지 모른다. 길지 않은 시간에 스님을 모시고 지낼 수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한다.

20년 가까이 장좌불와(長坐不臥)에 오후불식(午後不食)을 하시고 계신 스님 곁에서 겨울을 나면서 어느 날 밤중에는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부산 서면 거리까지 내려가서 다시 절에 온 적도 있었다. 지금도 여행을 즐기는 편이긴 한데 그때는 몽유병환자처럼 밤새 산이고 거리를 헤매었으니 방황치고는 길었다. 마음 마음 한 마음이여. 정말 찾기 어렵네. 〈계속〉



앞으로 3개월간 '스님이야기'를 집필해 줄 지묵스님〈사진〉은 1976년 송광사에서 법흥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이후 주로 산사에서 공부하면서 수련회와 글쓰기를 통해 생활불교를 이야기해 왔으며 현재 승보종찰 송광사 총무로 있다. 펴낸 책으로는 〈죽비 짜는 아침〉 〈초발심자경문〉 〈산승일기〉 〈나마스테〉 〈날마다 좋은 날〉 등.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괴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康寧: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등 「치신(治身)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 로 화 정 본 포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엄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청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 격 정가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53)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원

효성양방 · 한방병원 무료치료안내



▲ 효성양방 · 한방병원 부분전경

천하의 명산 울산 가지산(경남도립공원) 자연공원안에 의료법인 태영재단은 현재 380억원을 투자하여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 · 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료법인의 자금과 불사(佛事) 시주금으로 마련한 4백억을 투자하여 건축허가분 실버타운 300여실을 증축하고 한국목탑(木塔) 형식의 3층 법당(150평규모), 세계 최대규모인 108미터 열반와불(臥佛)상과 10만위(位)의 영골(靈骨)을 모시는 영묘사리탑(靈廟舍利塔), 열반 와불의 테마공원 등 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신병, 신경성 질환, 당뇨병, 중풍(와사풍 포함), 관절염, 위장병,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이 완치될 때까지 무료로 치료해(약 1개월안에 치료 가능, 입원실 사용, 식대 각자 부담) 드리고자 하오니, 전국의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의법 료인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이사장 직통) 대구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 8—4

◆ 모든 질병과 성인병은 의혈만 잘 풀어버리면 완벽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 스님들 주변에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무료치료의 인연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대간 위 텅빈 초등교… 아이들 어디 갔을까



◇용문산과 국수봉 사이의 전망대 바위.

백두대간 속으로 〈14〉

추풍령↓국수봉↓큰재

봄 산은 그대로 꽃이다. 다투어 피어나는 연초록 새싹과 소나무의 짙푸름이 이루는 조화는,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을 무색케 할 만큼 다채롭다. 거기에 더하여 산벚꽃이라도 점점이 흩뿌려지고, 산기슭 이곳 저곳에 분홍빛 진달래가 꽃물을 들이기라도 하면, 산은 그 모습 그대로 한송이 커다란 꽃이 된다.

봄 산, 이 거대하고 찬란한 생명의 꽃봉우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말문이 막힌다. 하지만 오히려 안심(安心)이다. 새들의 노랫소리가 더없이 청명하다. 어설픈 수작을 거두니 귀도 밝아지는 모양이다. 짝짓기가 한창인 새들의 노랫소리엔 꽃물이 배어 있다. 어디 엄마 품 같은 기슭에 기대어 내 몸에도 꽃물이나 들일까 보다.

◇금산에서 내려다 본 추풍령면. 1905년 경부선 철도가 놓이면서 시골벅적한 한 시절도 있었지만,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말 그대로 가을 낙엽 신세로 변했다.



영마루에 서서, 바람도 쉬어 넘고 구름도 자고 간다는 추풍령 마루에 서서, 사방을 둘러본다. 쉬어 넘는 바람도, 자고 가는 구름도 없다. 애당초 추풍령은 고개랄 것도 없는 고개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이중환도 『택리지』에서, 백두산에서 태백산까지의 산에 대해서는 "모두 어지러운 산이고 깊은 두메이며, 위태로운 봉우리와 겹쳐진 멧부리"라 했지만, 태백산에서 소백산을 거쳐 남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에 대해서는 "태백산과 비교할 바가 못 된다"고 적고 있다. 특히 "속리산 아래에 있는 화령과 추풍령은 작은 영"이라 하고는, "작은 영이라 하는 것은 령지에 지나간 산맥"이라는 자상한 설명까지 곁들여 놓았다. 그렇다. 추풍령은 령지나 다름없는 백두대간의 등성을 넘나드는 야트막한(약210m) 고갯길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 땅의 으뜸 고개이자 가장 부산한 백두대간의 마루가 되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말항뿔이던 문경 새재의 지위를 경부고속도로의 개통(1970년 7월 7일)과 함께 고스란히 옮겨온 것이다. 국토의 남북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의 지리적 의미가 도로에 의해 재조정된 줄은 예라 하겠다.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경부고속도로 위의 추풍령은 백두대간의 마루를 지나는 고개는 아니다. 백두대간의 한 부분인 눌의산 자락을 타고 넘긴 해도 마루에서는 남쪽으로 살짝 비껴앉아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추풍령 휴게소에는, 해발 고도는 230.5m이고 경부고속도로 214Km 지점에 있다는 설명과 함께



◇4번 국도 위의 추풍령. 88 서울 올림픽 성화 봉송 때 세운 표지석 뒤로 눌의산이 보인다.

생명 충만한 봄산은 '엄마의 품'
금산 석재 채굴로 벼랑만 남아

"옛날에는 문경 새재와 함께 한양을 잇는 유일한 통로였다"고 큼직한 글씨로 써 놓았는데, 이는 사실 왜곡에 가깝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추풍령은 새재는 둘째 추령에 비추어도 비중이 미미한 사잇길에 지나지 않았다. 사족 삼아 한 마디 더 보탠다. 백두대간의 마루를 지나는 추풍령은 4번 국도 위의 것이 진짜다.

관한 시비를 하느라고 또 발걸음이 늦어졌다. 추풍령을 지난 백두대간은 살짝 허리를 들어올려 금산(384m)을 오른다. 그러나 금산의 북쪽 귀퉁이는 거의 헐리다시피하여 아슬아슬한 벼랑을 이루고 있다. 이 땅의 척추가 거의 동강이 날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이 아담한 돌산의 상처는 오늘 시작된 게 아니고 두세기에 걸칠 만큼 뿌리가 깊다. 일제 강점기 때 이미 석재를 얻기 위해 과먹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1980년대 후반, 추풍중학교 운동장에서 찾아낸 일제가 박은 쇠말뚝과 연결짓고 보면, 단순히 석재를 얻기 위해 석산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정기를 끊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었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백두대간의 의미를 새삼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다행히 해방과 함께 더 이상의 훼손은 중단되었지만 1962년 철도용 자갈을 구한다는 이유로 다시 헐리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벼랑을 이룬 산꼭대기에 서니, 곧 무너져내릴 듯 어지럽고도 아찔하다. 결코 높이가 주는 아찔함이 아니었다. 경제 논리의 완고한 관성과 이미 통제력을 상실한 개발이라는 이름의 과괴가 일으키는 현기증이었다.

다행히 금산을 벗어난 백두대간은 아늑함으로 이어진다. 사방으로 보이는 게 없다 보니 오히려 산의 속 깊은 곳에 안긴 기분이다. 덕분에, 조금 전의 생채기를 쉽게 기억 저 귀퉁이로 밀쳐 낸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하자 이 일대에서는 제법 높은(502m) 봉우리다. 왼쪽으로 추풍령 저수지가 눈으로나마 갈증을 달래 준다. 지천으로 피어난 생강나무 노오란 꽃을 보며 겉노라니, 내 모습이 마치 첫나들이에 나선 병아리인 듯싶다. 괜히 뒤뚱거려 본다. 걷는 즐거움이 새다르다.

이렇게 걸어도 두어 시간 남짓이면 사기점고개. 입도를 따라 10분 쯤 나아가니 묘함산이 코앞이다. 이곳에서는 묘함산을 뒤로하고 시멘트 포장이 된 날씬한 도로를 따라 한참 내려간다. 발의 감촉이 유쾌하진 않지만 통신 중계소가 괴물처럼 올라앉은 묘함산을 오르는 것보다는 훨씬 좋을 듯싶다.

추풍령에서부터 묘함산 아래까지 거의 동쪽을 향하던 백두대간은 묘함산에서 다시 북쪽으로 허리를 튼다. 이 지점에서부터 추풍령면과 김천시 어모면을 잇는 고갯길(작점고개)을 가로질러 봉우리 하나를 넘으면 용문산 아랫자락이다. 이곳에는 조망이 좋을 뿐 아니라 쉬어가기 맞춤한 쉼터장도 있다.

용문산(710m)정상에서 국수봉 사이는 파도타기를 하듯 오르내림을 거듭한다. 그래도 용문산과 국수봉 가운데 쯤에는 전망대 구실을 하는 바위를 만날 수 있어 발바닥에 안긴 고통을 너끈히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부근에는 용문산 아래의 기도원에서 만든 엉성한 콘크리트 제단이 눈에 띄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야 말로 참된 기도라는 사실을 왜 모를까.

전망대 바위에서 크게 내려섰다 다시 솟구치면 국수봉이다. 눈 아래로는 상주시 공성면과 외남면에 걸치는 너른 벌판이 한눈에 들어온다. 먹지 않아도 주린 배를 달랠 수 있을 정도로 눈맛이 넉넉하다. 띄로 둘러쳐진 속리산 일대의 연봉들도 다기 두 다리의 힘줄을 불끈 살려 낸다.

국수봉에서부터 1시간 가량 줄곧 내리막길에 몸을 맡기면 큰재에 닿는다. 상주시 모동면과 공성면을 잇는 이 고개 또한 높이가 330m 정도에 불과한 편안한 고갯마루다. 공성면 쪽으로는 제법 경사를 이루지만 모동면 쪽으로는 높낮이가 희미할 정도다. 하지만 이 고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백두대간 위의 유일한 학교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폐교가 되어 우리 농촌의 피폐한 현실만을 증언할 뿐이다. 옥산초등학교 인성분교였던 이 학교는 지금은 부산 녹색연합에서 백두대간 생태학교라는 간판을 달아 놓았지만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아 을씨년스러움만 더한다.

교정 한귀퉁이에 천막을 치고 나니 하늘엔 어느새 별이 초롱하다. 대간 마루에서 뛰놀던 이 학교 아이들의 눈망울인 것 같아서 가슴 한 귀퉁이가 아릿해 온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할까. 아직도 고향을 지키고 있을까? 아니면,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의 나처럼, 서울 어느 귀퉁이에서 발도 숨이 막혀 질식해 버린 하늘을 올려다 보고 있을까?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사찰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팔모주름등 (핑크)





팔모주름등(빨강) 팔모주름등(연두) 팔모주름등(노랑)
팔모조립등 팔모주름등 보관형태 육각등
조립팔모등 원통등 차걸이등

⊙ 팔모주름등 특징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아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 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종이 팔각등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디자인 : 대구 여래기획
전화 : 053)426-3395~6

찬덕의 연잎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특허 제 122168호 찬덕 비단 연 잎으로
사찰에서 완성되는 공단 등을 보급합니다.

연등 전문 제조업체인 찬덕 연등에서 스님들께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공단 등 연잎으로 신도들의
불심을 모아 연등 불사를 할 수 있는 길을 펼쳐 드립니다.

〈납품형태〉 ■ 비단 연잎 ■ 등통+ 비단 연잎
■ 완성비단연등(법당용) 빨강 · 노랑 · 연분홍

공단(비단) 연잎등 완성과정



비단연잎 등 통 완성연등

찬덕 연등제작사 대표 김 기 찬 합장
☎ 0347)792-6288, 794-4055 / FAX 0347)792-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내 마음에 켜 놓은 불이 곧 연등불

만 분이 넘는 헤아릴 수 없는 분들이 깨우쳐도 한 부처님이십니다. 오늘은 우리들과 똑같은 생일로 정해놓은 축제날입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깨달으심이 들이 아니지만 굳이 오늘로 정해놓으신 것은 모르는 여러분을 위해서 모두 방편으로써 날을 정해놓으신 겁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생일잔치 해달라고, 축복을 해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일과 더불어 똑같이 한 생일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등을 켤 때에 올해는 자유로써 켜게 했습니다. 정해놓지 않은 이름으로서 여러분의 마음들이 어떤가 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연등이라는 것은 부처님 당시에도 연등불이 계셔서 '너는 이 다음에 석가가 되리' 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타의에서 말씀 해주신 게 아니라 자의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연등불께서 말입니다. 바깥으로만 끄달리지 마세요. 연등불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부처님 상이지요. 여러분이 다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안에 연등불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연등이며 그 안의 불은 바로 연등불이라고 하죠. 연등불께서는 자기가 한 것대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리드해 나가고 이끌어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연등을 켤 때에 내가 돈이 나 얼마 내고서 불만 켜고 나가면 다 된 걸로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피나는 겁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마음을 다듬고 다지면서 치열한 문제가 많았던가? 일체 만물만생과 더불어 같이 구르면서 바른쪽으로 돌아서 왼쪽으로 돌아오고, 왼쪽으로 돌아서 바른쪽으로 돌아오고 하는 수레와 같은 이 인생살이를 말입니다. 거듭거듭 태어나고 거듭거듭 좌천하고 거듭거듭 오르고 내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 고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헤매 돌았는가. 그러니 더불어 한마음으로서 내 가정과 사회와 모든 일체 만물만생들과 더불어 같이 한 등을 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지면서 마음의 불을 켜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 등불은 방편으로써 모든 봉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등이라는 이 자체가 아주 귀중합니다. 내 한생각을 어떻게 냈느냐에 따라서 불이 밝고 어두운 것이지 불을 무조건 등에다가 켰다고만 해서 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불을 그렇게 진실하게, 아주 단정히 마음을 다스리고 한 번 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차츰 알아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생일이 따로 있고 태어남이 따로 있고 그런 것도 널리 생각해보면 하나도 따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날이 생일이라고 "나 생일선물 안 해줘?"이러고들 하는데 그 생일이 자기는 생일이라고 하지만 산하대지에 만물만생을 길러주던 그 어머니의 노고는 얼마나 많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히려 생일선물 해달라기 이전에 가슴속 깊이 눈물을 머금고 고통을 이기시던 그 어머니의 생각을 한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한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남녀를 막론해놓고 다 그 어머니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널리 생각을 한다면 어머니는 광대하고 무변하다. 어머니는 자비하시다. 내게 죽음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대신 하려고 하신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름해서 방편으로 쓰기를 산하대지의 만물만생을 기르시는 어머니라고 이렇게 존칭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머니는 대단하시고 영원하신 겁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이지요. 또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일체 한 울에서 태양빛처럼 비내리듯 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그 광대한 뜻이죠.

수레와 같은 인생살이

그러니 아버지가 없어도 아니되고 어머니가 없어도 아니되고 그 가운데 인간들이 없어도 아니되는 거죠. 그런 고로 우리가 이 연등 봉축을 할 때, 나 하나를 빼놓지 말고 모두가 더불어 같이 마음을 내야 부처님의 마음과 직결된 마음이 통신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새해초에 맞는 촛불재나 4월에 맞는 초파일이 있을 때 어떠한 생각으로 하십니까? 오며 가며 남들이 하니까 그냥 나도 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마음 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생사에 관한 건은 물론 더불어 세세생생에 닥쳐올 일에 대해 그 한생각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올해는 여러분이 연등을 켜시는데 적든지 많든지 자유로써 하시라고 했습니다.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욕심이 있다면, 자기가 꼭 쓸 물건을 사야할 텐데도 돈 내기가 아까워서 쓸 물건을 제대로 사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등이 적고 큰게 문제가 아니고, 켜고 안 켜고 문제도 아닙니다. 등이 크면 돈이 많고 등이 작으면 돈이 적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서 하면 큰 물건을 살 수 있는 것도 됩니다. 그러나 돈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이만큼을 내서 꼭 그 물건을 사야만이 지금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텐데, 돈내기가 아까워서 그 물건을 사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봅니다. 이거는 모든 게 자유로써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하는 거는 공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유로써 공덕을 이루시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네들은 돈이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스님네들이 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모두 자기 몸 속에 있는 천차만별의 생명들을 조복받기도 어려워서 그냥 하루하루 시공이 없이 돌아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즉 공부 아닌 공부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까지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러분의 자유로써 져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살 때 자기가 쓸 만한 물건을 자기가 살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그림 · 최주현

마음 실체 없으니 자유롭게 쓸수 있어

공체로서 공용 · 공식하는게 살림살이

내마음 제불이 다 알아

그렇게 다스리면서 그렇게 대치하면서 이 부처님 법은 병만 낫게 하는 게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병을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 한생각으로서 병도 낫게 한다면 자기가 약사가 되는 것이죠. 한생각에 관하는 것이 그겁니다. 한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 천차만별로 나오는 그 관법입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가 관해서 자기가 약사가 돼서 병을 고치고 자기가 관세음보살이 돼서 가난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하죠. 자기가 그토록 진실하게 자기 뿌리에게 '너만이 에너지를 줄 수 있어서 나무가 푸르르게 살게 할 수 있다' 고 바로 굴려서 봤을 때 관세음보살이 되죠. 또 좋은 데로 못갔을 때에 진짜로 진실하게 관했을 때에 바로 지장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명이 짧았을 때는 진실하게 관하면 칠성 부처가 되고 물에서 간 사람이 있어서 진실하게 관하면 자기가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납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을요.

그런데 여러분은 스스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고, 내가 아무리 여러분이 부처라고, 99%가 부처라고 해도 영 귓전에도 듣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진실하게 마음의 불을 켜면 연등불이 계신 것이고, 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 그저 내가 사는 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무시하면 연등불은 안 계신 겁니다. 본래 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건데도 자기가 불을 켜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기만 하면 뭘 합니까? 불을 켜야 불이 들어오는 걸요. 같은 연등을 가지고 불을 켜느냐 안 켜느냐에 따라서 연등부처가 바로 자기 자신의 연등부처가 되고 안되고 그런 거죠.

우리가 말로만 달달달달 외워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 나'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라고 한 뜻은 뭐냐? 하나로 돌아간다는 뜻과 더불어 홀로이 섰다는 뜻입니다. 전부 각자 같이 돌아가면서 개개인 하나하나가 천차만별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독존이라고 한 뜻이 뭐냐. 모두가 각자, 하나하나 그 개개인이 다 높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운전하는 기사들이 없다면 우리가 참 곤란스러울 때가 있겠지요. 기사는 기사대로 높습니다. 노동하는 분들은 노동하는 대로 높고, 또 농사꾼은 농사꾼대로 높습니다. 거지는 거지대로 높구요. 그러기 때문에 평등하고 아주 광대무변한 것이죠.

오늘 연등을 켜실 때에 내가 아주 큰 문제를 해결 해야 할텐데, 이 등 켜는 덴 그저 쓱 이렇게 얼마 냈다가 혹 내가 등을 켰는데 이게 아니로구나 하는 분들은 대치를 하세요. 난 여러분이 울고 불고 하는 거 싫거든요. 사람이 꼭 말을 해서만이 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부처가 아니게요? 우리가 부처될 수가 없게요? 바로 우리 마음들이 마음먹고 있는 것을 우주 삼라대천세계에 일체제불의 마음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거짓이 하나도 없거든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얼마 내라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마음내고 하는 것을 이 우주 공간에서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하다못해 벌레의 생명까지도 알고 있어요, 어서어서 공부해서 여러분도 그 뜻을 아셨으면 내가 힘이 덜 들텐데 말입니다. 이끌어가는 길잡이로서, 여러분과 동일하게 같이 걸었으면 하는 생각이 아주 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오신통도 넘어서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상대성을 알고 우리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아는 그 도리 속에서도 벗어나야 이 지구 안에서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몸 안에도 벗어나죠, 이 몸도 아주 세계의 위성이라고 할 수 있고 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주머니입니다. 이 몸체가, 그러나 여기에서 벗어나서 지구에서 벗어나서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난다면 진짜 만족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 우리가 한발한발 진실하게 디딥시다. 그리고 진실하게 한 손 놀리는 것을 한생각으로서 꼭 일으킵시다.

돌고 도는 물질의 세계

부처님 법이 한 백지장 사이를 넘으면 된다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만 실천하기가 그렇게 멀고 멀어서 중생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신 날이 없기 때문에 가신 날도 없습니다. 또 부처님은 하신 바도 없고 안 하신 바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가 부처님 도량 아님이 없으며 전체가 나 아님이 없고 내 모습 아님이 없습니다. 모습이야 천차만별로 돼 있을지언정 어찌 마음이야 둘이겠습니까. 그래서 한 손을 위로 들고 한 발로 땅을 디뎠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해서 생겨났지만 그 물질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화해서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서 생명체가 됐는데 생명체만 됐다뿐이지 마음의 도리를 몰라요. 그래서 기어보기도 하고 누워보기도 하고 살아보니까 그 역경이 말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경험을 쌓고 체험을 하고 발전을 이루고 이렇게 인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올라오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이렇게 광대하게 벌어진 것이 왜냐하면 어느 물질이든 지수화풍이 곁들여지지 않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지수화풍으로 생겨서 지수화풍을 개별적으로 다시 또 먹고 삽니다. 한데 뭉친 혹성, 별성, 유성, 이 모두가 그 자체로서의 지수화풍을, 이게 좀 적으면 이걸로 보존하고 저게 적으면 저걸로 융합시키고 이렇게 해서 모자라는 것을 채워서 씁니다.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마시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밀교강좌 테이프 판매



혜정 대정사님이 강의하신 '밀교강좌' 방송분을 TAPE 제작, 판매합니다.
혜정 대정사님의 주옥과 같은 법문 80일분량(20개들이 1SET)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번 테이프는 밀교의 교리와 수행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밀교강좌 TAPE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금수지다라니' 를 드립니다.

♣ 아래의 계좌로 입금후 전화를 주시면 댁으로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 065-01-0153-673
주택은행 : 061725-89-144651
예 금 주 : 최 종 웅
금 액 : 80,000원
문의전화 : (02)913-0133~4

묘법연화경 수량품병풍 파엽체 작품



항상 독경과 제목을 봉창하고 나서 연화경 수량품 작품을 쓴 파엽체가 있다. 그리고 그작품을 불단에 모셔놓고 기도드린 최상의 공덕의 작품임을 믿음이 바른사람은 믿을 것이다.
이 법화경 작품을 가정이나 사무실, 점포, 식당, 다방, 생활장소에 모셔놓고 작업 전 독경과 제목을 봉창하고, 업무을 보는 사람이라야 부처님과 호법신으로부터 수호하는 가호력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런 연후에 모든 재앙을 소멸하고 사람이 염원하는 모든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바라건대 허황한 과욕을 버리시고, 청정히 조성한 높은 법화경 파엽체 수량품의 작품을 모시기 바란다.
※ 묘법연화경은 각자의 마음자체인 것이다.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여기 석가모니본불님의 유촉받은 본불제자가 광선유포하는 "법화경 수량품" 파엽체 작품을 모셔다가 수행하여, 수량품 거울에 반조되는 진면목을 보기 바랍니다.

나 무 묘 법 연 화 경

보급가
1. 수량품 병풍 파엽체 작품 1점 10만원
2. 불자 제작작품 1점 3만원 3. 불자 친필작품 1점 10만원
4. 수량품 탑(60cm)파엽체 묵서 친필1점 20만원
5. 수량품 탑(60cm)파엽체 순금 친필1점 50만원
※ 수량품 작품을 모시는 분에 한하여 제작작품 불자 1점을 보시한다.
※ 각 사찰의 불사용으로 보시함 대웅전 현판글과 주련글씨도 주문받음

보급처 천 홍 사
대한불교대승연화회
연락처 : 0591) 746-7350 017) 552-7350

시와 칼럼

보덕현호선사 저

마음의 창



값 7,200원

새벽의 향내음 같고
아침이슬 같으며
짙은 안개같은 마음

늘 푸른 자연과 같고
청정수와 같으며
청순한 소녀의 가슴같은 마음

어둠속의 달님과 같고
새벽을 여는 샛별같으며
밝은 아침 햇살 같은 마음

푸른 하늘과 같고
허공과 같으며
바다와 같은 마음

- 본문 중에서 -

※ 구입안내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 명상시집 1. 정화의 빛 - 값 5,400원
2. 고향의 숨결 - 값 5,300원
3. 해 탈 - 값 7,200원

도서출판 정화사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510
(우)339-830
Tel : 0415) 867-4000
Fax: 0415) 867-4001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 · 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 그림(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복사품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대한불교 미술작품 판매망 http://www.korea-art-gallery.org http://www.mahamall.co.kr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2)2242-0331, 2242-0255 (011)471-1996
E-mail : hbac.@chollian.net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0343)470-3116

부처 내속에 있으니 멀리 찾지 말라

☞ 15면에서 계속

고 목이 안 마르면 물을 안 마시고, 옷이 헐었으면 옷을 갈아입고,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또 몸이 안 아프면 안 먹고 이렇게 자유스럽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발전이 됐는데 마음적으로는 발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천대천세계의 일체 만물만생이 천차만별로 된 이 자체가 지수화풍 속에서 지수화풍을 먹고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포착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꿰뚫지 못했어요. 이 광대한 세상이 그대로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즉 없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그 물질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영원하다는 것! 물질이 허망한 게 아니라 무상한 거란 말입니다. 이 물질이 영원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영원하게 돌아가는 것을 한 손으로 꿰뚫어서 한 마음으로서 꿰뚫어서 포착한 것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다 꿰뚫었어도 그 꿰뚫은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전부 하나의 부처로 이름을 맡겨 놓은 겁니다. 어느 거 대상 하나를 따로 둔 게 없기 때문에 부처인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부처님은 삼라대천세계의 모든 일체 만물만생 그것을 꿰뚫어서 마음으로 증득했기 때문에 마음이 어디에 아니 닿는 데가 없습니다. 중생은 그것을 포착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가질 않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일체가 한마음서 나와

저가 자장면 얘길 가끔 하는데요, 보지도 못했고 이름도 모르고 먹어보지도 못했다면 생각이 안날 겁니다. 아마, 그죠? 먹고 싶은 생각도 없을 것이고 들어 보지도 못했으니 말도 못할 것이고 맛을 모르니 맛이 있다고 얘기도 못할 겁니다. 그런 거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꿰뚫어서 알았기 때문에 모든 일체 만물만생에게 마음이 아니 가는 데가 없다 이겁니다.그러니깐 부처란 말입니다. 내가 나를 깨우치지 못하고 광대무변하게 영원히 돌아가는 이 도리를 포착 못했기 때문에 중생인 것입니다.

왜 중생이냐? 지혜를 넓히지 못하기 때문이죠. 보지도 못하고 맛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니까 마음이 갈 리가 있나요? 항아리 속에서 맴돌다가 몸이 없어지면 사대로 흩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모습을 다 정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모두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모습도 자기가 정하는 것이요, 마음도 자기가 정하는 것이요, 살림살이도 자기가 정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포착해서 완벽하게 알면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법이자 부처님의 법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것을 가지고 뭐 '그때 그 시절에 그분이 나오질 않았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을 것을…' 하고 부처님한테 원망을 하고 이러시지만 우리 선배인으로서 참으로 이 전체를 포착한 분이 만약에 부처님이시라면 그 감사함을 어찌 말로 다 하리까. 그 광대무변한 법을 포착해서 49년을 설하고 자기 생을 다하면서까지 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뿐입니까? 그렇게 포착했기 때문에 어느 곤충 하나도 그분의 모습이 아닌 것이 없고, 그분의 마음이 깃들여지지 않은 데가 없고, 그 모든 만물에게 나투지 않는 자리가 없다 이겁니다.

모두 여러분이 지혜를 넓히지 못해서 하나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발목을 빼지 못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지혜가 넓다면 마음은 체가 없으니 뛰어넘을 것이고 만약에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다면 내 가정이라는 항아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말입니다. 마음이야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유로써 마음을 내지 못하니 이거 무슨 까닭입니까. 마음내는 일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어려운 게 아닌데 말입니다. 자유스럽게 마음을 턱 내서 한바탕 춤을 추면 될 것을, 그리고 피리를 불고 날아다니면 될 것을, 이렇게 좁은 소견으로서야 어찌 이 세상만사를 다 포용하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부처님이 오신날은 해년도 없고, 월도 없고 일도 없고 찰나도 붙지 않는 자립니다. 우리에게 항상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중생은 일체 만물만생한테 다 주지 못하지만 본래는 그렇게 돼 있어서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될 수 있는 자유자재력이 있습니다. 모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내지 못해서 넓게 쓰지 못하고 그것을 물질적으로만 자꾸 포착을 하려고 애를 쓰니까, 정신적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문제는 깨달은 분은 만 분이 깨달았든 10만 분이 깨달았든 하나의 부처인 것입니다.

그건 왜냐? 모든 것이 진리가 그대로 돼있는 것을 포착한 거지, 그대로 돼있지 않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대로 진리가 돼 있는 것을 포착하고 증득 한 것이지, 일부러 만들어 놓은게 아니다 이 소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은 같은데 어딜 가든지 지혜를 넓혀서 그릇을 크게 해 놓은 사람은 담는 것도 많을 것이요, 그릇을 조그맣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담길 것이요, 그 차이 뿐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광대무변해서 이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여러분을 들이고도 되남고 들이고도 되남는 그러한 공양의 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 공양을 한 그릇 올리고 꽃 공양을 올리고 또는 다기물을 올리고 촛불을 켜고 향을 켜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감사의 뜻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모르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나큰 보배를 네가 가지고 있노라고, 일러주셨으니 얼마나 자비하신 분입니까? 너도 지수화풍으로 뭉쳐져 있고 나도 지수화풍으로 뭉쳐져 있었노라. 그러나 지수화풍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거니라. 흩어졌다 다시 모이면 또 형성체가 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들이 한데 뭉치고 몸이 한데 뭉치면 아무리 큰일도 못해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들이 흐트러지면 몸도 흐트러지게 돼 있습니다. 몸이 흐트러지니 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와 같이 마음도 천연적으로 한데 합쳐진 블랙홀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불바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주 공간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형성체입니다. 즉 말하자면, 천차만별로 돼 있는 물질을 형성해 내는 공장이라 이겁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발전을 해서 금속도 쓰고 전력도 쓰고 이렇게 어디든지 닿지 않는 데가 없듯이 부처님의 마음도 그렇게 닿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마음이 따로 있어서 부처님의 몸이 따로 있고 부처님의 도량이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숭배하기 이전에 '너부터 알라, 너의 마음 가운데 부처가 항상 나투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일체 마음이 한데 모여서 구성체를 만들고 그 구성체가 나가서 작용을 하게끔 돼 있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부부가 한데 합쳐지니까 하나의 구성체가 돼서 또 다른 생명을 형성해냈지 않습니까? 두 분이 모이지 않는다면 어린애 낳을 수가 없죠? 그렇듯이 모든 마음이 합일체가 돼서 그대로 돌아가는 까닭에 물질인 우리의 몸이 영원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체죠, 공식이구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공체면서 공생이면서 공용이면서 바로 공식이다' 라고요. 이게 불법의 기본적인 바탕이면서 바로 우리의 살림살이입니다. 우리가 모두 정신계에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 뜻을 포착할 수 있다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이것을 해야겠다 한다면 모든 일체 제불이 한마음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언짢은 것은 좋은 걸로 돌리고 좋은 것은 감사하게 놓아야 합니다. 일체가 다 한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가고 옴이 어디 있으며 부처님 오신 날이 어디에 따로 있겠습니까.

한발 딛고 한손 든 도리

여러분! 여러분의 이 몸뚱이가 바로 법당입니다. 몸뚱이 속에 부처가 들어 있거든요, 몸뚱이가 헐어지면 자기 주인이 몸을 고치지, 몸이 몸을 고치는 법 보셨습니까? 어느 집이든지 집이 헐어지면 그 주인이 고치지 헐어진 집더러 고치라고 합니까? 그래서 물이 물을 못 씻고 자기 손가락이 자기 손가락을 못 자른다 이 소립니다.

이 광대한 법을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수화풍으로 구성이 돼서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그 먹고 사는 자체가 바로 우리가 갈구하는 부처님의 물이요, 부처님의 원기요, 부처님의 공기요, 부처님의 땅입니다. 모두가 하나로 이렇게 결성해서 돌아가니까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색이다 공이다 할 말조차도 없기 때문에 공도 없다, 없는 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굳이 말을 하려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깨달은 사람 앞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루만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봉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세생생을 두고 우리는 벌써 물을 먹어도 이것은 부처님의 물이요, 부처님이라는 것은 어느 한 개별적인 부처님이 아니고 전체가 마음이 하나로 돌아가니까 하나로 돌아가는 구성체가 한데 합쳐진 전체의 부처님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피예요, 아니 그렇습니까? (물마심) 이거를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우리는 온기가 지나치게 되면 고열이 되지요. 또 피가 지나치면 백혈이라는 둥 심장 관막증이라는 둥 이런 게 발생하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로써 표현을 하죠. 그리고 모든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놓죠. 즉 말하자면, 땅의 지기란 말입니다. 땅의 지기와 태양의 온기와 모든 것을 포착하는 것이 나무입니다. 또 수분을 끌어들여서 산소를 만들어서 사람한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손상하면 안된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같이 공급을 해주고 서로 먹고 서로 사는데 나만 살자고 다 잘라버리면 내가 죽습니다.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나무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발로 땅을 딛고 한 손을 위로 쳐들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게 정도가 지나치면 일이 잘못되고 일이 생깁니다.

이 사대가 돌아가는 건 지수화풍이 공전을 해줘야 돌아가죠. 지수화풍이 근원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몸뚱이 속의 생명들이 모두 내 아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자생중생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근본인 진짜 자기가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있는 줄 알았으니 믿고, 또 모든 고는 거기에서 원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으면 그 원인이 된 고를 다 없앨 수 있다 이 소립니다. 마음은 자유자재할 수 있는 거니까 말입니다. 물질로써 약을 만들고 의학을 발전 시키고 과학을 발전 시키고 이러지마는 이 마음의 발전이라는 것은, 이거를 한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대는 로케트가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몸으로 축지법을 썼다고 본다면 그 차이가 어떻습니까? 정신 계발과 물질 개발이라는 게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 그것도 물질이고 이것도 물질인데 어떤 게 우수합니까? 몸으로 축지법을 하는 것보다 로케트 올라가는 게 더 우수하겠죠? 그러니까 정신계는 무한대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정신계를 발전 시킬려면 나부터 믿고 알아서 내 자생중생들부터 제도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이 제도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아님이 없으니 바로 내 한마음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공해서 돌아가니 주인공이다.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이것이 한꺼번에 같이 돌아가는 것, 이게 주인공 자체다. 내가 그래서 맷돌에다 가끔 비유를 하죠. 맷돌에 물건을 집어 넣어서 갈아낼 때 맷돌 돌리는 사람의 마음과 동시에 같이 돌아가니까 이게 주인공이다. 주인공 자체가 죽는 법은 없어요. 영원한 거죠. 우리가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살지만 이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나오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가 뒤따르는 것은 어떻게 물건이 돼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고가 뒷받침 되죠.

보세요, 수없는 모습들이 있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가지고 나올까요? 자기가 마음 먹고 행동하고 말하고 산 대로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면 그 모습 대접밖엔 못받아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고 믿고 이렇게 말합니다. 개로 태어난다면 개 대접밖엔 못 받습니다. 그것 하나만 봐도 전체로 돌아가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나가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고 그게 포착이 돼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됐고 그런 고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소립니다.

예를 들어 강도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전자에 내가 어리석고 몰랐을 때의 내 모습으로 봐라, 또 잘못하고 어리석고 욕심많고 그런 사람을 봐도 옛날에 내가 모를 때의 내 모습으로 봐라, 그것은 아주 자비스러운 마음을 전달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악한 마음이 상대적으로 대립이 된다면 영원토록 그것이 얽히구 설켜서 돌아가니깐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모습으로 보고 모를 때의 내 행동으로 보고, 가난하든 부자든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얕보지도 말고 항상 당당하게 건전하고 생동력있게,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자유를 얻어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 평생이라고 해 봤자 얼마나 됩니까. 한철 캠핑 나왔다가 그저 잠시 살다가 가는 그 순간에 세세생생에 영원한 이 도리를 포착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이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한다고 하고 무겁게 짊어지고 다니지 마세요. 공부도 그렇습니다. 공부도 왜 무겁게 짊어지고 다니면서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시때때로 항상 모든 것이 공분데 말입니다. 아이, 고놈의 거를 달달달달 외울려고 그냥 정신을 다 쏟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외운 걸로만 얘기를 하려고 하니 그게 씨가 먹힙니까? 물맛이 좋으니 나쁘니, 뜨거우니 차니, 아무리 따져봐야 한번 먹여주는 것만 못하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세세생생의 모두를 한데 합친 마음으로서 공양 한 그릇을 감사하게 올렸습니다. 또 아름다운 마음으로서 꽃 한 송이를 올렸고, 지혜로운 마음으로서 물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또 생동력있게 자비스런 마음으로 향 한 개비를 올렸고 그 밝은 마음으로서 형상적인 물질의 초가 아니라 내 마음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착하고 알려면, 나 주인공! 내 영원한 친구!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 그 친구만 포착해 내면 그것은 사방이 툭 터져서 자꾸 자꾸 알아집니다. 모든 것을 내 영원한 친구, 더하고 덜함도 없는 친구,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 내가 울면 너도 울고 내가 고생을 하면 너도 고생을 하고 내가 굶으면 너도 굶고 내가 도둑질을 하면 너도 도둑질을 하고 이런 친구가 바로 불성입니다.

항상 내 모습으로 보라

그런데 가까운데서 부처님을 찾지 못하고 멀리 바깥에서 찾으니 그게 찾아집니까? 정말 부처님의 마음을, 부처님의 골수를, 부처님의 뼈를, 부처님의 가죽을, 살을, 모조리 다 파악하려면 나부터, 내 속에 부처가 있다는 걸 알고, 나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부터 알았으면 내 속에 있는 자생중생들부터 제도해야 하니까 모든 걸 한마음으로 녹여 포착시키고 같이 돌아가야 몸도 건강합니다. 너·나가 있어서 대립이 돼서 돌아간다면 몸도 건강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가정도 화합하지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 마음으로서의 공양을 이렇게 성대하게 한 그릇을 올린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눈물이 날 지경이죠. 이 맛을 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맛을 못 본 사람들은 무의미할 겁니다. 내 말이,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아는 사람은 정말 뼈가 아프도록 감사함을 느끼고 또 감사함을 느낍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너만이, 너가 있음으로써 다 있노라. 너를 알면은 나를 알고 일체를 다 알수 있느니라. 그렇게 해서 모두 나를 알고 본다면 하다못해 풀뿌리 하나 곤충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이 전부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 있는 붙어서 사는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지구에는 다 쓸모가 있습니다.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어요. 공존해서 돌아가면서 역할을 분담해서 일을 해 나가는 각자의 소임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치를 넓게 포착을 못한 사람은 '에이구! 요것 때문에 귀찮아 죽겠고 요것 때문에 그냥... 모두' 이러시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몸뚱이 속을 좀 보십시오. 이게 지구라고 생각하고 혹성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뭐 별거 다 있죠, 이 속에. 보기 싫은 것도 있고 징그러운 것도 있고 뭐 아주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혹성을 움죽거리게 하고 이 마음도 나오게 하고 저 마음도 나오게 하고 또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뛰어다니는 고마운 친구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어요. 어떤 미물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오늘 연등을 다는데 이거는 참 모두 그 마음의 중심의 지조를 지키면서 항상 이 자성 중생과 한마음으로서 된 주인공, 이 자체를 바로 각자 마음자리에 다 불을 붙이세요. 그러면 내면세계나 바깥세계가 아주 밝아집니다. 밝아지는 것도 여러분이 지혜로운 마음으로서 굴려야 밝아집니다. 하여튼 모두 중심을 지켜서 중도로서 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욕과 패기와 광대한 자유를 갖게끔 정신계를 기릅시다.

※위 법문은 1995년 5월 7일 사월초파일 법문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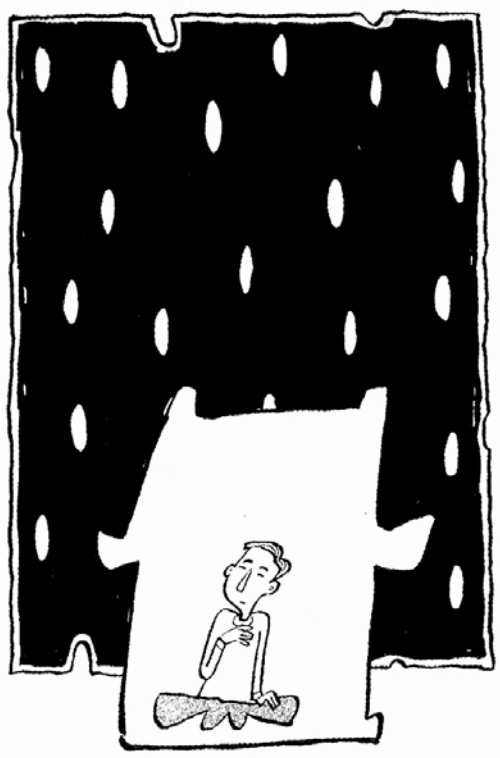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내몸 자생중생부터 제도해야 정신계 발전

가끔은 언덕을 넘는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탈종공고

탈 종 공 고
대한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법하
◇성 명 : 박 경수
◇법 명 : 법 성
◇사 찰 명 : 충남 보령시 청화면 장현리
천 축 암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이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0. 4. 24

구인구직

제6기 무료강좌안내
⊙ 따주기 ⊙ 수족침요법
⊙ 침구 ⊙기공
2개월간 주1회 교육
통신교육도 가능
※지회및 분회 개설할 분도 연락요망
한국전통민간요법학회
02)2246-7477
011)9090-1049

사람을 찾습니다.
◇성명 : 박 정태 (정주스님)
◇본적 : 전남 신안군 진도읍
◇주소 : 부산시 부암3동
부친 병세 악화, 생전에 상련 원함.
0631)242-6137
017)674-0508

행자(男) 모집
본 사찰에서는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21세기 불교를 이끌어갈 행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인원 : 00명 · 간간 : 4월 15일~5월 30일
· 연령 : 만19세 ~ 35세
· 학력 : 고(재)졸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학력이 되지 않는 자는 행지수련 기간 중 검정고시를 볼 수 있음
문의처 0342)719-0408~9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선원 주지 합장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348)
952-790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나주 불화사)
0613)
337-3440
/344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
2234-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파주보덕사)
※ 보시금 드립니다.
0348)
352-7905

부전스님(비구) 모집
서울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로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부전 스님을 보시고자 합니다.
◇나 이 : 35~45세
◇승 랍 : 10년 이상
◇인 원 : 0명
◇구비서류 : 수행 이력서, 승적 증명서
011) 9781-2862 (노진)

새로운 도량입니다.
100년 대계를 세우고서
평생 절에서 계실 심신
깊은 보살님을 모십니다.
(40~50대)
재 절을 세우고저 원을
내신 분을 전화주십시오.
0563)335-0092
(보경사)

토굴에서 정진하는 비구승입니다.
탁발을 위해
천도제 · 49제기 · 기도및
법회 보아 드립니다.
필요하신 사찰에서는
도움 주시는 마음으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561)773-8640(경주)
011)562-8640
동로 합장

기도하실 분
100일 이상 기도하실
보살님을 모십니다.
(숙식은 무료, 연령제한 없음)
천년고찰 영동
중 화 사
0414) 742-2057

봉은사 종무원 모집
◇나 이 : 30세 미만 ◇성 별 : 남성 불자
◇직 책 : 총무 주임
◇자 격 : 4년제 대졸 이상, 정보통신 기능자 우대
◇구비서류 : 이력서(신행 이력 포함), 자기 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접수 마감 : 2000년 5월 10일(우편 접수 가능)
◇접 수 처 : 봉은사 종무소
(전화 : 011)511-6070/4)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99)
932-5706

강좌

사주 명리학 강의
★ 6개월 완성 ★
초보에서 완성까지(스님직강)
(사주, 택일, 궁합 작명등)
※스님 佛者 환영 ※
월 · 화 · 수 오후 2시부터
인천 032-504-1387
H.P 011-9046-9903

불교발전의 획기적인 모델
- 한학기 3천명의 신입신도 -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가장 엘리트스님 배출을 목표- 공부와 수행 · 모든지원)
통신불교대학 · 인터넷 불교 대학 접수중
대구 053)474-8228 /011)560-5968
(선착순 10명)

별장지 전원주택지 암자터 안내
happy 700 평창을 아십니까?
인간의 생체에너지 활성에 가장좋은 700고지에 위치한 평창 강원도 특유의 ■어난 산새와 맑은 계곡 물이 휘감아 흐르는 곳에 부지조성이 끝난 별장지를 분양합니다.
※ 가족묘지 (명당자리)도 분양 합니다
◆위치 : 둔내 스키장 뒷편
◆총평수 : 10,000평
◆평당가 : 5~8만원
◆분양평수 : 300평이상
◆거리 : 서울에서 1시간 50분
018)230-8048
018)462-0709

移轉 公告
본 무량종 총무원을 아래와 같이 이전 하였기에
玆以 公告 합니다.
舊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 76-2
新 총무원 :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314-7
무량종 총림 은암정사 051) 292-4586
2000. 4월 20일
■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314-7번지 종정권한대행
대한불교 무량종(총림) 은암정사 겸 총무원장 梁只隱 합장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5
059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수양, 기도하실 분
공부할 학생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99)932-5706

불교용품



◂ 달마상
45×70cm
(가로×세로)
※ 금강경10폭병풍
※ 자비동자
35×45cm
(가로×세로)
금모스님 합장 0561)775-2432

보이산차
40년생, 15년생 입하
칠지병치 소탁치
고산 오룡차 철관음
※ 염가판매 ※
전화주시면 견본보내드립
02)911-6798
017)406-6682
茶道里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맑고 향기롭게…
꽃 공양
◆불교전통 사찰 행사용꽃 전문
◆일반 생화 일절 도소매
◆화환 · 꽃바구니 · 신부화 · 웨딩꽃길전문
◆전국 꽃배달
淨我 꽃집
※ 금강자비회 초대 회장 윤 대현화 합장
남대문 꽃 도매상가 138
02)774-5886/011)737-4659

기타

국내 최초로 인터넷 화랑방 개설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korea art gallery [인터넷 화랑방]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홈페이지 http://www. korea-art - gallery.org
동양화 서예 서양화 선화 도자기 공예 디자인 초대작가들의 진시 작품을 공모 접수합니다.
02) 2242-0331 / 2242-0255
자유롭게 사고 파는 인터넷생활정보 무료 머물 사이트
홈페이지 www.memull.com

목조 건축물 보수
사찰 한옥, 통나무, 목조, 보수공사전문
◆ 못으로 시공하는 방수시트
◆ 페인트 제거제(단청)
◆ 목조, 석재, 세척제
◆ 방염성, 방부제
※ 영업사원 모집
02)3474-6232
(주) 동화특수 산업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832-0742

신비한 토종의 효능을 보급하는 산마을 토종
다슬기 농축액
100% 자연산
◆청정 참 다슬기
◆간기능 개선
◆피로회복
◆변비,소변 원활
◆신장기능 강화
051) 758-1673

불교조각 **고려 미술원**
문화재수리 단청, 개금, 조각기능보유등록 693호,1361호,1495호1853호
목불상,닫집,불단,개금,법당,내부불사 일체
충남 천안시 안서동 178-1(성불사 內)
0417)567-2600 011)421-5337
인터홈페이지
http://www.mainsoft.co.kr/Art.htm
※ 연락주시면 카다록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원 장 임영창 합장

사찰안내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흥3동
◆ 평수 : 1층 20평(공양간겸 방1칸), 2층 37평 (방2칸, 법당1)
◆ 특징 : 시설 완비
◆ 가액 : 답사후 가격 절충
011)430-3344
※꼭 하실분 연락 바람.

사찰 안내
◇위치 : 전북 완주
◇법당 : 25평
◇요사 : 40평
◇부지 : 130평
◇가액 : 2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011)713-5634

토굴터 안내
◆ 위치 : 여주군 흥천면 하다리
◆ 건물 : 20평, 주방, 거실 욕실, 보일러, 방2개
◆ 가액 : 건물만 750만원
011)9855-0801
019)225-4277

포교당 안 내
◆ 위치 : 서울시내
◆ 평수 : 80평 (법당 60평, 요사채20평)
◆ 시설완벽 (전통사찰에 버금감)
◆ 신도 및 불사미수금 기도비 인계함
◆ 가액 : 답사후 결정
011)303-6188(스님직접)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청송 교도소 근방(진보면 소재지)
◆ 건물 : 2층 양옥,2층 법당 1층 요사채,건평55평
◆ 싼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매 8,000)
053) 959-6333
011) 829-9120

사찰 (급)안내
◆위치: 경기 이천 소재(장호원) 99년 행정수도권 서울 근린지역
◆대지 437평, 법당 27평(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거실1 방3),요사 43평
◆가액 : 4억6천이나 급매로 절충하여 정함
◆교환가◆특징 : 1.취락시가지 확정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2.신고속도 건설중 서울50분대 3. 녹지푸른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36) 643-9051/017)430-9051

귀절지을 땅(임야1500평)
◆위 치 : 안동시 안막동 (시청서 5분) 2차선 신도로 접
◆별장, 실버타운, 기도원, 사찰적합위치최상 경관수려 (주차 15대 이상가능)
◆가격 : 9800만원 011) 301-4949
포교원 30평
◆위 치 : 전서울 성북구 전철역앞
◆평수 30평, 상담실, 대기실, 강의실, 법당
◆3층건물의 3층 전체(옥상도 단독으로 씀)
◆가약: 2천 5백 (1천6백에 월 40만원)
0502) 888-0119 (서울)

요양원터 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월명동 산17 (월명공원 근처) 미륵사
◆ 수익허가 면적 893m 대지300평, 건물 48평
◆ 가액 : 2억 (가격절충)
011) 9646-3220

요양원터 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월명동 산19-17 (월명공원 근처)
◆ 수익허가 면적 893m 대지300평, 건물 48평
◆ 가액 : 5천만원 (가격절충)
011) 9646-3220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
◆ 평수 : 290평, 법당22평 목조, 요사35평 기와
◆ 특징 : 포교최적지 기도도량
◆ 가액 : 1억 8천만원
0595)883-2448
017)856-361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 평수 : 1천평 법당, 요사, 용왕당
◆ 특징 : 산세수려, 기도도량
◆ 가액 : 1억 3천만원
0595)883-2448
017)856-361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사천
◆ 평수 : 4천평 법당, 요사, 산신각
◆ 특징 : 산세절경, 기도도량 최적지
◆ 가액 : 2억 3천만원
0595)883-2448
017)856-36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가평
◆ 평수 : 2500평 이상
◆ 건물 : 대웅전, 요사채 2동, 용화전, 용왕전, 산신각, 정각2개 황토방1개
◆ 가액 : 월세가능 답사후 절충
※ 입주가능, 공양주보살, 스님 구합니다
※ 인연닿는 행자스님(남, 녀) 모십니다.
0356) 582-0635/ 017) 708-0635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덕유산 자락
◆ 건물 : 임법당30평,황토방1, 요사채1
◆ 가액 : 전세 1천만원 (건물위치 좋음)
0597)962-3528
011)842-3525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영덕군 축산면 부곡1리 75
◆전체평수 : 1,997평 ◆대지 207평 40평 전통한옥 내 임법당 9~10평 사무실 7평~8평, 방 5개
◆국도에서 1km 내에 위치
◆도로 좌우로 2차선 완성, 주차장 완비
◆야산밑에 한덩어리로 묶여져 있음
◆주택지로도 좋고, 가족 묘자리로도 좋음.
◆가격 : 5천 5백만원
011) 655-3883

사찰 안내
◆위 치 : 서울시내 (지하철역 200m거리)
◆대 지 : 60평
◆건 물 : 2층법당·40평 1층요사 40평 도심포교당으로 최적이며 모든 내부시설 최고급으로 완비
◆가 액 : 3억 5천 (대출가능)
한국불사 02) 561-7791
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이나 암자 양도양수하실분 찾습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의령군 부림면 신반 공원 밑
◆ 대지 : 200평 법당8평, 야외법당 25평,요사채 12평-2동
◆ 가액 : 1억 2천만원
0555) 572-2462
011) 828-6006

사찰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북 청송 교도소 근방(진보면 소재지)
◆ 건물 : 2층 양옥,2층 법당 1층 요사채,건평55평
◆ 싼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매 8,000)
053) 959-6333
011) 829-9120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임화댐 인접
◆ 평수 : 450평,임야 680평 연수원, 기도원,복지시설 수양처,별장지,경관 최고
◆가액 : 평당 16만원
011) 594-3486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방 2, 주방 1, 법당옥상 사용가능
◆ 삼존불, 후불탱화, 신장 · 산신탱화, 시설 완벽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53)942-0700

과수원 하시면서 절 지으실 분
◆ 위치 : 밀양시 청도면 조천리 산207-2번지(사명대사 생가근처)
◆ 대지 : 2만평중 약 4천평 개간완료
◆ 길, 전기, 임시귀거할 가건물, 하우스 있음, 계곡깊고, 저수지 바라 보임, 추천 과수목 : 호두, 메실, 단시감
0551)296-7226
017)286-7226

도심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전 고속버스터미날, 시외버스터미날에서 도보로 5~10거리
◆ 평수 : 대지106평,건평65평 법당,사무실,식당,방 등
◆가액 : 2억
011)455-1080

불자 세상보기

무차별적인 살인범죄가 줄을 잇고 있다. 무법천지를 연상케 할 정도다.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취급되고 있다. 특히 이들 범죄는 하나같이 살해동기가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병리현상이 이미 위험수준을 넘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평소 악감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차례로 찾아다니며 사흘 동안 4명을 연쇄적으로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렸다가 지난달 25일 구속된 천모씨의 행각은 자못 충격적이다. 개평 2500원 때문에 같이 노름을 하던 두 사람을 모두 칼로 찔러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중태에 빠졌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개평 2500원 안 준다고
오락실 자리 비키란다고
아버지에게 꾸중 들었다고

늘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살인'

천씨는 12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1시간 후에 2년 전 자신이 노점상을 할 때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다른 한 사람을 또 살해하고, 14일에는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한 부부를 숨지게 했다. 더욱이 천씨는 경찰조사에서 모두 10명 가량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그런가하면 24일에는 17살의 청소년이 동네 오락실에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는 고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그것도 얼굴과 배를 찌르는 등 잔인하기까지 했다. 8일에는 철강회사 회장부부 등 9명을 연쇄살인해 붙잡힌 정두영 사건이 세간을 놀라게 했었다. 정씨는 범행 당시 단지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하고도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3월에는 중학생이 아버지 꾸중에 분개해 알지도 못하는 여중생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는 욕구가 엉뚱하게도 우연히 마주친 여중생에게 표출된 것이다. 또 1월에는 늦게 다닌다고 훈계하는 부모를 살해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사건도 발생했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범행동기나 대상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수법도 잔인한 '정신이상적(사이코) 범죄'가 늘고 있는 이유를 "사회 전체가 도덕이나 남에 대한 배려보다 물질적·동물적 본능충족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아울러 "특정상황에서 좌절과 소외 등을 느끼면 발작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나누는 삶을 실천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들 범죄는 이처럼 특별한 이유는 없으나 '작은 분노'에서 출발한다는 점과 비이성적 분노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 이들은 사회나 가정에서 소외됐다는 자기 박탈감에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도 특징이다.

〈근본설일체유부 비나야잡사〉는 "성내는 자는 그 아비와 모든 형제를 거역하고 해친다. 성내는 자는 이렇게 잔인함이 많으니라"고 말하고 있다. 또 〈법화경〉에서는 "마음에는 세 가지 때(垢)가 있다. 탐하여 구하는 욕심, 성을 내고 화를 내는 진심(瞋心), 그리고 미련하여 어리석은 마음이 그것이다. 너희들은 이것에 의한 슬픔과 근심의 근본을 끊어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사회현상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윤리의식이 무너진 데서 초래된 비극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환경 처리시설 "짓는다" "안된다" 지자체들 다툼

부처님께서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다투는 대중을 향해 말씀하셨다. "욕심으로 다투는 것은 마치 어둠에서 나왔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감이고, 변소에서 나왔다가 다시 변소로 들어가는 것이며, 피로써 피를 씻으며, 악을 버렸다가 다시 악에 빠지는 것과 같느니라. 어찌 그 많은 생각 가운데 탐욕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해치려는 생각에 매달리느냐.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치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잡아함경〉

지역이기주의가 그렇다. 최근 환경처리시설 건설을 놓고 지역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자치단체들은 이같은 부처님 말씀을 곰곰이 되새겨야 한다.

송파구는 96년부터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추진했지만 성남시와 협의가 안돼 지난해 9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시킨 상태고, 강서구도 부천시와 이같은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또 은평구는 지난해 1월부터 고양시와 근접한 곳에 쓰레기 압축적환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양시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고, 중랑구도 지역 주민들과 구리시 주민들의 반대로 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 노원구 월계2동 한 주부가 무의탁 노인부부를 방문, 요구르트를 전하며 건강상태를 묻고 있다.

무의탁노인 140명에 매일 요구르트 전달

서울 월계2동 동사무소

'하루 100원짜리 요구르트 하나로 사랑을 전한다'

서울 월계2동 사무소가 공공근로 아줌마 6명을 고용, 지난해 7월부터 혼자 살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140명에게 매일 오전 요구르트를 전달해 오고 있어 화제다.

요구르트 구입비용은 15명의 동사무소 직원과 주민 8명이 한달에 1만원씩 내는 돈과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한 돼지저금통을 통해 들어오는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또 공공근로 아줌마들은 무의탁 노인들에게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집 청소와 식사 준비 등 힘든 일을 도와주고 노인들의 외로움까지 덜 수 있도록 이야기 상대가 돼 주기도 해 호평을 받고 있다.

부처님께서 카필라국 니그로다 동산에 계실 때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비교할 수 없는 베품이 있다. 병든 이에게 베풀면 두 배의 복을 얻고, 파계한 사람에게 베풀면 백 배의 복을 얻으며, 계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베풀면 백천 배의 복을 얻나니, 그 이상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분별보시경〉

꼭 필요한 곳에 내미는 자비의 손길이 값지듯 이들의 선행은 그래서 더욱 아름답다.

경찰서비스 '아직도 뻣뻣'

서울경찰청 '민원인 응대상태' 암행조사

친절구호는 요란한데 실제는 어떨까.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내 3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민원인 응대실태'에 관한 암행조사를 벌인 결과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이 밝힌 불친절 사례를 보면 경찰의 고압적인 말투가 가장 많이 지적됐고, 민원인 무시와 민원업무 떠넘기기, 편의시설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고압적인 말투의 경우는 교통예납금을 납입하러온 민원인에게 "얼마야, 5만원이야?"라든지, "전부 밖에 나가 있어, 얼른 나가"라고 하는 등과 같은 사례. 또 민원인들이 들어와도 '소 닭보듯' 쳐다만 보는 '무성의'와 '무관심'한 태도 등도 지적됐다.

이밖에 민원인의 접수를 서로 떠넘기거나 담당조사관이 비번이라며 접수를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잡아함경〉을 보면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악덕이 따라다닌다고 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겸손의 미덕을 잃음으로써 더 이상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다. 경찰은 봉사하는 자리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하심(下心)'이야말로 경찰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다.

대학 인사-학사 비리 '여전'

교육부 '감사백서' 발표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국·공·사립대학 및 시·도 교육청 등 1백24개 교육기관을 감사한 결과를 담아 지난달 20일 발표한 '감사백서'에 따르면 대학 인사·학사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에 따르면 재단이사장이 점찍은 인사를 교수로 채용하고, 자격미달 학생을 합격시켰는가 하면, 출석일수도 채우지 못한 학생에게 A학점을 주는 등 대학의 교수임용·입시·학사 비리가 만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반니항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벼슬에 있더라도 탐욕하지 않아야 하고, 승진에만 매달려서도 안될 것이며, 오욕락에 빠지거나 청탁에 개입해서는 안되느니라. 벼슬에 있으면서 그러한 다섯 가지 마음에 매달리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니라."

어느 집단보다도 깨끗해야 할 대학이 온갖 비리에 물들어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부정부패에 오염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라가 살려면 대학이 살아야 한다.

시론

가족의 인연

대문 밖에만 나서면 유혹하는 곳이 많은 오늘에도 과연 가정은 우리들의 마지막 안식처인가. 부부간의 불화, 서로 통하지 않는 부모 자녀간의 간격, 살벌해지는 가정폭력, 친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아이들, 남남같아지는 조손(祖孫)간, 높아지는 이혼률 등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볼 때 더 이상 우리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태롭다.

가족 구성원의 책임의식

'가정은 있되 가족은 없다'고 일컬어지는 오늘날의 가정. 어쩌면 가정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무너져 있는 탓은 아닐까.



이 정 덕
〈동국대 가정교육과 교수〉

맨드라미가 있는 마당, 꼬꼬닭, 멍멍이, 시냇물, 할아버지, 고모, 이모, 삼촌. 그리고 함께 짓던 농사일…. 이런 생활배경이 사라지고 급작히 나타난 콘크리트 문화에서 영위되는 현대 가족은 마치 망망대해에 뜬 조각배처럼 고독하다. 식구가 줄어든 핵가족이 이동에 편리해지긴 했으나 오히려 대가족에 비해 오손도손한 분위기가 사라지면서 가정의 구속력이 크게 약화됐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산업화·정보화 사회를 살면서도 피와 가문, 그리고 상하질서가 무너진 생활환경, 서로를 어설프게 본뜬 이기적 개인주의, 금전적 가치의 노예화 등이 우리네 가정 깊숙히 파고 들어 전체적으로 가정은 불안정하고 들떠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오늘날 가족문제의 요체는 이 약해진 가족 응집력을 어떻게 복원시키느냐에 달려있다. 현대의 가족은 모처럼 저녁 밥상 모여 앉게 되더라도 TV에 모든 것을 빼앗긴다. 고개는 TV를 향한 채 멈춰지고 서로 나누는 얘깃거리도 드라마 안에서 맴돌기 일쑤다. 서로를 느긋이 마주 보면서 내 이야기, 내 생각, 내 느낌을 진솔히 나누지 못한다. 함께 참여하는 가정협업(協業)도 없으며, 자기능력껏 직업을 얻어 자기 자신을 돌보기에 바쁜 우리는 가정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없다.

가족은 자주 만나야 한다. 그래서 대화를 해야 한다. 입으로도 말하고 눈으로도 말하고 서로 오가는 교감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대화에 서툴다. 왜그런지 어색하게만 느껴진다. 배려와 존중이라는 미명아래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자리잡기까지 한다. 몸으로, 눈으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마음으로 하는 대화는 말로 하는 대화보다 가족에게 진한 감동을 준다.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책상위에 장미꽃 한 송이를 꽂아 두고 남편 주머니에 사랑의 쪽지를 넣으며, 좋아하는 음식을 마련하는 일은 말로 하는 표현보다 더욱 좋을 때가 있다. 가족간에 애정을 깊게 하려면 '함께 하는 일'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집안 청소, 뜰 가꾸기, 음식 만들기, 나들이 등등. 내 가정을 항상 이웃과 열어놓는 것도 필요하다. 이웃과 함께 지내면서 정을 나누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핵가족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덕목이다.

가족 구성원은 '핏줄'이기 이전에 먼저 가족에서 '좋은 구성원'인가를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한 가족의 틀은 유지될 수 없다. 특히 요즘처럼 '혈연'보다는 '우정'을 더 필요로하는 가족관계에서 가족 구성원의 책임의식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감성'보다는 '이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사랑하고 관심갖고 이해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관은 혈연 중심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오늘날 가족을 더이상 혈연으로만 묶어놓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사회가 다원화되면 될수록 가정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지기 마련이다. 이성을 토대로 한 '우정'중심의 가족관계는 그나마 우리의 전통 가정을 복원할 수 있는 대체방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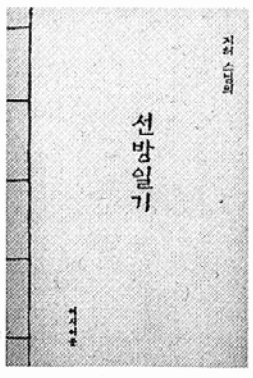
불교의 원시경전을 보면 부부간, 자녀간, 심지어 주종간의 윤리조차도 상호작용으로 보면서 평등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인연관과 연기설은 특히 오늘의 가정윤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처님이 가족 구성원 서로서로가 '혈연관계'보다 '인연관계'로 대하라고 가르친 것도 이같은 사상때문이다.

가정의 달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새로나온책

선방일기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



지허 스님 지음
B6 136쪽
값 5,000원

이 『선방일기』는 1973년 봄 『신동아』의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지허知虛'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토는 물론이고, 당시의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는 값진 글들이다.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가 곳곳에 스며 있는 이 글은,
새로이 발심하여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이들이나 재가불자, 그리고 불교에서
새로운 세기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수행의 거울이 되리라 생각한다.

"절만 보고 입산했다가 실상을 알고보니 세상에서 느낀 절망보다 더 큰 절망이 절간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대로 머무느냐, 하산하느냐이다." 선방의 숨은 이면이 때론 잔잔하게 또 더러는 치열하게 그려진다. 북 디자인도 내용에 어울리게 단아하다. — 문화일보(2000. 2. 23.)

'금단의 영역'으로 알려진 선방에서의 일상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70년대 초의 선방 풍속도로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선방의 전통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강원일보(2000. 2. 23.)

서울대 출신의 필자가 73년 봄 월간지 『신동아』의 논픽션 부문에 응모해 당선된 글을 예쁜 장정의 포켓북으로 꾸몄다. 일반인들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에서의 수행 풍경은 물론 세상을 보는 지혜가 각 장마다 번뜩인다. — 동아일보(2000. 2. 26.)

지허 스님에 따르면 절간에는 괴안도 일반도 없다. 정신과 육체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을 뿐이다. 선객들은 깨달음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사이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화두에 매달린다. — 한국경제(2000. 2. 26.)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선방은 일반인에게 신비의 장소이다. 그 때문에 산문을 닫아 걸고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가는 스님들의 모습이 때로 침소봉대돼 전해지곤 한다. 최근 선보인 이 책은 선승들의 선방생활을 진솔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경향신문(2000. 2. 29.)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여시아문에서 펴내는 주머니 속 대장경

101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교리 · 입문)
'20C의 창조자' '환상 문학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이너'라 불리우는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에게서 전해 듣는 붓다의 가르침, 그 핵심을 모았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후라도 공저, 김홍근 편역/ B6 변형 242쪽/ 값 5,500원

102 법수로 배우는 불교 (교리 · 입문)
불교의 법수는 일반적으로 쓰는 세속의 숫자와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묘리를 푼다.
이제열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201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생활불교)
궁극적인 깨달음을 노래하지만 그것보다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기초 수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초펠 스님 편역 / B6 변형 178쪽/ 값 4,000원

301 참선요지(參禪要旨) (선禪)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참선의 요지만을 담았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B6 변형 278쪽/ 값 5,500원

302 방편개시(方便開示) (선禪)
깨달음 그 자체보다는 궁극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晟) 스님 옮김/ B6 변형 330쪽/ 값 6,000원

303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선禪)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한형조 지음 / B6 변형 334쪽/ 값 6,000원

401 허공의 딸꾹질 (문학)
조선 시대 선사 44인의 선시 모음집
이종찬 지음/ B6 변형 282쪽/ 값5,000원

501 불성이란 무엇인가 (문화 · 학술)
모든 중생에겐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전치수 지음/ B6 변형 196쪽/ 값 4,500원

502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문화 · 학술)
황폐한 우리의 교육 현장에 던지는 붓다의 음성 '천상천하유아독존'
김종서 지음/ B6 변형 182쪽/ 값 4,500원

•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는 계속 출간됩니다 •

"절에 핀 벚꽃보니 소녀된 기분"

나눔의 집 할머니들 금산사 순례

"불심심는 기회" 비구니회서 주최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금산사로 봄나들이를 떠났다. 전국비구니회가 지난 4월21일 마련한 사찰순례 행사에서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주인공이 된 것이다.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관광버스에 올라탄 6명의 할머니들은 모처럼 만의 바깥세상 구경에 마음이 들떠 있었다. 나눔의 집에서 4시간 달려 버스가 도착한 곳은 미륵성지인 김제 금산사. 이곳에서 정성껏 준비한 공양을 마친 할머니들은 주지실로 안내됐다.

이자리에서 금산사 주지 도영스님은 "금산사는 전국에서 국보와 보물이 가장 많은 미륵성지"라며 "미래불인 미륵보살을 친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고 말하자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걸로 인사를 대신했다.

다담(茶談)이 끝나자 할머니들은 전국비구니회 총무부장 정성스님의 안내로 경내를 둘러 보았다. 특히 중국에서 3개월 전에 온 문명금할머니(84)는 불편한 몸에도 불구, 봉사자의 안내를 받으며 경내 구석구석을 참배하는 돈독한 불심을 보이기도 했다. 또 참배객들 중에는 멀리서 할머니들을 알아보고 달려와 반갑게 손을 잡아주는 이도 눈에 띄었다.

박옥련할머니(78)는 "사찰경내에 곱게 피어있는 벚꽃을 보니 소녀가 된 기분"이라며 "부처님께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길 빌었다"고 즐거워했다.



◇전국비구니회 총무부장 정성스님이 '나눔의 집' 할머니들에게 사찰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할머니들은 짧은 일정의 순례가 아쉬운 듯 차갑게 느껴지는 봄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구경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전국비구니회 사회부장 정덕스님은 "얼마전 TV에서 사할린 동포들이 사찰 방문하는 것을 보고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교계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이런 행사가 정례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21세기 새 여성상

- 정치적인 대표자격
- 경제적인 풍요로움
- 폭력거부 · 정보창출
- 생명 환경 보호 앞장
- 각양각색 문화 향유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4월 21~22일 해인사에서 '새로운 세기의 동반자-여성과 남성'이라는 주제로 제4회 여성불자 지도자 양성 연수교육을 가졌다.

전국 10개지부 및 2개지회에서 250여명의 여성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건국대 이영애 교수가 '21세기 새 천년 새로운 환경과 여성'라는 주제의 발표문을 통해 △정치적으로 대표되는 여성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여성 △폭력을 거부하는 여성 △정보를 창출하는 여성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여성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여성 등을 여성들의 위상 정립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외에도 여불련 활동의 경과보고 및 평가회도 열렸다.

도필선 기자

사찰 편액을 찾아서

④ 오세창의 개운사 · 봉은사 편액



위창 오세창(1864-1953)은 중국어 역관이며 개화사상가였던 역매(亦梅) 오경석(吳慶錫)의 아들로 '한성순보' 기자, 군국기무처 총재비서관, 만세보 사장, 민주의원, 전국애국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을 지냈다. 그는 1902년 개화당 사건으로 일본에 망명하던 중 손병희의 권유로 천도교에 입문하였고 만해 한용운 등과도 교유(交遊)하였으며, 3·1운동 때에는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사람으로 활약하다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위창은 근대 미술가 단체의 효시인 한국서화협회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 당시 제일가는 전각가였으며, 전서와 예서를 잘 썼던 서화가였다. 또한 그는 뛰어난 안목을 지닌 서화 감식가로 부친과 자신의 수집품을 바탕으로 〈근역서화집〉, 〈근묵〉등을 저술하여 한국서화사 연구의 단초를 마련하기도 했다.

서울 개운사 〈대웅전〉, 서울 봉은사 〈선종갑찰대도량〉, 서울 흥천사 〈종각〉, 장성 백양사 〈사천왕문〉, 부산 범어사 〈범어사〉, 진주 의곡사 〈비봉산의곡사〉, 선산 도리사 〈태조선원〉 편액 등이 절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그의 글씨이다.

서울 개운사 〈대웅전〉 편액은 본래 대각루 앞쪽에 자리하던 예전의 대웅전에 걸렸던 것을 증축하면서 옮겨 건 것으로 현재의 전각에 비해서는 다소 왜소한 느낌이 든다. 편액의 액판 좌측에 육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운 '吳世昌'이라는 방인이 있으며, 사찰에 걸린 글씨 가운데 알려진 것으로는 유일한 위창의 해서이다. 편액의 글씨는 결구가 건경(健勁)하고 필선이 온아(溫雅)한 서풍을 지녔다.

서울 봉은사 법왕루 뒤쪽에 걸려있는 〈선종갑찰대도량〉 편액은 선종 수사찰로서의 사격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이 편액 역시 지금의 전각보다는 훨씬 규모가 작은 예전의 법왕루(지금의 미륵전)에 걸려있던 것이다. 편액에 '佛紀 二九七十年 吳世昌'이라는 관지와 '吳世昌印'이라는 방인 도서가 찍혀 있어 1943년에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편액의 글씨는 청인(淸人) 풍의 전서로 결구가 단아하며 운필이 공정(工整)하다.

안병인 〈대한불교진흥원〉

'대 웅 전' 굳세고 온아함 엿뵈는 해서체

'선종갑찰 대도량' 청나라 풍 전서로 단아한 멋

건강백과

봄철 피부관리 요령

시내에 나가보면 사람들의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졌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한낮이면 시내 중심가에 민소매나 반바지 차림의 여성이 눈에 많이 띈다. 늘씬한 각선미를 자랑하고픈 여성들에게는 생기가 도는 계절이다. 하지만 피부질환으로 인해 외출이 두려운 여성들도 있다. 봄철을 맞아 손상되기 쉬운 피부관리 요령과 피부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1)피부질환

붙은 피부를 피곤하게 한다. 황사 등 각종 먼지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꽃가루가 날리기 때문이다. 또 햇빛의 자외선은 주름살과 각종 잡티를 만든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땀과 피지가 많이 분비돼 지성(脂性) 피부가 되기 쉬운 탓이다. 피부질환을 예방하려면 일단 외출할 때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만약 기미나 주근깨가 생기면 레이저 치료와 미백연고 등으로 치료해야 한다.

외출 때 모자 써 자외선 차단

목욕보다 샤워 자주 하도록

2)액취증

날씨가 더워지면서 몸에서 풍기는 냄새 때문에 외출을 주저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불쾌한 냄새의 주범은 바로 액취증. 피부밑 지방층의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된 진하고 끈적끈적한 땀을 겨드랑이 세균이 분해하면서 냄새가 나는 증상이다. 항균제가 포함된 비누를 사용하거나 겨드랑이의 털을 제거해 땀이 고이는 것을 막으면 악취 제거에 도움이 된다.

3)피부관리

첫째, 청결을 유지한다. 세안 후 철저한 클렌징과 함께 영양 공급으로 피부의 균형을 유지해야 건강하고 투명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둘째, 자외선을 조심한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모자나 양산,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셋째, 목욕을 자주 하지 않는다. 간단한 샤워 정도가 바람직하며, 목욕 후엔 수분이 함유된 보습제를 발라야 한다.

넷째, 충분한 수면과 안정을 취한다.

5일은 신나는 어린이날

"푸른꿈 키워라" 다양한 행사

교계단체 백일장 · 민요축제 · 만화영화 등 준비

어린이 날을 맞아 교계 단체에서는 4, 5일 양일간 새싹불자들을 위한 백일장, 민요축제공연, 그림그리기 대회, 놀이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사진은 지난해 목아박물관에서 열렸던 부처님그리기대회.

이중 주목할 만한 것은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 · 무용단이 5일 저녁 7시 국립중앙극장 소극장에서 공연하는 '봉축의 노래와 세계 민요 축제'. 3부로 나눠 펼쳐지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부처님 계신 나라' '젊에 갔었네' 등의 불교동요를 비롯해 화관무, 소고춤, 살풀이 등이 선보인다. 또 미국, 스위스를 비롯한 세계 8개국의 민요와 민속무용이 공연될 예정이어서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다. (02)725-7527

월간 '불광'과 '여주목아박물관'은 공동으로 5일 오전 10시30분부터 목아박물관에서 제6회 전국어린이부처님 그리기대회를 개최한다. '스스로 하는 어린이가 됩시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그림그리기 외에 '신나는 서바이벌 따라잡기' 놀이도 함께 펼쳐진다. (0337)885-9952

부천 덕유사회복지관에서는 4일 덕유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그리는 세상'을 주제로 '꽁망치대결'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놀이마당을 펼친다. 이어 오후에는 야외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다. (032)325-2161 이외에도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생태환경 그림그리기대회와 백일장, 놀이마당 등으로 꾸며진 '새천년 어린이큰잔치'를 5일 신도림가로공원에서 개최한다. (02)838-5627 또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3일 '만화축제'가 열린다. (02)2282-1100

새상품 성불화 '자비로'

가볍고 미끄럼 방지



등산화 전문업체인 '트렉스타'가 사찰을 찾는 여성불자들에게 착화감이 뛰어난 성불화 '자비로'(사진)를 새상품으로 출시했다.

천연가죽 뉴벅을 원료로 만든 이 제품은 하이퍼그립을 사용해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으며, 접지력이 탁월한 게 특징이다.

또 통기성을 고려해 고급삼베를 신발 바닥에 깔아 발 건강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특수 방수처리돼 눈비에 강한 장점도 있다. 가볍고 편안해서 사찰 순례나 가벼운 산행에도 적합하다.

크기는 225mm~245mm로 여성용만 나왔다. 가격은 6만9천원.

(051)309-3663

"스타선수와 함께 운동 배워요"

월곡청소년센터 방과후교실

월곡청소년센터는 4월29일 장위중학교 운동장에서 스포츠 스타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인 '함께하는 사람들'을 1일 강사로 초청, 방과후 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재근(육상), 장윤창(배구) 등 10여명의 스포츠 스타들이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탁구, 농구, 축구를 지도했다. 또 '팀별 릴레이'와 '세발뛰기' 게임도 즐겼다.

주부신행담

생활속에 있는 불법

누굴 탓하기전에 나부터 반성하고

마당쓸기 · 아이 돌보기 · 미소짓기

가정에서 작은 일부터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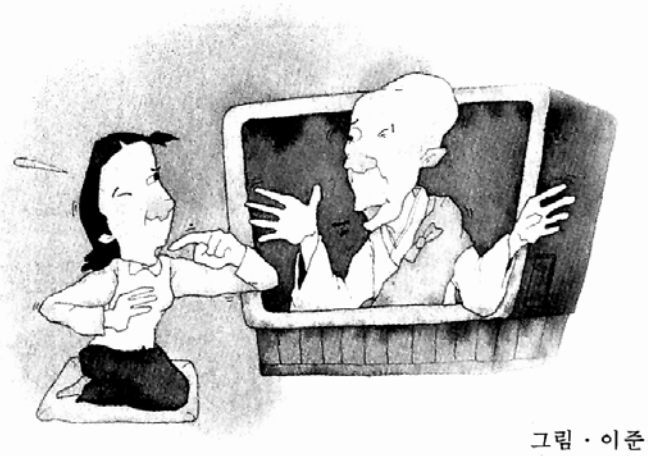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경제적으로 어렵고 마음이 자꾸만 작아지고 움츠러들려 할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마음선원 주인공을 꽉 붙잡게 되었다. 관하는 것도 잘 모르던 나에게 선원 스님들은 그저 믿고 맡기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 처음엔 어렵고 잘 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은 나는 관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고 매일 선원에 갔다. 그래야 좋다는 보살님들 말씀을 듣고 하루도 빠짐없이 나갔다.

나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3월부터 6월까지는 날마다 관하는 법이 늘어가는 것을 체험하면서 선원을 다녔다. 남편은 왜 가까운 절 두고 아이들 떼어놓고 울리면서 꼭 그 먼 곳까지 가느냐고 말렸다. 시어머니도 한 절만 꾸준히 다니지 이 절 저 절 돌아 다닌다고 나무라셨다. 시댁 친척 형님들은 너무 절에 빠져서 다니면 안된다고 불러다가 넌즈시 충고까지 하셨다.

그래도 내겐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다. 경제적인 어려움, 시어머니와의 갈등, 아이들에 대한 집착, 기타 등등 모든 것이 내 것인양 애착을 떼지 못했던 나를 반성하는 기회가 필요했다. 그런데 지역법회에서 혜성스님과 몇 번의 만남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감사해하며 선원을 다녔는데 7월부터 3개월간 방학을 하게 됐다. 내겐 3개월이란 기간이 너무도 길었고 또 법회에서 스님을 만날 수 없어 서운했다. 스님께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깨달아보자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불법수행에 들어갔다.

우선 대행스님을 친견해 보리라 마음먹었다. 아직까지 일요일 법회에는 참석해 보지 못했던 때였다. 아침 7시 절에 갔더니 벌써 법당이 꽉 차 있었다. 맨 뒤에 겨우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혜성스님이 오셔서 내가 앉은 줄 앞에서부터 내려가라고 하셨다. 다른 보살들은 화가 나서 그냥 갔지만 난 '그래 늦은 것을 인정하자'고 편하게 마음 먹었다. 순순히 마음을 돌리고 방석을 정리하고 아래 3층으로 갔다. 그곳에서 비디오로 큰스님 법회를 참석했다. 새 법당을 짓고 처음 보는 비디오 법회라 너무 좋았다. 모두들 큰스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찬불가를 들을 때는 환희심이 생겼다.

그 다음에는 꼭 대행스님을 친견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밤 10시가 지나서 선원에 도착해 법당에서 밤을 새웠다. 처음 해보는 철야기도였지만 나름대로 차례를 만들어서 기도했다. 〈천수경〉을 독송하고 좌선하고 휴식하고, 〈마음의 불씨〉 책을 읽고 좌선하고 휴식하는 식으로 말이다.

대행스님은 법문을 듣기만 해서는 안되고 생활에서, 가정에서 실천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셨다. '그래 스님 말씀대로 스스로 공부하고 실천하고 체험해 보자. 기복신앙이 아닌 제대로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는 불제자가 되자'고 다짐하고 나니 나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리고 그후부터 나의 체험은 신기하리만큼 계속되었다.

남편은 직업상 담배를 하루에 두갑씩 피웠다. 결혼하기 전에 나는 담배 안 피우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노래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중매로 만났다. 그 사람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해서 믿고 만나 결혼까지 한 것이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 다시 담배를 피기시작했다. 결혼하기 위해 잠깐 끊었다가 다시 피운 것이었다. 세상에 하루에 한갑도 아닌 두갑씩이나 피워대는 남편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성화를 부리다가 결국 내가 포기했다. 그래도 집에서는 별로 피우지 않고 회사에서 일을 할 때만 피우는 것이 다행이었다.

그러던 사람이 어느날 내게 '나 뭐 달라진 것 없어?'하고 물었다. 겉으로 보기엔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뭐냐고 되물었다. 그랬더니 남편은 '담배를 끊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배도 나오고 숨도 차고 그래서 담배를 끊었다는 것이다. 나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주인공' 그 소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 나왔다. 이제 나이 40이 되고 보니 모두들 건강에 신경을 쓰고 야단인데 남편만은 꿈쩍도 안하더니 자발적으로 그 어려운 담배를 끊었다는 것에 너무도 감사했다. 지금도 담배는 입에 대지도 않고 있으니 그것은 모두 주인공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나는 굳게 믿고 있다.

나는 4남매의 맏이로 태어나서 16살 때 엄마를 잃었다. 그 때부터 여름방학에는 식당에서 쟁반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겨울방학에는 브러시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동생들과 부모님을 도우면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친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할 때도 새어머니 눈치가 보이고 동생들이 돈 없어서 못 쓰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그러기를 몇 년, 결국 집을 떠나서 거의 가정부처럼 살게 됐다. 그렇게 돈을 모아 남동생 고등학교 공부를 다 시켰고 여동생의 미용실 학원비에 특강비며 모두 뒷바라지했다. 큰 남동생은 성남에 있는 직업훈련소까지 보내서 기술을 익히게 했다. 방황하고 다니던 막내는 내가 데리고 있었다. 새어머니는 나보고 그렇게 동생들 끼고 살아도 이 다음에 아무 소용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래도 나는 내 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헌신적으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런 세월이 어언 16년. 지금은 모두들 시집 장가가서 착실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런 동생들을 보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른다.

IMF라고 해서 모두들 살기 어렵고 힘이 든다고 TV에서 아우성이지만 다행히 저마다의 기술을 갖고 있는 동생들은 잘 지낸다. 처음엔 커다란 멍에가 내게만 지워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돈없는 남편과의 결혼생활은 경제와의 전쟁이었다. 그러면서도 난 참고 또 참았다. 새어머니는 아이들 두고 나와서 혼자 살라고 했다. 네가 어디가 못나서 그런데서 고생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난 아이들을 절대로 아프게 할 수 없다고 마음 속으로 다짐했다. 더욱 더 아이들 때문이라도 남편과 절대로 싫은 소리 안하고 하루하루를 넘겼다. 유년시절 아빠와 새엄마가 싸우는 것을 보며 공포에 떨었던 기억들을 내 아이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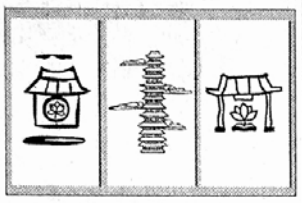
결국 내가 아니 주인공이 승리자였다. 지금은 형편이 많이 핀 것은 아니어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그때 주인공이 바르게 관단했기에 모두에게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음에 감사한다.

요즘 집근처 절로 새벽예불을 드리러 다니는데 30분을 걸어서 가고 오면서 자성본래불을 찾고 있다.

이젠 스스로의 방법이 있기에 당당하게 잘 지낸다. 누굴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반성하고 누굴 원망하기 전에 내가 그 모습이었다고 생각하면 화보다 웃음이 난다. 요즘 나는 작은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당쓸기, 아이들 돌보기, 시어머니께 얼굴 안 찡그리기, 남편 내조 잘하기 등 모든 것이 다 한생각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정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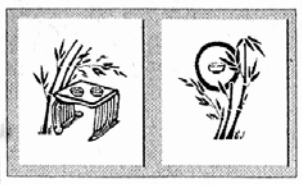
조경숙〈서울 양천구 목동〉

기도포



기장 84cm×폭 39cm/ 재질- 면 가격:₩1,600

다 포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산업자원부 추천 우수사이버몰

마 하 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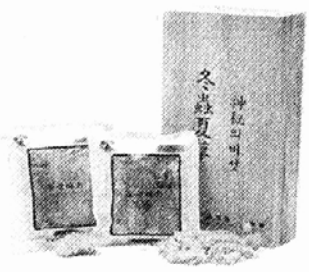
(http://www.mahamall.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더욱 많은 불교상품과 작품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농장직판 - 신비의 버섯
동충하초

150g
1개월 복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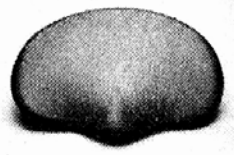
가격 70,000원

관음분청자기



가격:₩495,000

참선명상방석



일 반 ₩30,000
숯가반 ₩35,000
황토반 ₩35,000

- 실용신안1998-025009
- 의장등록1-0387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규격: 39×43cm

백의 관음입상 도자기



감로수와 함께하는 백의 관음 입상 도자기

가격 : 150,000원

정사각틀 에밀레종



신비한 걸작품, 사이버 사운드, 완벽한 종소리의 재현!

규격: 20×31cm
재질 - 청동

가격:₩210,000

수암 만다라 옥침



■가격 : 30,000원
■재질 : 천연옥, 우목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헤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7가우스 X 4개

걸 망



색상: 밤색 · 베이지 · 회색

가격:₩15,000

백화향 선물셋트

백화+신자단+천연목향+향꽃이



천연향방
악함 복주머니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격: ₩50,000

한방향 선물셋트

향등+한방향+향꽃이



2셋트 구입시 천연향방 악함 복주머니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격: ₩25,000

보원향 선물셋트

보원+만복침향+한방향+향꽃이



천연향방
악함 복주머니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격: ₩60,000

옥베게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 1개 ₩30,000(셋트₩56,000)

석씨향방 오본향,생기향세트



규격 : 4개 1세트
효능 : 회임경 보현행원품에 열기지효능이 있음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 할 때
- 제사를 지낼 때
- 불결한 감소를 깨끗이 하고 싶을때
- 공포를 느낄 때
- 조상의 명복을 빌때

가격 : ₩60,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눈안마기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황토 냉온 찜질팩



용도
- 냉은 찜질용
- 노인성 통증완화에 찜질
- 야간 근무자나 추운곳에서 근무시 보온용
- 건강과 미용에 좋다.

가격 : ₩26,000

신세대 불자들의 신행수첩



- 지갑기능도 겸해 휴대가 간편
- 예불, 합공, 법회, 의례, 친불가까지
- 신행생활과 성지참배기를 요약기록
- 개인이 원하는 내용만 임의로 구성

가격
고급형(천연가죽) ₩36,000
일반형(인조피혁) ₩25,000

오동나무 목침

크기
가로 30cm
폭 13.5cm
높이 9.5cm

가격
개 폐 형 ₩20,000
무개폐형 ₩15,000

산소용 통 히란야



용도:
신소수액 처단기
에너지 장이 영당이 됨

형태 :
원형, 자수정
부착, 히란야8개

가격 :₩240,000

순금도금 은 히란야메달



자수정 대 부착
순금도금 (목걸이용)

지름 : 4.5cm

가격 :₩4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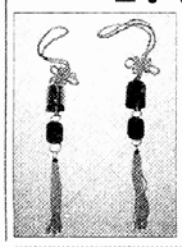
경 상



전통적 정상을 현실에 맞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름원목
■가격:₩85,000

반야심경 종차걸이



· 색상 : 검정 · 금색

가격:₩9,000

마하몰 미니정보

마하몰에서는 불교상품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을 운영합니다.

죽 염

1. 죽염이란 ?

죽염은 쉽게 말해서 소금을 대나무에 넣어서 불에 태워 만든 것이다. 인간의 식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 이라 할 수 있는 소금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독소로 인하여 비만,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등 모든 성인병을 유발시키고 모든 병에 해를 주는 강한 산성식품이다. 먼 옛날 부터 지혜로운 이들은 소금의 해를 줄이고자 소금을 굽거나 볶아서 섭취해왔고 심산 승가에서는 죽염을 제조하여 섭취해 옴으로 오늘에 이르렀으며 이 죽염의 신비한 효과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건강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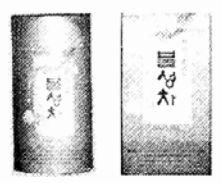
2. 죽염의 제조과정

간민의 차가 크므로 그만큼 광석물질의 함유율이 높은 서해안의 천일염을 전남 담양, 장성에서 3년이상된 왕 대나무를 구입하여 1~2마디씩 절단하여 다져넣는다. 소금을 다져넣은 대나무 위에 부분을 조선 솔잎과 황토(나무뿌리가 침범하지 않고 잡토가 섞이지 않은 땅속 깊은 곳의 순수황토)를 이겨막고 조신소나무 장작장작과 함께 가마(철관과 황토벽돌로 지음)에 재인다. 밑의 아궁이에 소나무 장작으로 48~72시간 불(훈핍)을 땐 다음 소금넣은 대나무에 불을 붙여 800~1000도의 고온으로 태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소금의 독소는 제거되고 대나무, 황토, 소나무에서 유황성분과 철분, 각종 필수 미네랄이 생성 융합되어 강 알카리성 식품으로탄생된다

3. 죽염의 효능

본초강목에 대나무를 활용한 처방(34종류)과 신농본초경에 해소와 상기 종양, 해열산충, 구토와 곽란, 기담, 중풍, 당뇨병, 고혈압, 신경쇠약, 간질, 임신빈혈, 소아진염병 질환, 불면증, 과다음주, 피로회복, 안구통증에 효능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고 1995년 9월 미국 하버드 의과 대학 암연구센터 암약물학부 마리안나 스파다 박사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죽염은 매일 30g씩 섭취해도 USPDA(미국인 1일 소금 섭취량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죽염은 일종의 건강보조 식품으로 다른약과 병행해도 부작용이 없으며 과다복용해도 고갈이 생기지 않는다.

불 성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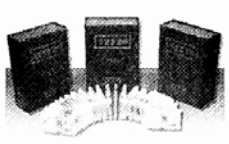
가격 : 우전 ₩90,000 / 세작 ₩50,000
중작 ₩30,000 / 대작 ₩20,000

날개 CD



가격: ₩10,000

무비스님 특강테잎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진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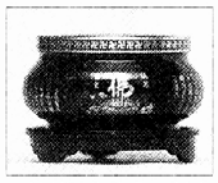
삼보죽염순소금



천일염에 붙순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금을 볶아 먹었던 조상의 슬기로 공해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필요한 식생활 습관

용량 : 500g
가격 : ₩6,500

반야심경 향로



(가정용) 규격: 4(높이)×7cm(지름)
가격:₩25,000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가격:₩9,500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비디오테잎



·1부 제대령
·2부 관욕
·상영시간 : 각 68분

■ 가격:
각 ₩25,000

삼보미용죽염



피부에 기생하는 진성균류나 방선균류의 세포 표면을 감싸서 세균들이 번식하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가격 :₩3,500

삼보죽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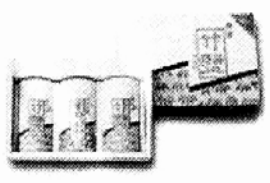
삼보죽염 세트

용량 : 600g
가격 :₩105,000



삼보죽염비누

용량 : 110g 2개들이
가격 :₩12,000



장군죽염선물세트

용량 : 600g(분말 알갱이 종화씨환)
가격 :₩10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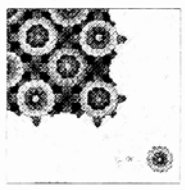
음식조미용 장군죽염



인공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음식맛을 낼수 있는 제품

용량 : 300g
가격 :₩4,000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재질 : 면/ 인쇄: 나염
·문양: 옹문사 대웅전 창살

가격:₩5,000

쑥 환



₩55,000 (1달분 1통 1,500정)
₩80,000 (2달분 2통 3,000정)

삼보죽염 낱개 1통



황토가마에서 아홉번 구워낸 삼보죽염

용량 : 200g

가격 :₩36,000

장군죽염분말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가 용이하도록 가루형태로 만든 제품

용량 : 200g
가격 :₩36,000

불자반지



재질 : 금 · 큐빅(1.5돈)
※싸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대나무 숯 염색천

신라시대 경주에서 숯불로 밥짓고 요리하고 염색한 옷을 해 입은 것은 사치가 아니라 숯의 원적외선, 음이온, 환원력 등을 활용한 기막힌 과학입니다. 이런 이론들을 근거로 하여 조금이나마 현대인들에게 대나무숯을 기까이 하끔 착안한 것이 숯 염색천 입니다. 숯 염색옷의 치료 예방효과가 특히 도시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천은 지리산 청학동에서 직접 만든 100% 수제품입니다.

■크기 : 44인치 X 5.50야드 ■색상 : 진회색/회색
■가격 : 60,000원

불자 반디라이트 펜

불자들을 위한 천진동자의 여러 모습이 새겨져 있는 반디라이트 펜입니다.텅스텐 볼펜 심이 LED램프의 중앙을 통과하도록 특수 설계되어 일반 산업체의 야간 근무현장, 영상 교육 중 메모 경찰이나 군인의 야간 경계근무 혹은 작전시 등 일반 비즈니스맨이나 학생, 운전자 모두에게 필요한 제품으로 개인용도는 물론 판촉용, 선물용으로 탁월한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1세트 : 10개入
■가 격 : 25,000원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무궁한 부처님의 가피를 존경하는 분께,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마음 가득한 불심", "온누리 가득한 자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불심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부처님께서 성도(聖道)하신 바로 그곳 인도의 불교성지(佛敎聖地) 부다가야 마하보디 사원에서 직접 모셔온 이 성불 인사장으로 마음 아리도록 소중한 분들의 새 천년을 열어주지 않으시렵니까? 부처님의 여러 모습이 그려진 보리수 잎은 그림과 같이 고급 색한지 위에 모셨고 본 보리수잎 성불인사장은 잎의 훼손을 피하기 위하여 우송용 봉투를 포함, 1매씩 포장되어 있습니다. 본 상품은 한장 한장 정성들여 만든 수공예 인사장 입니다.

NO 1 가격: 2,000
NO 2 가격: 2,000
NO 3 가격: 3,000
NO 4 가격: 3,000
NO 5 가격: 3,500
NO 6 가격: 3,500
NO 7 가격: 3,500
NO 8 가격: 3,500

산촌유과 … 한국정통의 유과

한과는 곡물 가루에 꿀, 엿, 참기름, 설탕 등을 넣고 반죽하여 꽃 모양 물고기 모양 같은 판에 밖아 낸 다음 기름에 지지거나 조려서 만든 과자이다. 다른 말로 조과(造果)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천연꿀에 더하여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산촌한과는 사찰음식의 전문가인 김연식씨가 불교사원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정통 한과이다.

산촌 들깨유과	90,000원	산촌 콩유과	30,000원
산촌 김유과	90,000원	산촌 쑥유과	30,000원
산촌 잣유과	100,000원	산촌 호박유과	30,000원
산촌 대추유과	100,000원	산촌 김치유과	90,000원
산촌 땅콩유과	100,000원	산촌 된장유과	90,000원
산촌 흑임자유과	100,000원	산촌 고추장유과	90,000원
산촌 파래유과	90,000원	산촌 감자튀김	54,000원
산촌 찹쌀유과	30,000원	산촌 감자유과	54,000원

※ 1BOX : 4kg 공통

향적원…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이렇게 들었다 — 효

세상에 태어난 우리는 어머니의 가슴을 잠자리로 하고, 어머니의 두툼을 놀이터 삼아 기댄다. 또 어머니의 젖을 음식으로 하고 어머니의 정을 생명으로 삼아 살아갈만큼 부모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살아간다.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 5월은 그런 부모와 자식간의 정을 더욱 애틋하게 한다.

부모님의 자식사랑은 그 옛날 자신들만큼은 못 먹고, 못 배웠어도 내 자식들은 가난 때문에 좌절하는 일없도록 하겠다며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연세 지긋한 세대의 부모님이나 요즘의 신세대 엄마, 아빠의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사로와지는 햇살만큼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부모님께 건네보자. 5월 가정의 달이 가족 서로간에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는 날들이 되길 기대하면서 경전속에 나타난 '효'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편집자〉

늘 존중하고 마음 편안하게

▨부처님께서 선생(善生)에게 말씀하셨다. "자식은 다섯 가지로 부모님을 받들어 봉양하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먼저 부모님과 상의하라. 부모가 하시는 일에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라. 부모님께서 하시는 바른 명령을 감히 어기지 말라. 부모님께서 해오시던 바른 직업을 이어서 더욱 번창하게 하라. 〈선생경〉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은 살림살이를 잘 할 것, 일찍 일어나 제때에 식사를 드시게 하는 것,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는 것, 언제나 부모의 큰 은혜를 잊지 않는 것, 병환이 나면 곧 의사를 청해 치료해 드리는 것이다. 〈육방예경〉

▨효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의식을 제공함은 하품(下品)의 효양이요,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함은 중품(中品)의 효양이며, 부모님의 공덕을 여러 부처님께 회향함을 상품(上品)의 효양이라 한다. 〈아함경〉

▨부모께서 큰 고통을 받으사 열 달이 차도록 내 태를 품으시며, 태어난 다음에도 마른자리로 옮겨 눕히사 습기를 제거하시며, 더러운 똥·오줌을 치우시며, 젖 먹이고 씹어 먹여 길이 기르사 내 몸을 보호하시도다. 이런 도리 때문에 나는 항상 은혜에 보답해야 하리니, 부모를 봉양하고 모셔서 지켜 드리며, 그 뜻을 받들어 섬겨야 하리라. 〈열반경〉

▨부모가 병들었을 때에는, 자식들은 각기 방편을 구하여 다방면으로 치료해서, 갖가지 병고(病苦)를 빨리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오근(五根)이 경쾌하여 편안하게 조화되며 음식이 늘어나 체력이 견고해져서, 온갖 고통을 떠나고 큰 쾌락을 얻어, 수명이 길어지도록 해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 이 몸이 세상에 있는 것은 부모의 생육(生育)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부모의 은혜란 무거운 까닭이다. 〈불모출생경〉

▨무릇 사람이 천지의 귀신을 섬긴다 해도 그 부모에 효도함만 못하다. 부모야말로 최고의 신이기 때문이다. 〈사십이장경〉

▨선의 최상은 효도보다 큰 것이 없고, 악의 최상은 불효보다 큰 것이 없다. 〈인욕경〉

▨만약 중생이 있어서 부모에게 불효하여, 혹 부모를 죽이는 데까지 이른다면, 무간지옥(無間地獄)에 떨어져 천만억겁(千萬億劫)이 지나도록 나오려 해도 나올때가 없을 것이다. 〈지장경〉

▨어머니의 은혜는 다음 열 가지로 나누어 들 수 있다. 첫째, 아이를 잉태하여 연달 동안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보호해준 은혜. 둘째, 괴로움을 겪은 은혜. 셋째, 자식을 낳고 모든 근심을 잊는 은혜. 넷째, 입에 쓴 음식은 삼키고 단 음식은 아기에게 먹여주는 은혜. 다섯째, 마른자리 골라 아이 눕히고 젖은 자리에 눕는 은혜. 여섯째, 때맞추어 젖을 먹여 길러준 은혜. 일곱째, 똥오줌 가려 더러운 것을 빨아주는 은혜. 여덟째, 자식이 먼 길을 떠나면 생각하고 염려하는 은혜. 아홉째, 자식을 위해 나쁜 일 하는 은혜. 열째,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을 사랑해 주는 은혜. 〈부모은중경〉

▨자기는 풍족하게 살고 있으면서 늙어 쇠약한 부모는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숫타니파타〉

▨가령 어떤 사람이 왼쪽 등에 아버지를 업고, 오른 어깨에 어머니를 업고서 수미산을 백번 천번 돌아서 가죽이 터져 뼈가 드러나고, 뼈가 닳아 골수가 드러나더라도 부모의 깊은 은혜는 갚을수가 없다 〈부모은중경〉

▨음식이나 보배만으로는 부모의 은혜를 갚지 못한다. 부모를 인도하여 바른 가르침으로 향하게 해야 부모를 섬기는 것이 된다. 〈불사의광경〉

신행 캘린더

5월3일 (수)

■법왕사 자광스님 초청법회=지난 3월달부터 경율론 삼장백고좌 법회를 진행하고 있는 대구 법왕사는 문경 김용사 주지 자광스님을 초청해 스님으로부터 '신행인의 자세'을 주제로 법문을 듣는다. 053)766-3747

5월4일 (목)

■실천승가회 '인권문화제'=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오후7시 종각 일대에서 제2회 불교인권문화제를 개최한다. 02)725-4277

■중앙승가대 학생회 서각전=중앙승가대 학생회는 교내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각전을 개최한다. 011-9008-2065

5월5일 (금)

■좋은벗들, 스티브린튼 초청 통일강좌=(사)좋은벗들은 유진벨재단 이사장인 스티브린튼을 초청, 저녁 7시30분부터 정토회관 3층 강당에서 '내가 만난 한국사람들, 내가 만난 조선사람들'을 주제로 통일강좌를 연다. 02)587-8996

■전국어린이 부처님 그릴그리기대회='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가 오전10시30분 여주 목아불교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월간〈불광〉과 목아불교박물관의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날 대회에서는 깃발 서바이벌, 퀴즈 서바이벌, 철인 서바이벌, 가족 서바이벌 등 각종 게임을 겸한 놀이마당도 펼쳐진다. 02)420-3200

■서울시청앞 봉축점등식=봉축위원회는 오후7시30분 시청앞에서 봉축 점등식을 갖는다. 02)725-6641

5월6일 (토)

■전통등 전시회=전통등연구회는 11일까지 조계사에서 전통등전시회를 갖는다. 02)732-2183

■금하선원 공옥진 초청 춤공연=금하선원 거사회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관내 구민들과 봉축의 의미를 되새기고 축하하기 위해 인간문화재 공옥진씨를 초청해 문화공연을 연다.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오후2시, 7시 2회에 걸쳐 펼쳐진다. 02)823-9135

5월7일 (일)

■봉축위 연등축제=봉축위원회는 정오~오후10시 종로거리에서 연등축제를 벌인다. 특히 오후4시 동대문에서 연등법회, 오후9시 우정국로에서 회향한마당이 있다. 02)725-6641

■봉축기념 웅변대회=대한불교웅변인협회는 오후1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웅변대회를 연다. 02)735-1896

5월8일 (월)

■불자련 탑골공원서 영산대재, 탑돌이=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오전10시와 정오, 오후3시 탑골공원에서 자비릴레이와 영산대재와 탑돌이를 펼친다. 02)723-6258

5월9일 (화)

■'진감선사의 달' 기념 문화공연=국립국악원은 부처님오신날과 5월의 문화인물 '진감선사'의 달을 맞아 '불교예술의 미(美) 천년회상, 천년상생' 공연을 저녁7시30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개최한다. 02)585-0153

5월11일 (목)

■봉축법요식=조계사 및 전국 사암에서는 오전10시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한다.

■오대산 적멸보궁 참배=용진신행회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상원사 적멸보궁과 북대 미륵암, 남대 지장암, 월정사 참배길에 오른다. 02)2279-1191

■터사랑 봉암사 순례=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은 문경 봉암사를 찾아 고운 최치원의 사산비명등을 참배한다. 02)725-1284

■안숙선 판소리 '불타전'=도안사는 법당에서 명창 안숙선씨를 초청, 판소리 '불타전'을 개최한다. 0334)676-8700

5월12일 (금)

■이영희교수 초청 통일강좌=(사)좋은벗들은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를 초청, 저녁 7시30분부터 정토회관 3층 강당에서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질서'를 주제로 통일강좌를 연다.02)587-8996

봉업사 석조여래불 친견법회

한국석불선양회(지도법사 최혜명)는 14일 안성 봉업사터로 제3회 돌부처 친견법회를 떠난다. 봉업사는 고려초에 창건된 대사찰로 현재는 사찰은 없고 석조여라입상, 미륵보살입상, 오층석탑, 삼층석탑만 남아있다. 몽고군과 왜군을 물리친 죽주산성이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이번 순례법회에서는 석조여래부처님과 미륵보살님을 친견, 예불공양을 올리고 근처에 산재돼 있는 석탑을 참배한다. 이밖에도 죽주산성 답사, 솔밭산림욕, 비봉산 등산 등도 함께 한다. 누구나 참여 가능. 016-267-7945.



◇봉업사 석조여래입상

법회안내

'대승기신론'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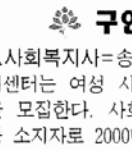


일진 운문사 승가대 교수스님은 9일 대구 법왕사에서 '대승기신론의 중심사상'에 대해 강연한다. 053)777-3747

'명상이야기'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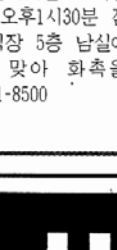
정재각 전 동국대 총장은 10일 오후2시 대한불교진흥원 불교문화센터의 초청을 받아 다보문화강좌에서 '명상이야기'라는 주제로 법문한다. 02)703-0108

'나의 신행생활' 소개



유필화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는선우 초청으로 20일 선우법당에서 '나의 신행생활'을 주제로 법문한다. 02)2278-8672

연천 포병대대 법문



백남석 법사는 3일 오후7시 경기도 연천 28사단 포병대대 법당에서 법문한다. 0355)832-1523

불교상담론 강의

방기연(난승)법사는 18일 오후7시 정토회관 3층 강당에서 한국제이티에스 청소년사업부의 초청으로 '불교상담의 방법론'에 대해 강의한다. 02)587-8995

게시판

모집

▲성훈따주기 수강생=성훈따주기공덕회는 11일 오후 2시 수효사문화원에서 제33기 성훈따주기 강좌를 개강한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 열린다. 02)313-5047

▲청년불자회 회원=전북불교대학 청년불자회는 신입회원을 모집한다. 청년불자회 회원은 매달 셋째주 월요일 8시 정기모임이 있다. 0652)226-7878

▲양산불교시민불교대학 수강생=양산불교 시민불교대학은 2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25일~10월12일이며, 매주 화·수요일 오전10시~12시 진행된다. 강의는 법장사 주지이자 중앙승가대 교수인 퇴휴스님이 맡는다. 02)948-3111

▲영정사진서비스 자원봉사자=연꽃마을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독거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영정사진을 찍어 줄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02)2203-3677

▲레크리에이션 봉사자=마포노인주간보호센터는 65세 이상 고령자 및 고령불편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진행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365-3677

▲장애아동 놀이치료=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아동들이 놀이를 통해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을 훈련시켜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아동 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모래놀이 치료, 미술놀이 치료, 역할놀이 치료, 조작놀이 치료 등이 있다. 0443)652-0900

▲노인재활의료용품 무료 대여=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휠체어, 각종 보장구, 찜질기, 욕창예방용품 등을 한달간 무료대여해 준다. 02)385-1351

▲파출봉사원 알선=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내 실직가정 및 저소득가정 세대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담파출봉사원을 모집한다. 또한 파출봉사원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 노인가정 등의 가정도 연락을 기다린다. 02)806-1376

▲성인 취업·창업 위한 자격증 대비반=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취업 및 창업을 하기 위한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리사 자격반, 발관리전문가 양성반, 머리미용자격증반, 꽃집 창업반을 운영한다. 02)852-0525

알림

▲중국어 회화반=서울불광산사는 중국어 회화 기초반(화, 목)·초급반(토), 중급반(토, 수) 강좌와 꽃꽂이반을 운영한다. 02)2276-0993

▲노래방·PC방 개방=부천덕유사회복지관은 매주 일요일 복지관을 개방, 관내 주민들이 가족노래방, 청소년 PC게임 동아리방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CD-ROM을 활용한 정신지체청소년 사회성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032)325-2161

▲주민도서실 개방=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매일 오후1시~5시 주민 도서실을 개방한다. 도서와 비디오를 무료로 빌려 볼 수 있다. 020421-6077

구인

▲사회복지사=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여성 사회복지사 1명을 모집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2000년도 졸업자이면서, PC사용 가능자이면 된다. 02)2203-0855

화촉

▲선재이벤트 이성훈 실장은 14일 오후1시30분 잠실 롯데월드예식장 5층 남실에서 이미애씨를 맞아 화촉을 밝힌다. 02)411-8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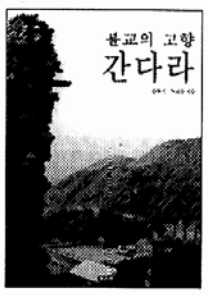
♣법성포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기념사업을 축하드립니다♣

불교의 고향 **간다라**

불교는 파키스탄 간다라에서 와 1500년간 발전하였습니다.
파키스탄 정부 초청으로 한국불교의 고향이며, 불상이 처음 탄생한 간다라 지방을 여러 차례 답사한바 있으며, 지금도 법성포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기념사업을 위하여 영광군과 함께 마라난타 존자의 행적과 고증을 위한 존자의 고향 간다라 마르단 지역에 답사중입니다.

이 책은 불상이 태어난 역사, 사상적 배경, 불교조각, 조각에 나타난 부처님의 생애, 동방 대승불교의 발생근원을 다루었습니다.

민희식·박교순 공저/신국판 264쪽/값 8,500원





민희식 지음/신국판 317쪽/값 10,000원

신약성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
법화경, 기타 불경과 매우 흡사하다.
유럽의 성서문헌학자들은
예수와 석가의 생애가 닮은 점에 놀랐다.
현대의 첨단과학은 점차 불교의 가르침으로 가고 있다.

법화경과 신약성서

독자들의 요청을 수용, 예수의 불교수행의 흔적과 첨단과학과 불교에 대한 부분을 보충했다. 1장 불교와 기독교, 2장 인도기행, 3장 불란서 지성인과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3장의 대담은 불란서 지성들의 불교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양인에게서 동양사상에 대한 특강을 듣는 듯하다. 앞으로도 예수의 인도 수행승으로서의 행적에 관한 자료를 더 발굴 그에 관한 책을 내년쯤 다시 출간할 계획도 갖고 있다.

㈜**가이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1005호 ☎02)780-0248 ♣단체 주문 시 할인 해드립니다.

天蓋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0047

양평에 재가수행도량 문열어

법왕정사, 참선 · 염불 · 독경등 전문지도

주말-직장인 철야 방학-수련캠프 개설

염불 독경 행선 와선 참선 등 수행법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재가불자 전문 수행도량이 문을 열었다.

경기 양평군 단월면 소리산에 소재한 법왕정사(주지 청견스님)는 4월30일 수행원 개원식을 거행했다. 법왕정사의 이번 수행원 개원은 보다 전문적인 재가 수행도량으로의 탈바꿈을 시도한 것으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수련과정을 통해 불자들의 평생 수행의 기틀을 다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지 16만평(행선코스 8km)에 선방 88평, 요사채 80평 규모의 2층 건물을 갖춘 법왕정사 수행원은 재가불자와 예비승려의 수행을 위한 교육도량으로서 선방, 절방, 염불방, 행선코스, 금강경독경방 등을 갖추고 단계별로 재가불자들의 수행법을 지도한다. 우선 '호흡에 맞춰 절하기'로 신심을 다지고 염불(석가모니불)과 독경(금강경), 행선을 통해 번뇌망상을 제거하며 자세, 호흡, 화두드는법, 와선 등 참선의 기초를 가르친다.

행주좌와 간에 일여한 참선의 기본이 잡히면 해인사 방장스님으로부터 화두를 받아 본격적인 화두참구에 들게 한다. 이렇게 해서 수행원을 나간 후에도 일상생활 중에 화두를 놓치지 않고 게을리 하지 않는 불자를 양성하는 것이 법왕정사 수행원의 설립 목적이다.

이같은 체계적인 수행법의 지도는 주지 청견스님의 체험이 바탕이 되었다. 논산 쌍계사에서 동진 출가한 청견스님은 해인사 퉁도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한 후 12년 전부터 정진력을 키우기 위해 염불, 절하기, 독경 등으로 용맹정진했다. 매일 석가모니불 정근 15만번, 하루 1만번 절하기, 금강경독경 10만독의 가행정진을 각각 3년간의 주기로 회향했다. 3년전부터는 소리산에 7개의 토굴을 짓고 절과 토굴을 오가며 정진하면서 재가불자들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을 마친 재가불자가 5000여명, 기초수련과정을 마친 불자가 2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불교 입문자들이 이곳을 거쳐갔다. 이곳을 통해 출가한 스님만도 40명에 이른다. 앞으로도 교육관, 자연학습장, 108개의 토굴, 금강경법신탑 등을 갖추고 전문 수행인을 양성하는 재가불자 수행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법왕정사의 목표다.

현재 수행원에 상주하고 있는 재가불자는 10명. 새벽 예불 및 수행, 행선, 도인체조, 울력, 저녁 예불 및 수행 등으로 이어지는 빈틈없는 하루 일과와 공양을 들고 울력을 하면서도 염불을 계속하는 철저한 정진을 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에는 직장인을 위한 철야정진 코스를 개설해 놓고 있으며, 방학기간에는 초·중·고등·대학생을 위한 참선캠프도 열어 다양한 연령과 직업에 따른 정진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제대로 된 재가 수행도량이 없다"고 지적한 청견스님은 "수행법을 기초부터 올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가불자의 양성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기약하는 참된 불사"라고 말했다. (0338)771-7745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4월30일 개원한 법왕정사 수행원 전경. 재가불자들에게 수행법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전문수행도량이다.

신부 · 목사 사찰강연 잇달아

자비·사랑으로 '종교화합'

미륭사 · 무각사 · 선원사 등 초파일 앞두고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목사, 신부님 등 타종교 성직자들이 잇달아 불교 법회에서 강연해 종교화합은 물론 불자들의 안목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부산 미륭사(주지 정각)는 5월 4, 6일 오전 11시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종교인의 대사회적 역할과 바람직한 실천방안'을 주제로 김홍술 목사(도시빈민사회복지선교회)와 구경국 신부(부산가톨릭대 윤리신학 교수)를 초청해 봉축기념 강연회를 갖는다. (051)461-0009

통도사 부산포교원(주지 심산)도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5월 18일 통도사부산포교원 2층 화엄회관에서 열린종교시민대학을 연다. 심산스님을 상임 운영위원으로 송영웅 풀빛교회 목사, 박칠 송도교구 천도교 포덕사, 윤희중 해운대 나눔의집 사관이 각각 운영위원을 맡아 종교의 궁극적인 합일점을 찾는 시민대학으로 운영해 나가게 된다. (051)816-2241

또 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은 4월30일 허병섭 목사의 흙집과 흙집화장실을 찾아가는 '흙집 기행'을 실시한데 이어, 5월24일과 6월24일 부산정토회 강당에서 열리는 생명운동아카데미에 김영수목사(작은이를생각하는 사람들 상임대표)와 이현주목사(예수살기모임 대표)를 강사로 초빙한다. (051)557-6372

이에 앞서 광주 무각사(주지 광민)는 4월27일 김경천 목사 초청 봉축특별강연회를 개최했으며, 강화 선원사(주지 성원)도 3월23일 감리교재단 강화환경농민회 김정택 목사를 초청 '환경농사'를 주제로 법회를 봉행했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종교로 가는 길' 주제의 타종교 성직자 강연회를 개최하는 미륭사 주지 정각스님은 "모든 종교는 인간과 생명 자체를 사랑하는 공통점을 가진 만큼, 보다 많은 열린 강연회를 통해 종교화합과 인류평화의 길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수원포교당 이웃에 자비 손길

군부대 · 경찰서 · 복지시설 찾아 위문품

수원포교당(주지 성관)이 단위사찰로는 드물게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무의탁 노인, 군인 · 경찰 등 소외 계층에 사랑을 전하기 위한 '자비의 손길' 행사를 다양하게 펼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원포교당은 △4월26일 우만록지회관 노인정 △4월27일 수원 중부경찰서 및 경찰대학교 전 · 의경을 위문한데 이어 △5월2일 남향동사무소, 남부소방서, 동문파출소 △5월8일 남양 자재정사 △5월9일 시흥 혜명양로원 △해병대사령부, 예천비행장, 오산비행장 군법당(행사 지원금 및 포교용소책자 전달) 등에 음식 및 위문품을 각각 전달한다.

김재경 기자

진주불교회관 이전 개관

진주불교회관은 4월29일 법당에서 이전개관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이 "21세기 불자들의 자세"를 주제로 법문했다.

7년간 진주시 계동에 소재했던 진주불교회관은 상봉동 1018-3번지 구 농촌지도소 건물로 이전, 법당을 넓히고 불교도서실을 개설했다.

김재경 기자

조방연등축제 점등식

부산 자유시장 상인등 참석

조방연등축제추진위원회(회장 황덕규)는 4월27일 자유시장 서편 주차장 광장에서 제4회 조방 연등축제 점등식을 가졌다.

부산불교연합회 부회장 정각스님과 자유시장 불자회를 비롯 조방연등 축제에 동참한 불교복지보건대학, 불교방송, 중앙병원, 불교신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방연등축제 추진위원회는 연등축제 기간동안 모아진 정성금으로 장애자 휠체어제공,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급, 북녘 어린이 돕기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부산=천미희 기자

시각장애인 불자 산행

갓바위 · 선본사 순례



제9회 전국 시각장애인불자 산행대회가 4월23일 팔공산 관봉(갓바위)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광맹인불자회원 1백여명을 비롯 성묵 현담 역공 일진스님, 박석규 대광맹인불자회장, 김부봉 혜광맹인불자회장, 최석주 부광맹인불자회장, 박운식 대구신행단체연합회장, 김주본 개인택시정법회장등 3백여명이 참가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해동용궁사 캐릭터 '용돌이' 상표 등록

부산 해동용궁사(주지 정암)는 해동용궁사를 상징하는 캐릭터인 '용돌이'를 지난달 4일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했다.

용돌이는 한국인의 정서속에 깊이 자리한 용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되살려 목탁을 손에 든 불교의 호국신장으로 형상화 됐다. 용궁사는 '용돌이'를 이용해 기념품 또는 불교상품을 제작하거나 호국불교의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790주기 보조국사 종재

제21교구 본사 송광사(주지 현봉)는 4월29일부터 3일간 '3월 불사'를 철야정진으로 봉행했다.

첫날 보살계·입재식, 둘째날 가사불사 회향에 이어, 셋째 날 보조국사 790주기 종재, 보살계 수계식이 진행됐다.

태고종

대전소년원 위문공연

대전교구종무원(원장 월해)은 산하 20여 사암 스님과 신도들과 함께 6일 대전소년원을 위로 방문, 3백여 원생들과 함께 봉축법회를 보고 떡 과일 등 위문품도 전달한다.

염불사 차량용 연등 보시

수락산 염불사(주지 호명)는 4일 신도들이 직접 제작한 차량용 호신연등 5천개를 수락산역 도로에서 운전기사들에게 나눠주는 차량연등달기 행사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서 염불사 신도들은 손수 제작한 연등을 차량에 걸어주면 무사고운전을 기원하고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도 함께 펼친다.

천태종

산불 이재민에 구호품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4월26일 강원도 지역을 휩쓴 산불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품과 성금을 김진선 강원도지사에게 전달〈사진〉했다. 이날 전달한 성금과 구호품은 종단에서 모금한 5백만원과 쌀 180가마, 라면 7백박스, 옷 146박스 등이다.

양산사 법당 기공식



양평 양산사(주지 갈웅)는 4월 25일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스님, 박형철 참의원장 등 종단 간부들과 신도 등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법당 기공식〈사진〉을 봉행했다.

진각종

종조 탄생절 봉축헌화식

종조 회당 대종사의 제99회 탄생절을 맞아 10일 오후 2시 총인원 종조전과 울릉도 금강원에서 봉축 헌화식이 봉행된다. (02)913-0753

대한법화종

총무원장 선거 15일 실시

제 16대 총무원장 및 포교원장 선거가 15일 오전 11시 성북구 총무원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전임 대호 총무원장의 잔여 임기를 채운 현 총무원장 운경스님 임기는 5월에 끝난다.

여래종

전법포교사 2기 교육

총무원(원장 명안)은 포교원(원장 법룡)과 함께 전법포교사 대상 제2기 연수교육을 21일부터 26일까지 총무원 교육관에서 실시한다.

삼보종

'현대적 포교방법' 세미나

4월21일 대구시 동구 신암동에 위치한 총무원청사에서 '21세기 주지의 역할'과 '현대적 포교방법'을 주제로 종도세미나를 개최했다.(053)959-6333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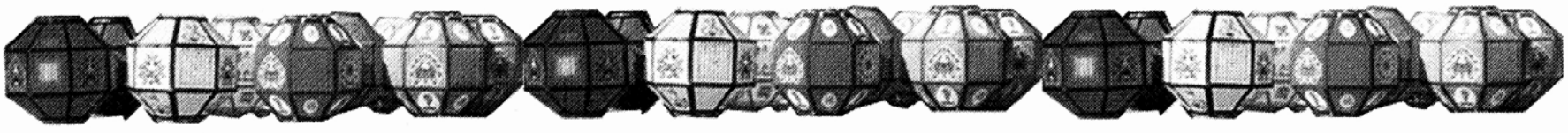
◐ 아바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밝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016-228-2358

인터넷 마하몰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사찰과 그 주변을 환히 밝히고 있는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을 만나십시오』

02) 732-1522 (직)
02) 737-8881
인터넷 주문: http://www.mahamall.co.kr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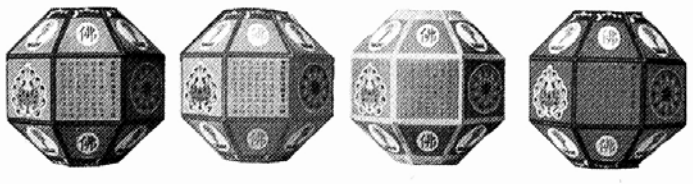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청문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부처님의 교설을 열심히 공부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하는 불자들의 서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주문전화 : 02)732-1522(직통)/737-8881(대표)
▶ 주문팩스 : 02)737-0697
▶ 판 매 원 : 마하몰

이 연등은 재가불자들의 구매용이 아닙니다.

마하 반야심경 봉축 조립등



<설치순서>
1. 연등의 윗부분을 조립한다.
2. 연등의 아랫부분을 조립한다.
3. 연등을 설치한다

■규격 : 폭28cm×높이28cm
■ 초꽂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름표 포함, 탁송비 별도
■ 가격 : 1,84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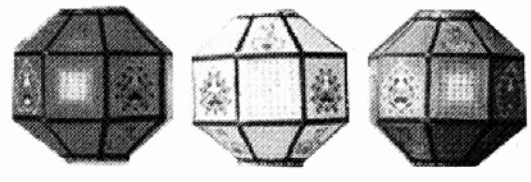
※ 실용신안 번호 : 제 0160182호

〈이름표〉



비에 젖지 않습니다

마하 반야심경 봉축 접등



<설치순서>
1. 접힌 상태의 연등을 편다.
2. 내부에 접혀 있는 지지철봉을 누른다.
3. 연등을 설치한다.

■규격 : 폭28cm×높이28cm
■ 초꽂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름표 별도, 탁송비 별도
■ 가격 : 2,500원 (이름표 포함 2,600원)

※ 실용신안 번호 : 제 0179042호

〈이름표〉



비에 젖지 않습니다

'열린 사찰' 시민 곁으로

강연·문화체험·교양강좌 등 프로그램 다양
타종교인도 동참열기 "절 문턱 낮아졌다"

사찰의 문이 열리고 있다. 일반인들은 물론 타종교인까지 동참하면서 도량이 사회·문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일부 사찰에서는 '매니아'들까지 생겼다. 모두가 나름대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사찰을 '열린 공간'으로 개방했기 때문이다.

조계사와 정토회관, 강화 선원사와 부산 미룡사에서는 목사와 신부 등 타종교 지도자는 물론 작가, 학자, 재야운동가 등의 연사들이 종종 법단에 오른다. 환경, 문학, 통일, 경제 등 사회적 문제들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들 사찰의 강연회에서는 불자들과 타종교인, 일반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강연을 청취하고 토론도 벌인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조계사(주지 지홍)의 '열린 강연회'에는 고정적으로 참석하는 '매니아'들이 줄잡아 60~70명을 넘고, 미륭사(주지 정각) '열린 종교로 가는 길' 강연회에서는 강연을 듣는 목사나 신부를 항상 볼 수 있다. 좋은 벗들(이사장 법륜)이 주관하는 '통일미래를 준비하는 대화마당'은 강연 뒤 뿜어져 나오는 토론열기가 뜨겁다. 강화 선원사(주지 성원)는 3월 대웅전 복원불사 성취를 위해 1000일 기도에 들어가면서 개신교 목사의 강연회를 열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1000일 기도 동안 100일마다 타종교 지도자와 환경운동가 등을 초청해 강연회를 열 계획이다.

각종 문화 프로그램 역시 사찰을 지역민들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바꿔놓고 있다. 천안 불광사(주지 대일)에 들어서면 장구와 징, 꽹과리, 북소리가 흥겹게 어우러져 뽑아내는 민요가락을 들을 수 있다. 11년 전부터 운영돼 온 사물놀이패의 회원만도 현재 1천2백여명. 일반인과 타종교인이 30%에 이르지만 모두가 한 몸이고, 매니아들도 많다. 불광사 사물놀이패라기 보다는 지역민이 공유하는 공연단체로 자리매김했다.

대전 현불사(주지 법우)가 운영하는 우리문화예술원은 중요무형문화재 승무와 살풀이 이수자인 법우스님이 직접 지도하는 전통무용 강좌로 지역 문화의 한 축으로 성장했다. 통도사 부산포교원(주지 심산)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달 여는 '주제가 있는 전통문화 체험'에는 일반인들도 상당수 참여하는 등 인기가 높다.

각종 교양강좌나 수련회 등을 통해 사찰을 열어 놓은 곳들도 많다. 9년 전통의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 '한글학교'는 이 지역 교양강좌의 터줏대감이다. 600여명의 노인 학생 중 40% 이상이 일반인이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상당수라고 사찰측은 얘기한다. 서울 백련사(주지 월해) '한문서당' 역시 방학 때만 되면 다른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로 붐빈다. 전남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의 '염불선 주말수련회' 역시 성별이나 종교,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포근한 수양처다. 광주, 진주, 마산 등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인지도가 높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한국 JTS는 4월24일 몽골에 밀가루 36톤을 보냈다. JTS는 추후 가축사료와 의류등의 구호물품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JTS, 몽골에 밀가루 36톤 지원

한국JTS(이사장 법륜)는 4월24일 부산 제일제당 부산공장에서 추위와 가뭄으로 굶주리고 있는 몽골에 보내기 위해 밀가루 선적식을 가졌다.

한국JTS는 몽골 답사를 통해 몽골을 긴급구호 지역으로 정하고 먼저 36톤의 밀가루를 보내고 추후 가축사료와 의류 등 다른 구호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몽골 주민은 극심한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으나 구호물품들이 주민들에게까지 직접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JTS는 몽골 주민들에게 직접 구호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차량, 통역인들을 구해 직접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법륜스님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차량과 몽골어 가능 통역 자원봉사자가 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JTS는 몽골에 의류나 밀가루, 가축사료 등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 후원을 기다린다. (02)587-8995

부산=천미희 기자

뉴스 & 뉴스

결식아동돕기 길상음악회

결식아동 후원을 위한 음악회가 열린다. 맑고향기롭게(회주 법정)는 부처님오신날인 11일 길상사에서 길상음악회를 개최한다. 결식아동이 함께 자리하는 가운데 열리는 이날 음악회는 '고래사냥' '우리는'의 가수 송창식씨와 국악계 4인조 신세대그룹 '푸리(PURI)', 노영심씨가 무대를 꾸민다. (02)3672-5945 도필선 기자

GMO 반대연대 12일 창립

GMO(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가 5월12일 오후2시 조계사에서 창립식을 갖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단체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가 주도가 되어 한살림, 농어촌사회연구소, 귀농운동본부 등 17개 유기농·생협관련 단체가 참여한다.

김재경 기자

불교여성지도자 청와대오찬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교여성지도자 30여 명이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초청으로 4월27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가졌다.

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와 오찬을 함께 한 이희호 여사는 불교계 여성들이 사회개혁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여불련 관계자들은 여성발전기금과 공공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독일 보문사 연등축제

독일에서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등축제가 열린다. 통도사 독일포교원 보문사(주지 병오)는 11일 9시30분 프란츠라우 베르그 옛 동독 중심지에서 벌이는 제등행렬을 시작으로 14일 봉축법요식, 6월1일 한글서예작품 전시회 및 사경법회등 다양한 봉축행사를 개최한다. 이밖에도 보문사는 20일 베를린불교연합회 차원의 봉축문화행사를 마련한다.

도필선 기자

원효성사 1314주기 제향대제

원효성사의 열반 1314주기를 추모하는 "원효성사 제향대재"가 원효학연구원(이사장 성타)과 (사)이차돈·원효양성사봉찬회(이사장 혜인, 봉찬회) 공동주최로 3일 오전 10시 경주 분황사에서 봉행된다.

원효성사의 제사는 분황사와 봉찬회가 경주지역에서 따로 스님의 시일에 맞춰 모시던 것을 올해 처음 공동으로 봉행하게 됐다. 김재경 기자

장기수후원회 홈페이지 개설

불교장기수후원회(상임대표 성관)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www.janggisu.corea.to)를 개설했다. 홈페이지에는 단체 및 비전향장기수 소개, 단체 소식, 회원 동정, 관련 칼럼, 게시판 등으로 꾸며져 있다.

김재경 기자



◇태고종·천태종·진각종·총지종 등 종단들이 북녘동포에게 부처님 오신뜻을 전하기 위한 전방 OP봉축 점등식을 잇달아 가졌다. 사진은 관음종이 4월25일 열쇠부대 종각 OP에서 봉행한 점등식행사.

"북녘 동포에게 자비광명을"

전방 OP 초파일 봉축 점등식 잇달아

장병들과 북녘 동포들에게 부처님 오신 뜻을 알리기 위한 불기 2544년 OP점등식이 4월20일 애기봉에 이어 각 종단과 사단 주최로 전방 OP에서 잇달아 봉행됐다.

4월21일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이 종단스님들과 신도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 3사단 멸공 OP에서 점등식을 가졌으며 도선사(주지 광복)도 중부전선 태풍부대 호국통일사에서 납북통일을 기원하는 점등식을 봉행했다.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25일 육군 열쇠부대 종각OP에서 연등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등식에는 종정 혜웅스님, 총무원장 홍파스님과 총무부원장 지성스님 등 관음종 스님들과 신도, 열쇠부대 부대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홍파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의 자타불이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감싸안는 포용력을 가진다면 통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총지종(통리원장 총지화)도 25일 7사단 칠성 전망대에서 연등점등식을 봉행했다. 27일에는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이 6사단 월정리 전망대,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이 육군 7296부대 509 연꽃전망대, 대한법화종(총무원장 운경)이 관문점 1사단 도라 전망대, 여래종(총무원장 명안)이 15사단 아산전망대에서 점등식을 갖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북한 동포들에게 널리 전해지기를 기원했다.

이경숙 기자

봉축 소책자 26만권 배포

'부처님 마음으로…' 등 3종
사찰·군법당·병원 등에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 포교 소책자 26만 권이 무료 배포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종단 최초로 〈부처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주머니 속의 평화〉 〈치유의 손길〉등 3종의 포교 소책자를 대량으로 제작, 전국 300여 사찰과 200개 군법당, 20개 병원에 전달한다.

교구본사 25곳과 직영 및 관람료사찰 100여곳, 일반사찰 200여곳에 20만부가 보급되는 소책자 〈부처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는 부처님의 생애, 마음 다스리기 등의 내용이 실려있다.

200여 군법당에 6만권이 보내질 〈주머니 속의 평화〉에는 그리움이 사무치고 육신이 고단할 때 마음을 다스리는 글, 위험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글등의 경전과 법문내용들이 들어있다.



또 치유를 위한 기도와 염불, 간병의 마음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 〈치유의 손길〉 1만부는 전국 20여개 병원에 배포된다.

김원우 기자

길상사 상대 50억 소송

이응선의원, 대원각 기증관련

대원각 터를 조계종 길상사에 기증한 故 김영한 보살의 유언집행자인 한나라당 이응선 의원은 4월24일 길상사측이 대원각 터를 기증받는 대신 주기로 한 돈을 달라며 50억원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와 관련 길상사는 "김 보살이 길상사에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 50억원을 받아 한국과학기술원에 기증하는 것처럼 유언에 명시했지만,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에는 이같은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예일대 출신 美 무량스님 남가주 산속 태고사 세워



미국인 스님이 캘리포니아주 중부 테하차피 산중에 한국 전통 사찰 '태고사(Moutain Spirit Center)'를 건립해 화제다.

주인공은 무량(에릭 버럴·41) 스님으로, 4월 22일 한국 화계사 주지 성광 스님 등 한인 스님과 불자 등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지 5만평에 건평 132평 규모인 태고사 개원식 및 불상점안식을 가졌다.

태고사는 무량 스님이 96년 4월 전기 전화 수도 시설이 없는 산속에 천막치고 살면서 미국인 목수 2명과 함께 사진을 놓고 연구해가며 지은 절로 남가주에서는 첫 산중 사찰이다.

예일대학생이었던 무량스님은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한 의문으로 고민해 오다 출가를 결심하고 83년부터 5년간 충남 예산 수덕사와 군산의 태고사 등에서 수행을 쌓은 뒤 90년 로스앤젤레스 달마선원의 주지로 있었다.

오종욱 기자

은평-성북복지관 가정의 달 맞아 노인 위로잔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은평·성북 교계 노인복지관 두 곳이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펼친다.

서울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운)은 어르신 공경과 인간존중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4·6·8일 세 차례에 걸쳐 특별행사를 갖는다.

4일 은평구 스완 웨딩홀에서는 지역 무의탁·독거 노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뷔페 경로잔치'를 열며, 6일에는 대조동 야외 근린공원에서 인근 경로당 어르신 및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야외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어 8일에는 복지관에서 '어버이날 기념행사'와 함께 생명존중 실천결의대회를 열고 생명나눔실천회와 공동으로 장기기증 및 화장유언서약 캠페인을 벌인다. (02)385-1351

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상훈)은 경제적인 문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노인들이나 50년 이상된 장수 부부 30세대를 대상으로 4일 오전 10시 복지관 강당에서 '사랑의 금혼식' 행사를 갖는다. (02)929-7950

한명우 기자

전국영탑 대리점 모집

■ 가족, 종중, 묘지의 혁신!
천안 영락사 영탑이 해결해 드립니다.
· 영탑기본형 1기에 유골 18기 봉안으로 묘지와 장례비가 경제적이며 사후관리가 편리하다. 문중, 종중, 탑30기 60기 90기 제작 설치도 합니다.
· 선산, 정원등 어느 곳이나 최저 3평이면 설치가 용이하다.
· 탑1기에 조상을 대대로 봉안하며 성묘나 제사 모시기가 편리하고 가족 화합이 잘된다.
· 회장은 어떤경우에도 후손에게 영향이 없으나 시신을 잘못 매장하거나 이장하면 종교와는 상관없이 우환이 생기며 유골을 버리면 후손은 반드시 후회하게된다.



실용신안 등록번호	0172542호
의장등록번호	30-1999-0022081
탑기본형규격(1)	높이190cm, 넓이:100cm 세로100cm
유골함규격(원통형)(2)	높이 17cm, 지름:16cm
상석의 규격	가로 50cm, 세로65cm,

■ 영탑 분양 및 주문 제작 판매 설치
· 가족형, 종중형, 일반형, 종교형 기타 단체형
· 전국 어디나 신속 제작 설치가능
■ 전국 판매 대리점 모집
· 전국 사찰경내 영탑공원 영탑주문 환영
· 전국 시, 군, 구 단위
· 석재 가공 및 장묘 부대사업 부동산 소개업 점포 운영하시는 유경험자.
· 희망자는 전화 또는 내사문의 요망
· 폐사의 소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숙식은 1박2일 무료 제공

◈ 충남 천안시 입장면 시장리 51-35번지
Tel:0417)584-6674~6 Fax:0417)584-2335
천안영락사 영락영탑공원

금해스님의 여래선식



오랫 동안 기다리신 소납의 선식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122종류의 약재와 순수한 토종 곡류로 각 약재마다 특성을 최대한 살린 9증9포와 오랜 법제 기간을 거쳐 3년에 걸친 노력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15년 이상의 경험을 살려 수 천년 민족비방과 1천여 년간의 佛家 선식을 합친 환 및 가루 선식으로 복용방법이 간단하며 남녀노소 체질 등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래선식은 현대의 각종 공해로 인한 유전자 변형과 음식물 및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오장육부의 일체 질환과 체질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간염, 간경화, 간암 등에는 놀라운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 치료 대체효과로 본 증상 사례 ◀◀
1. 비, 위장 및 소화기 질환, 대장병
2. 기관지 천식, 폐암, 기관지염, 선후암
3. 비만 및 체질개선
4. 각종 초기암 및 진행암
5. 수술전후 방사선 및 항암치료
6. 병원에서 진단되지 못하신 분 천견
7. 우울증, 정신장애, 신병 등에 관한 천견

주문신청 0523)372-1221 / 011)564-1217
■대 금 : 20만원
■입 금 : 우체국 611715-0029373 예금주 : 지덕용
■주 소 :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54 약사사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함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걸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청정원의 믿음 그대로 – 이제, 대상 헬스라인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청정원

몸이 허약하신 어르신께 클로렐라



글로렐라는 세계적인 장수국가인 일본건강식품시장에서 오랫동안 판매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상(주) 클로렐라 한알이 일본시장의 20%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 유 형 건강보조식품, 클로렐라 식품
- 대 상 균형된 영양을 필요로 하는 성장기의 자녀, 고된 업무와 스트레스에 지친 어버지, 세각이 저하되어 건강증진을 필요로 하시는 분, 몸이 허약해진 노년기의 어르신, 다이어트시 영양불균형이 염려되시는 분
- 섭취방법 1일3회, 1회 3~10정씩 섭취
- 종류 및 구성 200mg× 450정(1개월분) 200mg× 900정(2개월분) 200mg×1200정(3개월분)
- 판로 공급 및 문의처 대상(주)
- 제조원 서흥캡셀

W42,000/1개월분(900정)
W65,000/2개월분(900정)
W85,000/3개월분(1,200정)

피로한 간을 위한 영양 리버케어



간은 해독기관, 면역기관으로서 기능이 심하게 손상되기 이전에는 증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글루타치온, 연어 정자의 RNA, DNA 등 항산화 기능성 성분이 풍부히 함유되어 있습니다.

- 특 장 점 : 간 염양소 및 간기능 활성화 영양소 보급
- 주요성분 : 글루타치온, 연어 구기자 소간정, 감맥지, 백봉자 비타민 E, 일기삼
- 구 성 : 180캡셀/1병(1개월분)
- 섭취방법 : 1일 3회, 1회 2캡셀
- 제 조 원 : 샘바이오텍
- 판 매 원 : 대상(주)

W49,000

피로한 간을 위한 영양 리버케어



골드케어에는 두뇌영양공급에 도움을 주고 두뇌·정액의 구성성분인 DHA와 콜레스테롤 개선 및 혈행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EPA가 들어 있는 DHA함유식품(건강보조식품)으로 건강증진 및 유지에 도움을 드립니다.

- 주 성 분 : 정제어유(DHA 27%/EPA 5%), 액주효모, 레시틴, 월桂冠추출물분말, 베타카로틴, 비타민B1염산염
- 섭취방법 : 1일3회, 1회2캡셀
- 유 형 : 건강보조식품/정제어유가공식품
- 구 성 : 200mg×180캡셀(90g)
- 제 조 원 : 일진제약(주)
- 판 매 원 : 대상(주)

W105,000

원활한 두뇌 영양공급 골드케어



가스관에서 가스가 원활하게 통과하지 못하고 이물질이 쌓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 입니다. 써클케어에는 마늘유, 은행잎추출물, 산사자추출물 등이 들어있어 혈행에 도움을 드립니다.

- 주 성 분 : 소맥배아유, 정제어유(EPA 9%, DHA 12%), 산사자 추출분말, 은행추출분말, 베타카로틴, 마늘유, 토도씨유
- 섭취방법 : 1일3회, 1회2캡셀
- 구 성 : 500mg×180캡셀(90g)
- 유 형 : 특수영양식품
- 제 조 원 : 일진제약(주)
- 판 매 원 : 대상(주)

W55,000

혈행을 원활히 도와주는 써클케어



파워케어는 자라분말, 누에, 오미자 등 천연원료를 농축한 영양공급원으로 누적된 피로에 지친 남자들의 체력증진에 도움을 드립니다.

- 주 성 분 : 자라분말, 백청엽, 구기자, 산수유, 오미자, 하수오, 복분자분말, 비타민E
- 섭취방법 : 1일3회, 1회2캡셀
- 구 성 : 500mg×180캡셀(90g)
- 유 형 : 특수영양식품
- 제 조 원 : 샘바이오텍
- 판 매 원 : 대상(주)

W73,000

남성을 위한 영양공급원 파워케어

건강상담 및 상품주문
080-996-5000, 02-2235-5000
http://www.healthline.co.kr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게 중요합니다.
건강식품!!!

마음만 있고 비싸서 엄두가 안나서 드시질 못했죠.
이제 **미원,청정원**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온 대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평안합니다.

아직도 일기예보 역할을 하세요? –조인케어





건강한 무릎, 힘찬 발걸음 조인케어가 도와 드립니다.

W99,000

연골의 조직에 함유된 글루코사민, 황산콘드로이친,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영양소를 배합한 특수 영양식품입니다.

- 구 성 : 500mg×270캡셀(90g)
- 섭 취 : 1일3회, 1회3캡셀
- 판 매 원 : 대상(주)

※충무병원 이도영박사(서울대 의대 외래교수)팀과 퇴행성 관절염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

튼튼한 장, 쾌변은 건강의 기본

글루코나이스 포르테

글루코나이스 포르테는 현대인에게 부족한 식이섬유를 보충하여 주는 특수 영양식품으로 초고분자 수용성식이섬유 글루코만난을 다량 함유하였으며, 파인애플 맛을 첨가하여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W35,000/1Box

- 주요성분 : 글루코만난 43.4%(HCA 기준)
- 구 성 : 8.3g×60포/1개월분
- 특수 영양식품 허가번호 : 대전 대허 제102호
- 섭취방법 : 1일 2~3회 초식(1,2,3후 취침전) 1회 1포를 냉수(150ml)에 넣어 충분히 저은 후 음용
- 제 조 원 : 미원(주) ● 판 매 원 : 대상(주)

※면역을 의학박사 임상실험을 거쳐 그 탁월한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당뇨환자에게 가장 좋은 약은 철저한 식이요법입니다.

뉴케어 당뇨식

식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식사대용식 뉴케어 일반식



W 36,000



W 48,000

- 특 징 :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비율이 20:30:50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정백당이 아닌 결정과당을 사용하여 혈당상승 및 인슐린 반응이 낮습니다.
  동정상으로 설사, 구토의 염려없이 적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소를 첨가하였습니다.
  Olive Oil을 사용하여 MUFA인 oleic acid의 함량이 높습니다.
  MCT oil을 사용하여 fat tolerance를 증진시켰습니다.
- 섭취대상 : 당뇨병 환자 혈액환자 및 탄수화물 제한이 필요한 환자
- 섭취방법 : 1일 섭취량 8~12캔(1,600~2,400kcal)을 경구 및 경관 투여하며 환자의 질병과 상태에 따라 투여량 농도, 속도를 조정하여 섭취합니다.
- 구 성 : 30캔/Box
- 특수 영양식품 허가번호 : 경기 이천 14호

건강한 식생활은 제대로 된 영양섭취를 말합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을 균형있게 제공하는 뉴케어 일반식은 한국인의 5대 영양소는 물론 12종의 비타민과 7가지 무기질이 함유된 균형영양식으로 한국인의 체질과 입맛에 맞도록 커피맛, 바닐라맛, 딸기맛, 구수한 맛으로 제조되어 병원 환자는 물론 병약자, 일반인들의 영양보충에도 적합한 제품입니다.

섭취대상
- 수술 전후 영양상태 개선이 필요하신 분
- 치통·치주염·발치로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없는 분
- 영양보충이 필요한 노인 및 성장기 아동
- 아침식사를 자주 거르시는 직장인, 수험생, 노약자분

섭취방법
한끼 2~3캔(400ml~600ml)을 섭취하여 영양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합니다.

종류 및 구성 : 30캔 /box (뉴케어바닐라맛, 커피맛, 딸기맛, 구수한 맛)
특수영양식품 허가번호 : 경기이천 14호

상품배달
- 3만원이상 주문시 전국무료배송 ● 전국2~5일 이내 도착
- 반품 고객 택배시 선택무료
  -3만원 미만 주문시 배달비 3,500원 별도 (주문상품 배달처가 2곳이상일때는 별도상담요망)

반품, 교환 및 A/S
- 반 품
  • 주문후 30일 이내 100%가능합니다.
  시용시에는 A/S기간 동안 철저히 A/S에 응해 드립니다.
  • 환불은 반품상품이 물류창고에 도착즉시 입금시켜드립니다.
- 교 환
  • 주문후 30일이내 100%가능합니다. • 반품,교환 전화번호: 080-996-5000

대금결제
신용카드 결제
- 결제가능카드 : 외환,삼성,LG,BC, 국민,아멕스, 다이너스클럽 카드 (300,000원 이상 구매시 3개월 이상 무이자 할부)
- 무통장입금
  - 농 협 : 031-01-423424
  - 국민은행 : 093- 25- 0016-741
  - 서울은행 : 15308-1941337
  - 한빛은행 : 114-04-114217
- 예금주 : 대상(주)영업본부
- 입금자성명이 동일해야 함
- 주문후 7일이내 입금하지 않으시면 주문은 자동취소됩니다.

DAESANG 大象(주)

사은품 전화주신 모든 고객께 클로렉라 샘플 50정 및 건강관련책자를 드립니다.